
2020-2학기 가천인 독후감 대회
수상 작품집



공감의 내일이 열립니다
가천대학교 의사소통센터

■ 심사평 김 기 복 교수

■ 2020-2학기 수상 작품 소개

- 대상 / 슬픔을 헤매기 전에 한국어문학과 박세희 / 1
- 금상 / 기울어진 세상 속에서 사회복지학과 김민진 / 5
- 금상 / 코로나19와 정의란 무엇인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권민아 / 10
- 은상 / 25% 한의학과 한주영 / 14
- 은상 / 각자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사람들을 대하는 아름다운 시선 간호학과 신정은 / 19
- 은상 / 부끄럽지 않은 고백 한국어문학과 이재인 / 22
- 은상 / Ne pas se refroidir, Ne pas se lasser. 글로벌경제학과 김효은 / 26
- 은상 / 대한민국 뉴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강혜원 / 29
- 동상 / 나는 평등 사회의 시민일까? 음악학부(작곡) 김영아 / 32
- 동상 / 과거 성찰을 통해 얻은 현대 사회의 전염병에 대해 필요한 태도와 지혜 간호학과 엄재혁 / 36
- 동상 / 이것도 미술인가 미술·디자인학부(회화·조소) 김유진 / 40
- 동상 / 회색 매니큐어,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슬픔이여! 한국어문학과 이해인 / 43
- 동상 / 글쓰기가 죄가 될 때 한의학과 조민 / 46
- 동상 / 전쟁이 앓아간 순수함 간호학과 이휘문 / 49
- 동상 / 웅크리지 않는 아이 기계공학과 안현진 / 51
- 동상 / 모두 다른 정의 소프트웨어학과 한승우 / 54
- 동상 / 사랑이 법이 된 세상 경영학과(글로벌경영학트랙) 최기범 / 57
- 동상 / '정의'의 모든 것 간호학과 최윤서 / 59
- 외국인 금상 / <행복의 척도>를 읽고 나서 식품영양학과 허맹 / 63
- 외국인 은상 / 걱정할 것을 추구하자 자유전공 장서형 / 65
- 외국인 은상 / 행복의 척도에 영향을 미치는 코로나19 경영학부(경영학) 즈영티투이 / 67
- 외국인 동상 / 사회적 Want와 개인적 Like 광광경영학과 째티튀안 / 69
- 외국인 동상 / 행복의 척도를 읽고 한국학전공 안희령 / 70
- 외국인 동상 / 여자들, 신중히 생각해서 웨딩드레스 입어보자 경영학부(경영학) 유흔신 / 73

2020-2학기 <가천인 독후감 대회> 심사평

심사위원장 김기복 교수

이번 2020년 2학기에 진행된 <가천인 독후감 대회>는 한편으로는 고전의 반열에 오른 작품에서부터 SF소설과 같은 대중적인 장르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다른 한편으로는 원론적인 저술에서부터 팬데믹과 같은 시의적인 주제를 담고 있는 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와 분야의 도서를 추천 도서로 선정했다. 이를 통해 문학, 인문, 사회, 과학, 예술 등의 영역에서 우리 학생들이 습득해야 할 보편 교양을 추천 도서 안에 포함시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각 영역에서 우리 시대의 특수한 문제들과 씨름하는 작품들을 선정하려고 노력했다.

올해부터 <가천인 독후감 대회>가 연 2회로 확대되었다. 늘어난 회수 때문에 독후감 대회에 응모하는 작품들의 수와 수준이 자칫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했다. 하지만 기우에 불과했다. 응모작은 내국인 학생 287편, 외국인 학생 142편 총 429편으로, 이미 많은 학생들이 1학기에 응모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적지 않은 학생들이 독후감 대회에 큰 관심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예상과는 달리 어느 때보다 투고된 독후감 작품들의 수준은 높았다. 내국인 학생뿐만 아니라 외국인 학생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최종 심사 과정에서 쉽게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작품들의 수준이 고르게 높았다. 그 동안 가천인 독후감 대회를 꾸준히 지켜본 사람으로서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응모작 가운데 독후감 대회 초기부터 의사소통센터가 일관되게 유지해온 평가 기준에 따라, 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바탕으로 개인적인 독서 체험을 넘어서 사회적 존재로서의 문제의식을 담아낸 글 또는 독서 체험을 깊이 있게 성찰한 결과를 담아낸 글들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슬픔을 헤매기 전에>는 장류진의 『일의 기쁨과 슬픔』에 대한 독후감으로서 작품에 대한 훌륭한 비평적 안목이 엿보이는 수작이다. 특히 작품에 대한 공감을 절실하게 드러내면서도 그것을 다시 탄탄한 논리적인 틀로 재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즉 깊이 있는 공감으로 승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한 글이다. 금상으로 선정된 <기울어진 세상 속에서>는 김지혜의 『선량한 차별주의자』에 대한 독후감으로서 책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넘어 책이 제기하는 문제를 자기 자신의 문제로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탁월했다. 또한 글의 구조가 가진 단단함은 필자가 책의 메시지를 지성적으로 냉철하게 자신의 것으로 소화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금상으로 선정된 또 다른 글인 <코로나 19와 정의란 무엇인가>는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독후감으로서 '참여적 독서'의 한 모범 사례라 할 만하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있을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여러 윤리이론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봄으로써 책임기의 새로운 차원을 보여주고 있다. 은상을 받은 여러 작품들 역시 책에 대한 이해를 넘어 책의 메시지를 자신과 우리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글들이었다. 마지막으로 동상 작품 중에는 창의성과 잠재성으로 가득 찬 재미있고 좋은 글들이 많았다는 점을 말해두고 싶다.

외국인 유학생 독후감에서 금상으로 선정된 허맹의 <욕망이 적을수록 행복이 많아진다>는 김경일의 『코로나 사피엔스』 가운데 <행복의 척도>에 대한 독후감으로서 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책이 전하는 메시지에 대한 자신만의 독자적인 생각을 잘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훌륭했다. 은상을 받은 장서형의 <적정한 것을 추구하자>, 즈영티투이의 <행복의 척도에 영향을 미치는 코로나 19> 역시 좋은 한국어 구사 능력을 바탕으로 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보여주고 있는 점에서 좋았다.

코로나로 전 세계가 암울해지고 흥흥해지고 있는 이때 문제의 원인을 밖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서 찾는 것이 성찰하는 대학인들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다시 되돌아보는 태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책읽기와 글쓰기는 그러한 성찰의 중요한 한 방법일 것이다. 코로나 시대에 더 열심히 책을 읽고 글을 써야하는 이유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독후감 대회에 응모해준 모든 학생들과 바쁘신 와중에도 열심히 심사에 임해준 의사소통센터 교수님들 그리고 의사소통센터장님 및 센터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이다.

슬픔을 헤매기 전에

지하철에서 내렸다. 평소 같으면 집까지 걸어 올라갔겠지만, 그날은 유독 추웠다. 버스를 타기 위해 오른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핸드폰을 열어보았다. '지금 도착'이라는 문구가 빨갱게 떠오른다. 빨리 가야겠다. 나는 떨궈놓은 고개를 들었다. 아, 딱 봐도 연세가 많아 보이는 할머니 두 분이 에스컬레이터 양 칸을 차지하고 계신다. 어쩔 수 없다. 원래 여기서는 두 줄로 멈춰 가는 것이 옳은 것이다. 거기까지 생각이 닿자, 슬슬 주변의 눈치도 보였기에 결국 지상에 도착하는 순간까지 가만히 서 있었다. 발이 땅에 닿고, 천천히 -하지만 누구보다 빨리- 정류장을 쳐다봤다. 버스가 막 도착했는지 움직임도 채 멈추지 않은 상태다. 뛰면 탈 수 있다. 나는 지갑도 넣지 못한 채 그대로 달렸다. 기사님 잠시만! 다섯 걸음만 더 가면 따뜻한 버스 좌석에 앉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순간, 문이 닫혔다. 맙소사. 짜증이 확 밀려온다. 평소에 눈길도 가지 않던 버스였는데, 왜 그렇게 열불이 나는지. 나의 그 날은 한순간에 최악의 하루가 되어버렸다. 어쩐지, 오늘 사장님이 그렇게 잔소리를 하더라니. 스멀스멀 피어오른 잿빛 감정들이 어지럽게 뒤섞였다 뭉개졌다. 나는 누굴 탓해야 할까. 자비 없이 출발해 버린 버스 기사? 내 앞에서 눈치 없이 이야기를 나누던 할머니들?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씨? 누구든 원망해야 했기에, 나를 탓하기로 했다.

『일의 기쁨과 슬픔』은 사회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개인의 감정과 이해관계를 담아낸 단편집이다. 총 8편의 작품이 실린 소설집 속 이야기는 모두 타인과의 관계맺음을 통해 전개된다. 직장 내 동료, 연인이 되기 직전의 남녀, 고용주와 피고용인, 상사와 하사. 그들이 몸담은 사회의 울타리 안쪽에는 언제나 슬픔이 묻어있다.

장류진은 거창한 것을 쓰지 않는다. 인생을 관통하는 대단한 진리를 논하지도 않는다. 역설적이게도, 이는 작가의 강한 책임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녀는 알고 있다. 세상에는 바꿀 수 없는 일들이 존재한다. 어찌할 수 없는 것에 거창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무의미한 일이다. 그래서 그녀의 소설은 사소하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인물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묵묵히 보여준다. 그 안에 담긴 작은 슬픔과 기쁨에 귀 기울인다. 그렇기에 따뜻하다. 그녀의 애정 어린 시선과 연민 가득한 문체에는 슬픔을 기쁨으로 승화하는 힘이 있다. 그 힘이 어찌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것에 초연해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바꿀 수 없는 것들과 함께 가는 법. 그것에 집중하며 『일의 기쁨과 슬픔』을 들여다보자.

제대로 미워하기 : 내가 미운 걸까, 내가 미운 걸까.

단편들에 등장하는 여러 인연은 주인공의 미묘한 감정으로 수렴한다. 물론, 그것은 단 하나의 언어로 규정할 수 없는 복잡한 것이다. '좋다', '싫다'의 이원화를 넘어 신경 쓰이면서 질척이고, 당혹스러우면서도 떨칠 수 없는, 묘한 감정의 영킴이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 역시 그와 같다. 한 번쯤 겪는 감정이지만 그 누구도 당당히 정의 내리지 못하는 마음이 바로 '미

움'이다. 작품에 담긴 그들의 '미움'은 짓궂을 정도로 솔직하다. 누가 볼까 끼워 넣은 은근한 위선조차 찾아볼 수 없다. 그렇기에 더욱 공감 가고, 더욱 치부를 들킨 듯 화끈거린다.

첫 번째 수록작 「잘 살겠습니다」에 등장하는 빛나는 '나'의 직장 동료이다. 자신이 비싼 에 비동을 시킨 줄도 모르고 따뜻한 세상에 감탄하는 순진무구한 여인이며, 회사생활의 기본인 출근 시간조차 지키지 못해, 젖은 머리를 휘날리는 답답한 인물이다. '나'는 그런 빛나가 밋기만 하다. 커피 한 잔에도 계산이 오고 가는 그녀였기에, 세상 물정 모르는 빛나가 더욱 참을 수 없었다. 당연한 이치라 여긴 것을 당연하게 거역하는 누군가를 마주할 때, 우리는 흔히 당혹스러움을 느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끊임없는 손익계산과 쉬지 않는 머리싸움은 당연하다. 그 과정에서 눈치는 덤이며, 책임은 필수다. '나라면 저렇게는 안 할 텐데.' 빛나를 향한 안쓰러움과 동정, 답답함과 황당함, 그와 함께 찾아오는 묘한 호기심은 한데 엉켜 복잡한 감정을 형성한다. 꼴불견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걸까. 살아남기 위해 유지해온 모든 것들을 처참히 무너뜨리는 저 생태계 파괴자는 오히려 당당하다. 뭐가 문제냐는 듯한 해맑은 태도는 우리가 믿어온 자본주의의 법칙을 철저히 짓밟았다.

언젠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그 친구는 세상을 만만하게 생각했다. 아빠 회사를 물려받겠다고 땀땀거리던 그녀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그런 식으로 생활한다면 너희 아빠는 네가 아닌 너희 오빠에게 회사를 물려줄 거라고. 세상의 이치도 모르는 네가, 친한 직원들은 모두 월급을 올려줄 거라고 큰소리치는 네가, 어떻게 사장의 자리에 앉아 회사를 유지하겠냐고. 그걸 알려주고 싶어 '기업 경영의 원리'라는 인터넷 강의까지 들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유난이다.- 그냥 그녀가 나로 인해 깨달았으면 했다. 녹록지 않은 세상에 굴복했으면 했다. 그것에 크게 데여 울면서 나에게 왔으면 했다. 그럼 난 당당히 말할 수 있겠지.

“거봐, 내 말이 맞지?”

'나'가 빛나에게 가르쳐주고자 했던 것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일지 모른다. 내가 맞다는 것을.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삶이라는 것을. 빛나로 인해 무너지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울분을 토하는 것이다.

슬픔으로 가득 찬 우리의 하루에는 타인에 대한 미움이 엉켜있다. 그 안에 담긴 복잡한 심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출발점을 살펴봐야 한다. 우리는 왜 그들을 미워하게 되었을까. 그곳에는 충족되지 않은 나만의 욕구가 담겨 있다. 자신이 악착같이 지켜왔던 사회생활의 질서를 아무렇지 않게 파괴하는 빛나, 마냥 해맑은 그녀의 순진무구함이 한편으로는 부럽기 한 '나'에게는 질서에 대한 분노와 그것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바람이 있다.

마찬가지로, 친구에게 미움을 느낀 나는 손쉬운 성공에 대한 열등과 그에 대한 욕구가 담겨 있었다. 우리는 모두 타인을 통해 각자의 소망을 직시한다. 자신이 억눌러왔던 내면의 바람과 애써 외면했던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발견한다. 부디 잘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잘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소망이다.

제대로 용서하기 :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인생은 때때로 못됐다. 짓궂은 장난에, 알미운 운명에 끝없이 헤매게 한다. 불행히도, 그중 팔 할은 이미 벌어져 되돌릴 수도 없는 것들이다. 더욱 불행히도 우리는 언제나 그것에 매달린다. 사실, 알고 있다. 후회와 미련은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다는 것을. 오늘이 무력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긍정 회로를 돌려야 한다는 것을.

표제작 「일의 기쁨과 슬픔」에 등장하는 ‘거북이알’은 우동마켓에 판매 글을 도배하는 장본인이다. SNS 중독자 회장의 심기를 거스른, 그 바람에 월급을 포인트로 받게 된 그녀는 포인트로 구매한 물품을 돈으로 바꾸는 수고를 일삼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갑질에도 회사를 때려칠 수 없는 월급쟁이 직원의 삶에 눈물이 절로 난다. 그렇다고 그녀는 그것에 잠식되지 않는다. 나름의 대안을 찾고 곳곳이 살아가는 그녀의 유쾌함은 한편으로 안쓰럽기도 하다. 그들의 논리나 행동에 의문을 갖지 않는 편이 좋다는 거북이알의 말은 언제나 시비를 따지며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미덕이었던 사회의 진리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혼자서는 바꿀 수 없는 세상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현실과 타협한다.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벌어진 일들과 그것에 고통받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씩씩하긴 하다. 상사의 갑질에 의식적으로 긍정해야 하는 것. 행복에도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말이다. 하지만 어찌겠는가. 이미 옆질러진 물은 그래도 포인트가 되어 밀려 들어왔다.

우리의 삶은 잘못 설계된 육교와 같다. 그저 세워지는 대로, 만들어지는 대로 존재하는 그것은 고칠 수도, 되돌릴 수도 없다.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육교는 조형물이 되든, 운동기구가 되든, 바람막이가 되든, 그저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해 쓸모 있는 의미를 붙일 뿐이다. 그 순간에도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용서해야 한다. 그들을 허락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나아가기 위함이다. 나와 무관하게 흘러가던 삶을 조금씩 내 쪽으로 끌어당기는 과정이다. 우리는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슬픔에 쉽게 무너진다. 기대하는 바가 큰 만큼 실망은 큰 법이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우리가 슬픔에 잠식되는 동안 시간은 꾸준히 흐른다. 그것은 곧, ‘시간마저’ 낭비했다는 슬픔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이미 벌어진 결과에서 오는 슬픔에 빠져 나를 망가뜨리지 말자.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주어진 상황을 용서하고 받아들인다면 결국, 소소한 정답을 찾게 될 것이다. 거북이알의 거북이처럼.

기쁘게 살아가기 : 슬픔을 승화하는 힘

작가가 회사에서 직접 겪은 경험을 글로 녹여낸 작품인 만큼, 살아 숨 쉬는 듯한 삶의 현장은 수많은 직장인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아쉽게도 나는 직장인이 아니다. 따라서 그들이 겪는 크고 작은 고충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좋은 문학은 독자 개개인에게 다른 울림을 줄 여지를 남겨놓은 문학이라고 했던가. 내가 주목한 쪽은 ‘일’보다는 ‘기쁨과 슬픔’이다. 더 정확히, 기쁨 다음에 오는 ‘슬픔’이라 할 수 있겠다. 도처에 도사리는 슬픔은 기쁨보다 강렬하고 자극적이다. 그것은 갑자기 우리를 찾아와 이유 없이 울적이게 한다. 축축이 스며들어 무한의 공간으로 떠민다. 우리에게서는 그것을 기쁨으로 승화할 지혜가 필요하다.

마지막 수록작인 「탐페레 공항」에는 한 노인이 등장한다. 시력을 잃어가는 과정에서 있는 그는, 앞이 보이지 않음에도 참 덩덤하다. 주인공 ‘나’가 탐페레 공항에서 그를 만난 것은 지극히 우연적이었지만, 인생에서 가장 후회했던 경험으로 남을 만큼 강렬했다. 다큐멘터리 PD가 되기 위해 열정을 태웠던 어제를 뒤로한 채, 현실에 안주하며 식품회사에 취직한 지금. 그녀는 생계의 안락함에 물들며 서서히 지난날의 불씨를 꺼뜨렸다. 문득 잊고 있던 무언가 톱하고 터져 나올 때, 울컥이는 아련함이 잔잔히, 하지만 힘있게 퍼져나갈 때. 우리는 그 무엇보다 농밀한 슬픔을 경험한다. 선택은 언제나 미련을 동반한다.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동경과 겪어보지 않은 삶에 대한 갈망은 우리를 축축이 적신다. 그녀에게 있어 이러한 슬픔을 승화해 준 힘이 바로 탐페레 공항에서 만난 노인이다. 젊은 시절, 좋아하는 사진을 직업으로 삼으며

수많은 세상을 카메라에, 눈에 담아낸 그는 보이지 않는 어둠과 싸우면서도 다행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앞으로 닥쳐올 수많은 상황을 선택하고 포기할 것이다. 내 안을 가득 채우던 불꽃을 덜어내고, 꺼뜨릴 것이다. 열정 가득한 그 날의 나는 액자 속 한 폭의 그림이 될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마주한 그것은 우리를 한없이 슬프게 할 것이다. 하지만, 결국 슬픔을 치유하기 위해 우리는 그 그림을 꺼내 볼 것이다. 초록 눈의 노인이 카메라를 보며 찬란히 미소짓던 그 날처럼 말이다. 더 이상 예전처럼 사진을 찍을 수 없는 그도, 신도림역에서 당연하다는 듯 껌을 빨던 할머니도. 그들만의 열정을 불태우던 시간이 존재했다. 그들이 포기한 무언가를 불쌍히 여길 수 없다. 그들의 오늘은 우리의 내일이기에, 사연 있는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기보다 함께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후회를 안고 살아가는 법. 선택이 낳은 오늘을 마냥 애처롭게만 바라보지 않는 법. 슬픔을 기쁨으로 치유하는 법. 『일의 슬픔과 기쁨』에는 슬픔에 초연히 대처하고, 기쁨에 예민하게 반응할 우리가 있다.

하루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오늘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그래서 울컥 끓어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장류진을 읽는다. 그녀의 소설에 비범한 인물 따위는 없다. 그렇기에 기상천외한 이야기 역시 없다. 장류진에게 있어 그것은 독이다. 우리는 그저 그녀가 담아놓은 그들의 작은 하루를 들여다보고 끄덕이면 된다. 나의 장대한 성공을 위해 희생당하던 오늘의 초라한 감정들, 지루한 일상에 담긴 슬픔과 기쁨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이야말로 『일의 기쁨과 슬픔』을 펼쳐야 할 때다.

기울어진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정의롭게 살길 원한다. 물론 순간의 이기심으로 정의의 끈을 놓아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도덕 가치를 완전히 일그러뜨리면서까지 정의롭지 않길 원하는 사람은 없다. 나 또한 정의롭게 살길 원하는 사람 중 하나였다. 정의로운 행동을 보이면 주변의 신의도 얻고 기분도 좋아지니,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래서 나는 정의로운 사람인 ‘척’하며 매일매일을 살아왔다. 내가 잘 모르는 주제에 대해 논할 때면, 그리고 내가 불편하게 여겨온 주제에 대해 논할 때면 나는 숨겨왔던 본심을 드러내는 대신 ‘척’을 꺼내 들었다. 아마 많은 사람이 이 ‘척’에 대해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선량한 차별주의자> 앞에서 솔직해질 수밖에 없다. 이 책에는 사람들의 민낯을 보여 주는 신비한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개인을 감싸고 있던, 모든 방면의 정당화와 고정관념을 버리고 나서 자신을 마주해 보자. 본인은 과연 정의로운 사람인가? 본인은 어떠한 차별 상황에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인권 운동가라는 단어에 알맞은 정의로운 사람인가? 슬프게도 나의 대답은 ‘NO’였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했으면서 선택적 정의를 표출하고 있었다니.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법을 배우고 있으면서, ‘사람’의 범주에 들어갈 존재를 선택하고 있었다니. 나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척’을 알고 있었음에도 가히 충격적인 결과였다. 이 책 앞에서 나는 그저 ‘선량한 차별주의자’일 뿐이었다.

그렇게 엉망이던 가치관을 재확립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다. 바로 절대적 약자와 절대적 강자는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논리는 나의 과거를 되돌아보는 데에 큰 영향을 주었다. 내가 그동안 ‘척’을 하고, 누군가에겐 사활이 달려 있을 문제에 대해 안일한 반응을 보인 것은 약자라는 피해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에게로 향하는 차별에 눈이 멀어 다른 사람들은 차마 생각지 못한 것이다. 누가 더 낮고 누가 더 별로인지 가려내기란 어려운 일이며, 애초에 구분할 필요도 없는데 말이다. 또한, 약자라는 피해의식에 가득 차 있었던, 세상을 모나게만 보던 나조차도 어떤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강자가 되기 마련이었다. 실제로 책을 읽고 난 뒤 내 머릿속은 약자의 처절함과 강자의 죄책감이 뒤섞여 꽤 어지러웠다. 그래서 나는, 분명하게 갈려진 세상의 끝과 끝에 직접 서보면서 이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정리해보려고 한다. 이 글은 그릇된 나의 과거에 대한 회고록이자 기울어진 세상에 대한 제언이다.

세상의 밑바닥에서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태어난 나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속해 있다.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가 이제 여성차별 따위는 없다며, 오히려 남성을 향한 역차별이 문제 되고 있다며 다그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여성이기 때문에 공포를 느끼기 쉽다. 짝한 줄도 몰랐던 나의 신체가 인터넷 어딘가에 떠다니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하고, 흉악한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밤중에 돌아다니는 것은 피하려고 한다. 이것들은 전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평생 모르는 감정이다. 여성은 아직 사회적 약자의 경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범위를 더 확대해보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각각 2살과 4살인 내 조카들은 사회적 약자이다. 이걸 가지고 또 어른들이 다 해주는데 뭐가 문제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내 조카들은 아동이기 때문에 집 근처의 카페에 가지 못한다. 카페 앞에 ‘노키즈존’이라는 팻말이 붙어있기 때문이다. 카페 주인은 사촌 언니가 끌고 온 유모차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유모차를 어딜 끌고 와요! 여긴 애들 못 데려와요. 당장 나가세요!” 이렇듯 누릴 걸 누리지 못하는, 심지어 부모에게까지 이어지는 차별의 굴레를 보고도, 아동이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장애인과 성 소수자는 또 어떠한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일반인’과 다르게 태어난 것은 크나큰 죄악이다. 이들은 팔이 하나 없어서, 정신 상태가 남들과는 달라서, 이성이 아닌 동성을 좋아해서 등의 이유로 심각한 차별을 겪어야만 했다. 하반신 장애인들이 주로 타고 다니는 휠체어의 경우 아직도 경사로가 마련되지 않아 들어가지 못하는 건물만 수십 개가 넘었고, 즐기기 위해 참여한 축제에서 성 소수자들은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고통을 받아야만 했다. 사회적 약자들을 무력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차별 세례 속에서, 자꾸만 정신이 나약해져 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약자라는 이유로 인생을 포기하거나 위축되어 있지는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남들과 다르다고 해서, 조건이 좋지 않다고 해서 차별받아야 한다는 법은 그 어디에도 없다. 물론 약자가 곧 비주류인 우리나라 사회에서 약자 개개인이 차별에 대항하여 개혁을 꿈꾸는 건 어려울 수도 있겠다. 하지만 아예 숨어버리고 없는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숨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혐오를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없다면 물러서지 말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자. 내가 ‘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어딘가를 바꾸지 않고도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유지하자. 우리는 존재 자체로도 변화를 이끄는 사람들이다.

다만, 책을 읽으면서 개인과 집단을 혼동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 이를테면 남성에게 성차별적 언행을 들은 후 무의식적으로 남성 대부분을 성차별자라고 여긴다는 가 하는 것 말이다. 강자 개인으로 인해 생긴 트라우마를 집단으로 확대하는 이 현상은, 오히려 약자와 강자 사이의 구분 선을 만들어 내어 약자를 더 나약하게 만들고 있다. 적으로 만들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까지 적으로 만들면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한다는 착각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노로 더럽혀진 감정은 본래의 목적의식을 해치지만 할 뿐이다. 나는 내가 무엇을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명확히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만약 이것을 지금 깨닫지 못했다면 평생 주체성을 잃어버린, 분노만 일삼는 약자로 살아야 했을 것이다.

세상의 폭대기에서

밀바닥에서 씹쓸하고도 단 연대의식을 맛볼 수 있었다면, 이제는 무한한 반성의 시간이다. 앞서 말했듯 나는 약자라는 피해의식에 휩싸여 ‘척’하기만 바빴다. 하지만 나 또한 어느 순간에서는 강자가 되어 있었다. 물론 내가 강자가 되었던 경험은 많지 않지만, 단 한 번의 경험 이더라도 약자가 있었고 나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면 반성해야 함이 마땅하다. 내가 강자였을 때를 곰곰이 생각해보니 대체로 무언가의 대표나 장을 맡았을 때, 다시 말해서 권력을 얻었을 때였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시절 동아리의 장을 했다가, 반의 부회장을 맡았다든가 하는 것들. 그 당시의 나는 내가 ‘강자’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게 생각

해보면, 동아리장이라는 권력을 얻고도 강자였다는 걸 알아채지 못한 것 자체가 나의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권력을 얻은 사람은 강자라는,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것은 나의 온전한 잘못이다. 약자의 경험을 하고, 또 약자의 인생을 공부하면서도 약자를 헤아리지 않고 강자 행세를 하고 말았다.

동아리 활동이라는 특별한 상황 말고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모두 상대적으로 강자이다. 느끼지 못했겠지만 우리는 약자들이 가질 수 없었던 특권들을 누리고 산다. <선량한 차별주의자>에는 미국 웰슬리대학의 페기 매킨토시 교수가 발표한 ‘백인특권의 46가지 예시를 담은 글’이 수록되어 있다. 이 글에는 ‘내가 음식을 입에 넣고 말한다고 사람들이 내 피부색을 가지고 비웃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외모, 행동거지, 냄새로 나의 인종이 평가된다는 사실에 신경 쓸 일이 없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데, 미국 사회에서 백인이 아닌 사람들은, 즉 약자들은 누릴 수 없는 권리들이다. 이를 나에게로 적용해 보자. 나는 추운 겨울날 따뜻한 집에서 잠든다. 나는 먹을 것이 없어 굶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아프면 언제든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나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언제 어느 때나 다양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갈 수 있다. 어찌 보면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권리일 수 있다. 왜 우리가 특권을 가진 강자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조금은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는 이 정도의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주거 빈곤층은 추운 겨울날 집이 없어 얼어 죽을 걱정을 하고, 저소득층은 먹을 게 없어 며칠을 굶는 경우도 허다하다. 외딴 시골에 사는 어르신들은 집과 병원의 거리가 멀어서 한번 치료받으려면 자식들을 동원해야 하며, 응급 상황임에도 길이 좁아서 구급차가 들어올 수 없는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대중교통은 배차 간격이 너무 길거나 아예 없어 이용하기가 힘들다. 이렇듯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졌던 권리가 누군가에게는 없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강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사회가 평등해지기 위해서는, 강자와 약자 사이의 간극을 좁혀야만 한다. 그리고 실제로도 약자들에게 잃어버렸던 권리를 찾아주는 대대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강자의 입장으로는, 막상 더 누렸던 권리를 다시 반납하려고 보니 꽤 억울하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권리도 아닌데 괜히 뺏기는 듯싶다. 이 부분에서 역차별이라는 화두가 제기된다. 소수인 약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안이, 오히려 다수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 말대로라면 차별을 없애기 위해 차별을 만드는 상황이니, 어찌 평등한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 대체 소수 차별과 다수 차별, 둘 중 무엇이 더 중요한 문제일까? 정답은 없겠으나, 최선의 길은 있다. 먼저 소수 차별은 약자라는 집단과 그 안의 개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다수 차별, 즉 역차별은 개인의 불편을 불러일으킨다. 가령 지하철에 임신부 배려석이 생겨 편한 자리에 앉을 수 없다는 불편이나, 버스에 노약자석이 가득해 앉아서 가지 못한다는 불편 말이다. 하지만 임신부, 노약자 등은 모두 놓치고 있었던 권리를 다시 보장받고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 강자들이 불편을 느끼는 이유는 본인이 갖고 있었던 권리에 대한 소유욕 때문이 아닐까. 특권이 사유할 수 있는 재산이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이다.

사실, 약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재력도, 환경도, 그 무엇도 아닌 차별과 핍박이다. 그리고 이런 차별과 핍박은 대부분 약자의 우위에 있는 강자들에게서 시작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강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차별적이고 약자들을 힘들게 한다는 걸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미를 위해서’ 흑인 분장을 했다고 말하는 개그맨들이나, ‘사랑해서 그런다’고 말하며 폭력을 행하는 혐오자들처럼 말이다. 이들이 행하는 것은 확실한 혐오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이유 있는 혐오는 없다. 아니, 혐오에 이유가 있어서 안 된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차별받을 이유가 없었듯이, 강자들에게는 누군가를

혐오할 이유가 없다. 이들은 얼핏 들으면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혐오 행위를 지속하려고 하지만, 사실 혐오는 그깟 이유로 정당화할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그러니 혐오를 멈추자. 혐오를 멈추고, '혐오'를 위해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가 아닌 속마음을 파헤쳐 보자. 마음속에는 차별주의자의 본심이 뿌리 깊게 숨어있을 것이다. 이를 꺼낼지 없앨지는 본인의 자유다.

또한, 함부로 사람을 재단하고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 혐오자들은 '사랑해서 그런다'고 말하며 성 소수자들의 잘못된 정신을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폭력을 행사한다. 아동 폭력 가해자들도 마찬가지로, '사랑해서 그런다'고 말하며 아이들의 정신머리를 고친다는 명목으로 폭력을 행사한다. 그런데 잘못된 것은 누구인가? 남들과 다른 게 잘못이라면, 어째서 다른 인종의 사람에게는 인종을 바꾸라고 강요하지 않는가? 선천적으로 결정되어버린 인종과 달리 성 지향성과 정신머리는 폭력이라는 방법을 통해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면, 심각한 오산이다. 인간은 다른 누군가의 입맛대로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는, 즉 강자들은 오지랴 부리지 않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오지랴는 약자에게 폭력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세상의 중심에서

약자와 강자는, 이렇게 차별하고 차별받는 상황 속에서 점점 서로를 멀리하게 된다. 그렇다면 약자와 강자를 아예 분리하는 방안은 어떨까? 하지만 책에서 언급된 것처럼, 분리하는 강자를 강자답게, 약자를 약자답게 만들 뿐이다. 핵심은 '공존'이다. 약자와 강자가 서로 공존하며 살아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강자와 약자의 경계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강자와 약자의 구분 없이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건 불가능하므로, 다양한 노력을 들여 두 집단 사이의 거리를 좁혀야만 한다. 약자들에게는 침해당했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강자들에게는 자신이 가진 특권을 인식시켜주어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두 집단에 대한 두 가지 서로 다른 방안을 통해서 평등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말했듯 약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차별일 것이다. 따라서 사회의 복지와 안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측면뿐 아니라 차별을 인식하고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정책적인 차원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불 때 차별금지법 제정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사회적 약자들이 무분별한 혐오 표현과 차별 행위로 인해 고통받을 일은 없을 것이다. 혐오는 차별을 낳고, 차별은 또 다른 편견을 낳는다. 편견은 혐오로 이어지며, 혐오는 또다시 차별로 이어진다. 다양한 약자들의 인권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복지는 우리 사회에서 잘못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행동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내가 생각할 때, 복지를 추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 문제인지 직시하는 '바른 눈'이다. 핵심을 무시한 채 맹목적인 서비스만 진행한다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복통이 심해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정밀 검사도 하지 않고 진통제만 부여하는 꼴이다. 이 환자가 맹장염일지, 아니면 단순 배탈일지는 검사를 해야만 알 수 있는 것이다. 치료하고 보내기에만 급급한 처방이 아니라, 문제의 근본부터 해결하려는 정신이 바로 진정한 복지의 마음가짐이다. 이 '바른 눈'을 키우기 위해서, 때로는 끔찍한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그동안 해왔던 '척'은 더는 통하지 않는다. 대신 마음속에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아고라를 만들어서, 누구든 들어올 수 있게 하자. 모든 사람을 위한 공공장소임에도 남성만 들어갈 수 있었던 아고라의 시대는 이제 안녕이다. 그리고, 이 평등한 아고라에서 약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힘쓰자. 언제나 약자들의 편

에 서서, 약자들에게 확성기를 대주고 발판을 놓아주는 것이 나의 역할이다. 지난날의 과오에 대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 주자.

약자인 동시에 강자였던, 그래서 펍 혼란스러웠던 나는 지금 세상의 중심에 서 있다. 이 기울어진 세상에서, 선량한 차별주의자가 아닌 '선량한 복지'로서의 정의를 이룩하고 싶다.

코로나19와 정의란 무엇인가

1. 정의란 무엇인가? : 생각하는 즐거움

정의, 공동선, 시민의 의미 등 커다란 철학적 물음에 대해 생각하는 즐거움을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었다. 한국어판 서문에서 마이클 샌델은 이렇게 말한다. 책을 펼치고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샌델 교수의 목적은 충분히 성공했다는 것을.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며, 나는 이성적 자아를 형성하는 사춘기 시절을 계기로 ‘삶의 의미’에 대한 의문을 던져왔다. 얇은 철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잘 알지도 못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을 믿어온다고나 했던 것 같다. 대학교에 입학한 후, 이전과는 다른 고차원적인 지식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에 몇 개의 철학 교양 강의를 들었다. 그러나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삶의 의미’를 탐구하기 위한, 철학적 과정은 복잡하면서도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만 깊어졌다. 마치 플라톤의 국가론에 등장한 동굴 비유에 나오는 “그림자에 영향을 받지 않는 철학”이 “메마른 이상향”으로 느껴진 것처럼. 나에게 모든 철학이 아주 먼 곳에 있었다.

철학이 이상향에 머물렀던 이유는 무엇일까? 질문의 답은 가까이에 있었다. 철학을 이상향에 머물도록 내버려 뒀기 때문이다. 『정의란 무엇인가』가 여느 도서보다 철학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생각할 수 있게 한 이유는 ‘현실’과 접목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현존하는 사회 문제들을 깊고, 논리정연하게 설명할 수 있던 이유는 ‘철학’과 함께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 시대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와 사회구조, 그 사회가 지닌 사상부터, 고유한 한 개인이 가진 사상을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었다. 무엇보다 ‘재미있게 생각’할 수 있게끔 말이다. 물론, 그 생각의 과정이 단순하지만은 않았다. 그러나 ‘특정한 사회 문제, 딜레마에 대하여 질문’함으로써, 다양한 관점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철학적 주장을 토대로 ‘다시 질문’하고 ‘대답’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과정의 반복은 그 자체로 ‘생각하는 즐거움’을 유발하게 했다. 온전한 정답이 없는 문제이기에, 그 즐거움이 더 풍요로워지는 것 같기도 하다. 이 위대한 책을 읽은 모두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았고, ‘정의란 무엇일까’라는 사고의 과정을 겪었다. 샌델 교수의 공개강연처럼 “논쟁했던 모든 질문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지만, 그 날 그가 느낀 감정처럼 책을 통해 사유하고 사고하는 그 자체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2. 질문을 통한 참여적 독서

정의란 무엇인가. 샌델 교수는 ‘복지, 자유, 미덕’의 중요도에 따라 달라지는, 정의를 바라보는 각기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정의를 복지의 극대화라고 생각하는 공리주의적 관점, 정의를 자유와 연관시킴으로써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는 자유 방임, 공정성 진영 관점, 정의가 미덕, 좋은 삶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관점이 있다. 『정의란 무엇인가』는 큰 틀에서, 세 가지

관점을 다양한 측면으로 바라보고 질문하고 있다. 특정한 사례를 통해, 정의의 관점을 타당한 근거와 함께 제시한다. 또한, 해당하는 정의의 관점이 부실한 측면을 다른 정의와 비교 분석하며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 정의를 주장한 철학자들의 사례를 함께 불러와, 도덕적 주제나 정치적 견해를 알기 쉽게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책’이라는 미디어는 작가가 자신의 사고를 전달하는 일 방향적인 특성, 혹은 독자가 그 사고를 통해 생각하고 답을 하지만, 주고받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제한된 쌍방향이라기에도 애매한 특성을 가진다. 그러나 『정의란 무엇인가』에서는 개인이 가졌거나, 혹은 생각하지도 못한 의문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의제들에 대해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하고 답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샌델 교수는 우리를 단순하게 책을 읽음으로써 지식을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라, 샌델 교수와 함께 400여 페이지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는 ‘참여적 독서’를 하도록 도움을 준다.

3. 코로나 19와 정의를 바라보는 관점

『정의란 무엇인가』식의 ‘참여적 독서’는 책에서만 아니라, 내가 보고 자라온 현실로 심화 발전하게 했다. 나는 샌델 교수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로 든 방식처럼, 특정한 정의를 바라보는 관점을 ‘현실’과 연결지어 질문을 던져보고자 한다. 따라서 정치적 혹은 도덕적 견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보다 심층적으로 받아들여 보고자 한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마스크 의무화’를 주장하는 논리는 ‘철학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행복의 극대화를 주장하는 벤담의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마스크 의무화’는 타당할 것이다. 마스크를 쓰는 행위는 코로나 19 감염 위험을 낮춰 주며, 확진자 수 하락에 도움을 준다. 따라서 코로나 19 감염이라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쾌락의 총량을 늘려주기 때문이다. 물론, 마스크를 쓴다는 행위 자체를 고통으로 본다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마스크를 쓰지 않아 생겨나는 쾌락보다, 확진자 수 증가로 느끼는 불안함과 감염의 고통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추론한 벤담의 주장과 다르게, 다른 사람을 돕는 행동은 남에게 강요해서도 안 되고 남으로부터 강요받아서도 안 된다는 자유 지상주의 철학에 따르면, 마스크 의무화는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포함될 것이다. 물론, 조금 다른 측면에서 벤담의 공리주의적 관점에 ‘코로나 19 방역’을 주제로 한다면, 비판점이 적지 않게 드러난다. 2013년 개봉한 감기라는 영화에서는 호흡기 질병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시를 폐쇄하고 감염되지도 않은 지역 사람들을 단체로 격리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뿐만 아니라 감염자들을 위한 제대로 된 치료는커녕, 시체를 한데 모아 태우기도 한다. 보편적인 도덕 관점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만일 이것이 코로나 19 상황이라고 한다면,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이 행동은 옳다. 다수의 행복을 위해 억울한 사람의 죽음은 방치되어도 된다. 쾌락의 총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위 사례와 다르게, 칸트는 동기가 아닌 결과를 중시한다. 인간을 쾌락을 증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공리주의적 접근을 철저히 비판했을 것이다. 칸트는 자율적 행동으로 목적 그 자체를 선택해야 한다는 도덕법칙을 수립했다. 칸트라면 코로나 19 방역을 어떻게 했을까? 칸트는 마스크 의무화를 허용했을까? 칸트식 접근법을 활용하자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다. ‘마스크 의무화’는 옳은 행동일까? 마스크를 쓰는 것은 옳은 행동일까? 누구나 삶을 이어 가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마스크를 쓰는 것이 옳은 행동이라면 쓰는 것이 옳다. 그러나 마스크 의무화는 외부의 힘을 통해 ‘강제’하는 행위므로, 마스크 의무화를 통해 억지로 쓰는 것은 옳은 행동이 아니다. 칸트는 스스로 부여한 법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지의 장막 개념을 제시한 롤스는 코로나 19 방역을 어떻게 했을까? 샌델 교수처럼 무지의 장막 상황을 가정해보려 한다. 무지의 장막 속에서는 개인이 자신이 코로나 19에 취약한 계층인지, 아닌지, 코로나 19의 감염 여부도 알 수 없다. 그렇다면 당연히 ‘공리주의적 접근’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마스크 분배’ 문제, 코로나 19 감염 혹은 격리를 위한 지원 혹은 복지를 강조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 19 대응 모습만을 본다면, 롤스의 주장이 한국 사회의 코로나 대응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미덕의 정의를 강조했다. 그가 주장한 정치의 목적은 좋은 시민을 양성하고 좋은 자질을 배양하는 데 있다. 그는 시민의 미덕과 공동선을 강조했다. 만일, 코로나 19 방역을 이끈다면 그는 어떻게 했을까?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을 현실로 불러와 이해하는데 어려웠으므로 정확한 추측은 어려울 것 같다. 다만, 시민의 정치참여를 중요하게 여기고, 시민의 미덕, 공동선을 강조한다는 관점에서, 좋은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시민이 소유한 미덕으로서 코로나 상황을 실천적 지혜로 이겨나가야 한다고 했을 것이다.

4. 정의란 무엇일까? :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한 걸음.

정의란 무엇일까. 책에서 던져주는 의제를 받아들여 생각하는 여러 과정을 거쳤다. ‘3. 코로나 19 : 정의를 바라보는 관점’과 반대로, 특정 사례를 보며 현실의 사례와 연결지어 생각해 보기도 했다. 1장의 첫 번째 사례인 자연재해 상황 속 가격 폭리 상황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코로나 19 마스크 대란을 떠올렸고, 자유 지상주의에서 마이클 조던의 ‘과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를 논하는 사례를 보며 ‘이재용 상속세’ 문제를 떠올렸다. 또한, 충성심의 딜레마에서 ‘일본의 위안부 문제’를 떠올리기도 했다. 이렇듯 우리 세상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관점과 관점이 충돌하는 상황 속에는, 근본적으로 정의의 충돌이 존재했다.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정의란 무엇일까? 『정의란 무엇인가』를 보며 그 해답을 찾고자 했다. 나만의 철학을 수립하고자 했다. 그러나 정의란 칼로 무를 자르듯, 쉽게 단정할 수 없는 개념임을 깨달았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라는 책에 따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문구가 나온다. 이를테면, 사랑과 우정, 정의라는 실체가 없어 만질 수도 없고, 어떠한 용어로 확실하게 정의할 수 없는 개념처럼 말이다. 나는 서로 다른 정의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철학적 개념을 토대로 삼아 사고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마스크 폭리 상황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이재용 상속세 논란에서는 의문을 가지기도 했다. “나는 이런 주의자야”, “나는 누구의 철학을 믿을 거야”라는 등의 일관되고 단순한, 단정 짓는 개념은 통하지 않았다. 특정 하나의 개념이 주관과 비슷하게 일치하더라도, 그것이 100% 완벽하게 수립하지도 않았다.

그리해도 『정의란 무엇인가』가 선물해준 가장 커다란 가치가 있다면, 생각하는 즐거움을 안겨준 것이다. 나는 경쟁하는 토론과 의견 상충 상황을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편이었다. 토론 상황에 트라우마가 있다고 해도 될 만큼. 찬성과 토론을 나누어, 어쩌면 답이 없을 확률이 높은 딜레마적 상황을 토론한다는 것이 괴롭게 느껴졌다. 게다가 소신이 확실하지도 않아서, 복잡한 문제를 생각하는 것을 질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책을 읽으며 ‘딜레마’ 상황을 생각하고, 반대되는 관점이 되어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즐거운 일인지를 알게 되었다. 어쩌면 샌델 교수의 말처럼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한 정치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품게 된 것 같다. “회피에서 나온 존중은 피상적인 존중이다.”라는 것처럼, 이전의 내 회피적 성향

을 반성했다. “동료 시민이 공적 생활에서 드러내는 도덕적, 종교적 신념을 피하기보다는 때로는 그것에 도전하고 경쟁하면서, 때로는 그것을 경청하고 배우면서, 더욱 직접 참여해야 한다.” 도덕적인 참여 정치의 중요성이라는 가치를 깨닫고, 나도 어찌면 ‘정의를 바라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한 발짝 다가선 진정한 시민’이 되었고 비로소 느낄 수 있었다.

25%

한국 직장인은 주당 평균 41.5시간을 일한다. 시간으로는 25%이다. 하지만 일이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보다 높다. 친구, 가족보다 직장동료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길고 좋아하는 취미생활 보다 일을 하는 시간이 몇 배는 더 많다. 일은 우리를 조금 더 까칠하게, 계산적이게 또는 무기력하게 바꾸어 놓는다. 그렇다고 일을 하지 않는 삶이 속 편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학업을 끝낸 대한민국 성인은 백수(및 취준생), 직장인으로 나뉜다. 하지만 백수와 직장인의 위상은 다르다. 백수는 직업의 결여로 정의된다. 직장인인 것에 대한 이유를 말할 필요는 없지만, 백수나 취준생 에게는 직업이 없는 마땅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첫 직장을 가지기 전 이십여 년 동안도 일에 대한 생각을 쉴 수 없다. 아는 직업이라고는 대통령, 선생님 밖에 없는 8살짜리 에게 장래희망을 취조하듯 물어보지만 어떤 어른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은 누구도 하지 않는다. 이미 어른이 된 우리에게 두 질문은 거의 같은 의미로 느껴지기도 한다. 아이들은 자신의 미래 모습을 직업의 형태로 꿈꾸고 자신의 흥미와 정체성을 직업의 틀을 이용해서 파악한다. 직업으로 귀결될 수 없는 흥미와 재능은 그다지 권장되지 않는다.

그 아이들은 자라서 취업전선에 뛰어들고 뒤통수를 얼얼하게 맞는다. 일을 통해 재능을 발휘하고 자아를 실현한다는 얘기는 극소수에게만 해당하는 도시 전설에 가깝다는 것을 깨닫는다. 학년이 바뀔 때 마다 열심히 적어낸 장래희망은 무엇인가. 하지만 그 좌절감을 음미할 시간도 잠깐이다. 취업은 전쟁이다. 헛꿈을 꾸거나 감상에 빠져있다가는 살아남지 못한다. 토익과 자격증 시험 학원을 전전하며 조금 더 현실적인 장래 희망을 꿈꾼다. 대기업, 혹은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탄탄한 중소기업 정도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강남역의 회사 건물과 점심시간이면 쏟아져 나오는 직장인들을 바라보며 저 수많은 자리 중 하나쯤은 나에게 할당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원증을 목에 걸고 커피를 사러 나온 내 모습을 상상해보기도 한다. 취업을 ‘뽕개고’ 사원증을 목에 걸었을 때 우리는 이제 되었다고 생각한다. 영금영금 기어서 들잡이 하던 때부터 시작된 경주가 끝났다.

<탐페레 공항>의 주인공은 다큐 피디를 꿈꾸며 부족한 ‘스펙’을 채우기 위해 워킹홀리데이를 떠난다. 저렴한 항공편을 택하느라 공항에서 긴 대기 시간을 보내게 된 주인공은 한 노인을 만난다. 나이가 백 살 가까이 된 것 같은 노인은 말이 느리다. 한국이었다면 이 노인과 이야기를 나눌 마음과 시간의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주인공은 노인과 자신의 꿈, 열정에 대해서 얘기한다. 삼 개월의 워홀을 마친 주인공은 한국으로 돌아와 노인이 보내준 사진을 받는다. 노인에게 답장을 꼭 쓰겠다고 생각하지만 취준생의 삶은 공항에서의 대기시간 같지 않다. 시간은 늘 부족하고 할 일은 많아 숨 돌릴 틈이 없다. 그럼에도 피디 공채에서는 연이은 불합격 통보를 듣는다. 주인공은 꿈에서 한 계단씩 멀어져 결국 식품 회사의 회계 팀에 취직한다. 주인공과 다큐멘터리 피디의 꿈은 한국과 탐페레 공항만큼 멀다. 노인에게 편지 쓰는 일과 낡은 장래희망은 일상에 묻혀 가지만 결코 완전히 잊히지는 않는다. 불타올랐던 열정은 차가운

현실에 조금씩 식었지만 여열은 남아서 살을 태운다. 그 흉터를 응시하는 것은 아직 아프다. 결국 주인공은 육년이 지나서야 답장을 쓸 수 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직업을 갖지 못했다는 사실 보다 마음에도 없던 식품회사의 회계로 취직하고 안도감이 든다는 것이 더 슬프다.

<다소 낮음>의 장우는 <탐페레 공항>의 주인공과 상반되는 인물이다. 열심히 살았지만 피디 근처에도 못간 그녀와 달리 장우는 우연히 올린 영상으로 기회를 얻는다. 하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음악을 해야 한다며 유명 기획사의 제의를 거절한다. 여자 친구 유미는 노력과 열정은 다소 낮고 신념만 강한 장우의 모습이 답답하다. 어느 날 장우는 길가다 쇼윈도 안의 강아지를 본다. 장우는 그 강아지가 자신을 조건 없이 원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돈사장과 계약, 여자 친구와의 연애편 사람과의 관계에는 조건이 붙었고 이에 지친 장우가 조건 없이 사랑받고 싶은 자신의 소망을 강아지의 시선에 투사한 것뿐이다. 하지만 장우는 순수한 음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만큼 강아지가 자신을 구원해줄 것이라고 믿는다. 장우는 오랜만에 손에 쥐는 돈을 거의 다 털어서 강아지를 산다. 유미는 결국 장우를 떠나고 강아지 보리만 곁에 남는다. 어느 날 보리는 탈장 증세를 보인다. 천문학적인 동물병원의 비급여 수가에 장우는 뒤늦게 돈사장을 찾아 계약 얘기를 꺼내지만 이미 한 발 늦었다. 한 존재를 곁에 두기 위해서는 현실의 문제에 눈 돌릴 수 없다. <다소 낮음>은 돈, 현실, 조건을 외치는 사람들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음을 헤아려준다. 신념보다 돈을 택한 멧없는 사람들이 그저 메마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인생에는 돈이 없다면 소중한 존재를 지켜줄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온다. 모아둔 적금은 그 위협들에 대한 알뜰한 방호복이 되어준다. 때로는 지폐로 촘촘히 두른 그 엉성하고 얇은 방호복만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전부이다.

또한 <다소 낮음>은 반대로 장우의 입장에서 우리 사회에 모두가 성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동조 압력(Peer pressure)이 존재한다는 것을 조명한다. 장우는 성공하기도 유명해지기도 싫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장우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한다. 유튜브 조회수를 자주 들여다보는 장우도 음악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긴 하지만 그에게 성공은 욕망의 대상이 아니다. 성공은 본인이 욕망하는 음악을 했을 때 부차적인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어야만 한다. 또한 성공을 향한 길은 너무 치열하다. 아무도 원치 않는 다소 낮은 곳에 존재하면 고생할 필요도, 높은 곳에서 떨어질 까봐 아등바등 노력할 필요도 없다. 모두가 노력과 성공을 외치는 세상에서 다른 길을 고집하는 것은 외롭다. 과열된 경쟁은 바라보는 것조차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 장우도 남들처럼 연애도 하고 강아지도 키워보니 모두가 내면화한 그 가치, 돈과 성공을 잠시나마 욕망하게 된다. 하지만 치열하게 돌아가는 그곳은 노력과 욕망이 부족한 자들에게 열려있지 않다. 모두를 잃고 방에 혼자 돌아온 장우는 여기가 자기가 속한 곳이라는 안도감을 느낀다. 맞지 않는 옷을 입었다 벗은 것처럼 편안하다.

앞만 보고 달려온 현대인들은 외부에서 수여된 지위를 통해서 자아정체성을 파악한다. 본인을 인정해주는 회사, 돈을 가져다주는 직업이 없는 사람은 소속과 정체성이 희미하다고 생각한다. 직업이 없는 사람은 본인이 사회라는 정교한 기계에 갈 곳 없는 부품이 된 것처럼 느낀다. 취직한 뒤에는 회사, 직장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무서운 속도로 흡수한다. 취직한 친구들에게 “회사가 어디냐”라는 질문을 했었다. 나는 회사가 위치한 장소가 궁금했던 것이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씨제이 다녀”였다. <백한 번째 이력서와 첫 번째 출근길>은 스스로의 가치를 본인의 회사와 동일시하는 현대인의 전형을 보여준다. 또한 이런 식으로 확립된 정체성은 실은 부정확하고 희미한 느낌이라는 점도 지적한다. 계약직을 끝내고 정규직으로 첫 출근하는

주인공은 월급에서 이런 저런 지출을 빼서 하루에 얼마를 써야하는지 까지 계산하는 합리적인 사람이다. 아메리카노가 2000원이라는 말에 넘어가 4500원짜리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서 나오는 부당한 일을 당하는 와중에도 주인의 말이 정말로 맞는지 인터넷에 검색하여 따져볼 줄도 안다. 그런 주인공은 정규직 채용 전 건강 검진을 받으며 본인을 대우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또 회사가 이탈리아 대사관, 재규어 매장과 같은 건물에 위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탈리아와 가까워진 ‘느낌’ 재규어 차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 우연히 같은 건물에 위치한 것일 뿐인데 말이다. 회사가 개인에게 부여하는 정체성은 우연에 지나지 않으며 자의적인 것이다. 회사를 통해 확립한 자아감은 합리적인 실체가 아니다. 개인은 아무리 똑똑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회사와 동일시된 자아를 가진 사람은 좀 더 쉽게 회사를 위해 희생한다. 회사는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 기업의 이미지가 본인의 이미지이고, 기업의 성과가 본인의 성공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을 통해 회사는 개인을 착취한다. 하지만 회사의 흥망성쇠는 말단 회사원 개개인의 업무능력과 크게 관계없으며 회사는 언제나 수지타산에 따라 개인을 내쫓을 수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그렇듯이 회사와 개인 사이에는 건강한 거리가 필요하다.

우리는 시간과 노동을 월급으로 교환 받는다. 한만큼 받고, 받는 만큼만 해준다. 이 계산법은 비단 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는 일상의 모든 행위를 돈으로 환산한다. <잘 살겠습니다>는 현대 도시 사람을 대변하는 주인공이 그렇지 않은 빛나 언니를 대면하며 느끼는 이야기를 그린다. 빛나 언니의 행동은 회사 생활의 암묵적인 규칙에 조금씩 빗겨간다. 빛나 언니와의 만남은 자꾸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 회사 생활하는 어른이 저렇게까지 모를 리가 없다. 손해 보지 않으려고 일부러 저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알밋고 꽤 씩하다. 더 준 것도 더 받은 것도 없이 떨어지게 계산해서 사온 사회 통념보다 터무니없이 작은 결혼 선물에 빛나 언니는 진심으로 감동해서 눈물을 흘린다. 감동의 눈물과 카카오톡 상태메세지는 얼마로 환산해야 하며 무엇을 돌려주어야 할까. 자본주의 논리는 저울처럼 공정하므로 그것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옳다는 주인공의 믿음은 남편과 연봉을 공개 하면서 한번 더 흔들린다. 같은 부서에서 같은 일을 하고 남편은 천 만원을 더 받는다. 착실히 믿었던 자신의 종교에는 신은 없고 교리만이 있었다.

노동과 돈의 교환은 거의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가장 사적인 공간인 집조차도 누군가의 일터가 된다. <도움의 손길>의 주인공은 일과 가사를 병행하는 것에 지쳐 가사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다. 착실히 직장 생활을 한 결과 신도시 아파트를 리모델링해서 들어가고, 가사도우미 서비스도 이용할 만한 여유가 생겼다. 하지만 주인공에게 권력 관계의 전복은 어색하기만 하다. 고용주인 주인공은 피고용인 아주머니에게 원하는 바를 똑바로 전달하지도 못하고 도리어 잔소리를 듣는다. 주인공은 결국 고용주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한방, 해고를 결심한다. 하지만 고용 관계도 아주머니 측에서 일방적으로 끝내버린다. 주인공은 해고 통보를 들은 직장인처럼 아주머니의 요구 사항을 맞춰드릴 수 있다고 말끝을 흐린다. 흔히들 고용주가 갑 피고용주가 을이라고 한다. 주인공은 돈을 내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을의 자세를 취한다. 일이 단지 밥벌이에 그치는 것이면 다행이다. 우리는 일은 우리의 모습을 바꾸어놓는다.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으로 간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나오자 자기도 모르게 “맛있게 드세요” 했다는 일화가 인터넷에서 떠돌며 사람들을 웃긴다. 하지만 을의 직업병은 마냥 웃기지만은 않다.

<도움의 손길>에서처럼 우리는 돈을 지불하면 타인의 노동을 일회성으로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 <새벽의 방문자들>은 모든 공간으로 확장된 일터와 모든 행위로 확장된 노동에 의문을 제기한다. 오피스텔로 이사 온 주인공은 자꾸 새벽마다 알 수 없는 남자들의 방문을 받는다. office와 hotel을 합쳐서 만든 콩글리쉬인 오피스텔은 이름처럼 주거와 사무실이 합쳐진 공간이다. 오피스텔은 어디까지가 사는 곳이고 어디까지가 일하는 곳인지 모호하다. 인간의 어떤 부분 까지 노동으로 정당하게 거래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자본주의의 대답 또한 마찬가지이다. 오피스텔을 줄인 말인 오피는 오피스텔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의 형태를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여자의 집 초인종은 울린다. 서울 도심을 가득 채운 오피스텔만큼 인간의 가치에 대한 고민 없는 거래가 만연하다.

도시에서 직장인으로서 사는 것은 인간관계의 양상도 바꾸어 놓는다. 맨날 같은 시간에 타는 만원 지하철은 어찌 매번 모르는 얼굴뿐 이다. 그래도 회사에서 지긋지긋한 얼굴들을 역지로 보고 있자니 차라리 서로 말 섞을 필요 없는 지하철이 그리워지기도 한다. 타인과의 관계는 노력을 필요로 한다. 대화는 오가는 텍스트의 표면적 의미 그 이상을 담고 있다. 상대방의 언어적 수단과 비언어적 수단을 해석하여 의도를 파악한 뒤 적당한 말에 내 의도를 잘 녹여서 전달해야 한다. 하지만 일 하는 현대인은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과 마주한다. 사람 한명 한명을 개성 있는 객체로 여기고 정성들여 파악하기에는 시간도 노력도 많이 든다. 피로해진 현대인은 그냥 상대방도 나와 같다고 생각하는 편리한 방법을 택한다. 표준이 존재하면 판단이 간단해진다. 본인을 표준으로 놓은 뒤 이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이상하고 특이한 것이므로 이해하지 않는다. 그렇게 성인들은 전조작기로 퇴행한다. <나의 후쿠오카 가이드>의 주인공 지훈은 지유의 마음을 '확신'한다. 남녀관계에 통달했다는 그에게는 인간관계의 표준형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자신의 욕망을 상대방에게 투사하여 판단하고 그것에 한 치 의심도 없다. 하지만 지유는 그의 예상을 벗어난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지훈은 아이처럼 떼를 쓴다. 그리고 지유가 본인 생각과 같지 않다는 것이 분하여 눈물을 흘린다. 그는 일본을 떠나기 직전 커피를 즐기고 있는 노파의 종이컵에 돈을 던져 넣는다. 지훈은 상대방을 일부러 곤란하게 하려는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타인을 자신과 다른 욕망을 가진 객체로 이해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이 때문에 지훈은 때때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기도 하며 성숙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한다.

장류진은 이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 단편 <일의 기쁨과 슬픔>을 통해 이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 사이의 유대감을 회복할 수 있음을 말한다. 안나는 자신이 일하는 회사에서 개발한 플랫폼인 우동마켓을 악용하는 이용자를 제재하라는 사명을 가지고 닉네임 거북이알을 만나러 간다. 하지만 화면 너머에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에게는 사정이 있었다. 거북이알은 대표의 명령으로 클래식계 거물의 내한 공연 섭외를 성사시킨다. 하지만 대표는 이 사실을 자기 sns보다 회사 홈페이지에 먼저 올렸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북이알의 승진을 취소하고 급기야는 월급을 카드 포인트로 준다. 회사 대표는 개인적인 이유만으로 한 사람의 생계를 흔들 수 있다. 이를 통해 대표와 사원이라는 각자의 위치가 확인된다. 거북이알은 모멸감을 느끼지만 그것도 잠시뿐이다. 모멸감은 생존에 도움 되지 않는다. 거북이알은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생각해내고 카드 포인트로 구매한 물건을 우동마켓을 통해 팔기 시작한다. 회사에는 상하체계가 존재한다. '윗사람'들은 월급을 포인트로 주기도 하고 사원들이 서로를 영어 이름으로 부르게 한다. 그리고 '아랫사람'들은 그것을 따라야 한다. 체제에 의문을 제기했다가는 살아남을 수 없다. 결국 돈도 포인트가 아니냐는 거북이알의 말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도 회사의 연장선이다. 권력에 따른 상하 관계가 존재한다. '갑질'이 이토록 만연한 이유

다. 하지만 거북이알의 얘기를 전부 들은 안나는 그에게 경고하기는커녕 물건을 하나 더 구매한다. 사람에게는 타인과 연대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안나는 우동마켓의 직원으로서 그 자리에 나갔지만 같은 인간으로서 상대를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안나는 까칠한 회사 동료도 상사도 전부 인간이었다는 까마득히 잊고 있던 사실을 기억해 낸다. 내가 짠 코드의 오류가 마치 자신의 오점처럼 느껴지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직장인이기 이전에 사람이다. 때로는 상사의 명으로 나간 자리에서 개인적인 유대감이 앞서 원래 목적을 등한시해도, 야근을 핑계로 보고 싶은 콘서트의 티켓팅을 해도 된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 마녀 유바바는 근로 계약서를 쓰면서 이름을 앗아간다. 자신의 본명을 잊은 자는 원래 속한 세계로 돌아가지 못하고 영원히 일해야 한다. 일에게 내 본질을 내어주기 싫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고 싶은지 자문해야 한다. 하루 여덟 시간을 대리님으로 불러도 자신의 본래 이름 석 자를 잊지 않아야 한다. 인체의 70%는 물이지만 사람은 물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존재이다. 가진 시간의 25%를 일하는 직장인들의 존재가 그의 직함 이상인 것은 말해 무엇 하랴. 장류진의 소설은 '기쁨'에 치우쳐 현실을 미화하지도 않고, '슬픔'에 치우쳐 염세주의와 비관주의에 매몰되지도 않는다.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는 동시에 간과되기 쉽지만 분명 존재하는 희망을 조명하는 것이 이 소설이 가진 힘이다.

각자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사람들을 대하는 아름다운 시선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라는 제목과 우산을 들고 날아가는 우스꽝스러운 그림은 얼핏 로알드 달의 ‘마틸다’처럼 재미있는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책처럼 보이게 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 책을 처음 펼쳐 작가의 첫 줄을 읽어보면, 이 책은 되려 소설보다 더욱 소설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책은 출판된 지 꽤 지난 책이다. 그러나 여전히 동네 도서관 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꾸준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어 대여가 어려울 정도로 유명세를 유지하고 있다. 책을 읽기 전에는 이 책의 매력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읽어 나가는 순간, 그가 의사로서 환자들을 보고 있는 시선들을 그대로 따라가게 된다면 매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작가 올리버 색스는 그가 만난 여러 가지 신경정신계통의 환자들의 사례를 이야기해주고 있다. 아마 보통 사람들에게는 정신병이라는 말이 더욱 친숙하게 와 닿을지도 모른다. 작가는 ‘지극히 인간적이면서도 인간적이지 않은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보통의 인간적인 시선이라고 하면 사람을 그 자체로서 내면을 살펴보는 것일 테고, 동시에 편견을 가지고 상대를 더욱 깊이 살필 줄 모르는 시선이 공존하기에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다.

과거 신경정신의학계는 결손과 정상만을 구분하는데 공을 들였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추상적인 사고만을 중시하였다. 그러나 가장 먼저 나오는 사례는 이를 가볍게 반박하듯 가장 기본적인 구체성을 잃고 오직 추상성만 남은 사내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는 대상을 분류하고 범주화할 수 있지만 판단하고 느낄 수는 없었다. 따라서 장갑을 보고도 5개의 작은 주머니가 달린 물체로 인식할 뿐, 판단하지 못했다. 이따금 웹상에서 로그인을 하거나 본인인증을 하게 되면 보이는 화면이 있다. 9개의 칸으로 나뉜 사진이 주어지고 전봇대나 신호등이나 굴뚝 따위가 존재하는 칸을 고르라는 화면이다. 우리 인간을 이를 보고 판단하여 골라내지만, 컴퓨터는 불가능하다. 이를 통해 우리가 인간인지 컴퓨터로서 자동화된 존재인지 구분해내게 된다. 즉,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는 결국 아내를 판단하고 느낄 수 없는 구체성이 없는 인물이 되었고, 컴퓨터와 다름없게 되었다. 과거 정신의학계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그에게서 결손된 부분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부분이었다. 그렇지만 그 전에 가장 기본적이고 너무 당연하여 스쳐지나가기 십상인 부분을 놓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과연 그들의 겪고 있는 ‘비정상’이 마냥 불행하다고만 할 수 있을까? 답은 어느 부인의 이야기와 투렛증후군을 겪는 열정적인 드러머로 대신한다. 그녀는 혈전으로 인한 편두엽의 간질 발작으로 떠올리고 싶었지만 떠올리지 못했던 수면 아래의 추억 속 노래와 장면을 재경험할 수 있었고 그녀에게 있어서 그동안 결여됐던 마음 한구석을 다시 되찾아준 경험이 되었다. 몇 개월간 경험했던 머릿속의 그 노랫소리가 그녀에게는 일종의 행복이었던 것이다. 또한 투렛증

후군의 사나이는 투렛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과격한 에너지를 내뿜는 경향이 있었다. 이로 인해 그는 주중에는 약물을 복용하여 점잖은, 사회에 녹아들기 더 안전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러나 그는 주말만큼은 약을 복용하지 않았으며 이 때 투렛증후군 특유의 즉흥적인 에너지 발산을 통해 이뤄내는 환상적인 드럼연주는 가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적응해낸 모습 그 자체였다. 이처럼 '과잉'과 '회상'을 함부로 비정상이라 칭하며 치료만을 목적으로 삼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약을 복용하게 되면 이들의 증상은 완화되겠지만, 동시에 오랫동안(또는 일시적으로) 의지했던 행복을 앗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깊은 이해와 논의가 필요하다. 즉, 간단히 비정상 또는 정상으로 구분 짓기 어려운 부분이다.

단순함.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인간은 동물과는 다르다는 자만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을 터부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가장 단순한 부분을 그대로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우리 '일반'사람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지능을 가지고 있고 추상적이고 복잡한 사고를 어려워한다. 그렇지만 책에서 소개된 사레처럼 리베타는 그 누구보다 아름답고 시적인 표현을 만들어내는데 탁월한 재능이 있었으며, 쌍둥이 형제는 숫자에 대한 지독한 직관과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다. 단순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만큼 우리가 현실에서 보지 못하는 환상적인 부분을 알아채고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중학생 시절, 사랑받 학생 한명과 짝이 되어 몇 달 지낸 경험이 있다. 그 아이는 종종 과한 반응을 보이고 행동을 주체할 수 없어 학교밖을 빠져나가곤 했다. 대화가 어렵고 음악적으로 들리는 억양 때문에 대화도 어려웠다. 그렇지만 난 아직도 그 아이가 그렸던 수많은 종류의 전구 그림을 잊을 수 없다. 수업시간 내내 빼곡하게 온갖 종류의 전구들을 하나하나 연습장에 그려 넣던 그 모습은 그저 신기하다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었다. 의사표현에는 서투르던 그 아이가 전구에서만만큼은 그 어떤 사람보다 능숙하게 그림을 그려냈다. 아마도 그 아이는 우리는 그저 지나쳤을 전구라는 존재를 통해 우리는 보지 못하던 또다른 세계를 구축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인간 집단에서는 으레 그렇듯, 그 집단의 일반적인 특징이 정해지곤 한다. 심지어 이 특징이 전혀 과학적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혈액형에 따라 성격을 분류하듯이 어떻게 해서든 공통점과 일반화권 경향성을 찾아내어 그룹을 지으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사회학적으로도 일반적인 현상으로 일종의 소속감을 찾아 헤메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화가 과도할 경우, 사람에 대한 혐오와 편견, 차별들이 난무하는 세상이 벌어진다. 정신병증을 지닌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우리는 우리들의 일반적인 특징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그들이 가진 개인의 독창성을 무시하고 단순히 비정상이라고 일단락 짓고 있을지도 모른다. 작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 독자로 하여금 다시 되돌아보는 기회를 주고 있다.

또한, 나는 간호학과 학생으로서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지내는 폐쇄병동에 2주간 실습을 나간 경험이 있다. 과거 조현병은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렸으나 곧 조현병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불리게 되었고 현악기의 줄이 조율되지 않으면 불협화음이 생기듯, 조현병 환자들은 정신들끼리의 불협화음이 생긴 상태라는 뜻이다. 조현병 환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이 책을 읽고 난 후, 그들의 불협화음을 단순히 부정적이라 칭하는 것 또한 선부른 판단이

라는 생각이 든다. 그들의 정신은 우리와는 다르지만, 나름대로의 내면에서의 이야기, 즉 하나의 음악이자 곡을 연주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시선에서 보았을 때, 환자들은 더 이상 불협화음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주체로서 바깥세계의 사람들은 쉽게 엿볼 수 없는 오케스트라를 머릿속에 지니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실제로 내가 나간 폐쇄병동에서 나에게 울무차분말을 선물로 쥐어주며 환하게 웃고 나를 반겨주던 그들의 표정은 그야말로 순수한 정신의 아이 같은 모습이었으며 여전히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비록 나를 잘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따뜻하게 반겨주고 진심어린 조언을 해주는 분도 계셨다. 누구든 그 병동에서 일주일 간 함께 지낸다면 다만 우리와 다른 이야기를 지어내고 스스로를 방어하는 방법이 다를 뿐, 각각의 세상에서 그들 또한 '인간'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깨달을 것이다.

특히 요즘, 우리는 정신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다만 매체가 발달하면서 눈치 채지 못했던 주변의 '그 사람들'을 더 자주 듣고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사회의 시선은 싸늘하다.

우리에게 '일반화된 기준'에 의하면 그들은 비정상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들은 각자 그들 나름의 세계 안에서 질서를 찾고 적응해나가며 또 하나의 세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작가는 따뜻한 시선으로 남들과는 조금 다르지만 성장해나가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바라보며 그들의 세계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었다. 작가의 책 속에 이런 구절이 있다.

'인간은 기억만으로 이루어진 존재는 아닙니다. 인간은 가정, 의지, 감수성을 갖고 있는 윤리적인 존재입니다. 신경심리학은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이 영역에서 당신은 그이 마음에 영향을 미쳐 그를 변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처럼 신경심리학에서의 비정상을 현실에서도 조금하게 비정상이라고 판단하기에는 그들 안에는 아직 무한한 가능성과 빛나는 영혼이 있다. 현대 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는다고 한다. 워낙 흔해서 마음의 감기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기도 한다. 점점 정신분석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발달하면서 숨겨져 있던 수많은 질환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만큼 세상에 아픔을 전혀 가지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함께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생각 아래 그들에 대한 시선을 한 꺼풀 벗겨내고 다시 마주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병원에 취업하기 위한 자기소개서에서 간호학도들이 으레 쓰는 단어가 있다. 환자 중심간호, 맞춤형간호라는 단어들이다. 작가의 책을 읽고 이 단어가 간단히 사용될 단어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사례가 있을 것이고 그 누구도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나가고 있지 않을 것이다. 이들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깊은 안목과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필요하다. 나 또한 미래 의료인으로서 병력의 이환과 치료만을 중시하기보다는 각각의 서사를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진정한 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로서 노력해야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지게 되었다.

부끄럽지 않은 고백

고백한다. 나는 타인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성별, 인종, 장애의 유무와 관련 없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한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고등교육에서 받은 ‘상대적 평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이러한 얇은 지식을 바탕으로 나는 ‘깨어있는 사람’인 줄 알았으나, 《선량한 차별주의자》를 읽으며 한없이 부끄러워졌다.

‘차별’은 우리에게 낯선 단어가 아니다. 특히 인종차별, 성차별은 최근에 더욱이 많이 들어온 단어이다. 흑인을 차별한 백인 경찰은 나쁜 사람이며,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하지 않은 회사는 지탄받아야 마땅하다고 누구나 생각할 것이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동화를 읽으며 뚜렷한 권선징악의 구조를 익혔다. 그래서 모두가 선인이자 악인일 수 있는 이야기보다 영웅이 있고 절대적인 악인이 존재하는 이야기가 이해하기 편하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달랐다. 한 사람이 누군가에겐 좋은 사람임과 동시에 다른 누군가에겐 나쁜 사람으로 기억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나였고, 이 책을 통해 느꼈다.

프롤로그에서부터 이를 꼬집는다. 악의 없이 저지르는 우리의 차별적 단어, ‘선택장애’를 통해 우리는 얼마나 무해한 의도로 누군가의 장애를 비하하고 있었다. 한 가지를 선택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사람을 ‘결정장애’라는 단어로 함축하는 것이 일상의 언어에 위트를 적절히 섞었다고 생각했었다. 큰 오산이었다. 장애를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는지 전혀 헤아리지 않았다. 우리 모두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명백하게도 ‘장애’라는 단어를 부족함, 혹은 결함으로 정의하고 있었다. 이 책을 읽지 못했다면 생각해보지도 않았을 문제이다. 나뿐만 아니라 누구나 악의 없이 차별적 언행을 자행했을 것이다.

“차별을 당하는 사람은 있는데 차별을 한다는 사람은 잘 보이지 않는다.”¹⁾

내용이 많지 않게 느껴졌지만, 문장 하나하나 손을 붙잡는다. 그리고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한다.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지냈는지. 동양인으로 받았던 인종 차별, 여성을 향한 성차별에는 민감했으나 내가 속하지 않은 곳의 소수자들에 관해서는 무지했다. 인종차별은 서양에만 존재해, 유색인종만을 향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존재했다. 존중의 의미로 사용했던 ‘다문화가정’이라는 말은 동남아인만을 지칭하여 쓰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누군가는 턱 하나 때문에 편의시설을 편히 사용할 수 없었다. 우리의 무관심은 계속해서 피해자를 낳았다.

악의가 없었더라도 피해를 받은 자가 있다면 시정해야 한다. 무지를 깨달은 순간, 많지 않지만 적지 않은 것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지난 8월 한 고등학교에서 졸업사진으로 ‘댄싱 폴베어러스(Dancing Pallbearers)’의 Coffin Dance를 패러디했다. 가나의 장례풍습으로 관을 들고 춤을 추는 영상이 인기를 끌며 이들의 모습을 따라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눈살이 찌푸려졌다. 그들의 피부색을 따라 하기 위해 얼굴을 검게 칠했기 때문이다. 책을 읽

1) 김지혜, 『선량한 차별주의자』 (E-Book), 창비, 2019, 8쪽.

기 전이었다면, 웃고 넘어가겠지만 ‘블랙 페이스’ 개념을 알게 된 이상 웃을 수가 없었다. 오히려 그 학생들의 분장이 문제가 없다며 그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화가 날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9월엔 돈 내면 한글로 메시지를 읽어주는 해외 유튜브 채널이 인기였다. 영상 속 인물들은 방글라데시인들로 구성된 팀 아짐키야(Team Azimkiya)로 도시생활과는 멀어 보이는 배경에서 신나게 한국어를 읽는다. ‘독도는 한국 땅’ 같은 내용도 있었으나, 비속어가 섞인 너무나도 사적인 문장도 ‘돈만 내면’ 읽어준다. 이를 보고 웃고 즐기는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을 묻고 싶다. 한국인보다 생활 수준이 낮아 보이는 사람들이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는, 부족해 보이는 모습에서 웃음이 난 것 아니냐고. SNS상에서는 분명 문제를 지적한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이 의견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가 차별에 관한 교육이 얼마나 절실한지 알 수 있었다.

자신의 차별적 언행을 합리화하는 데에는 그럴싸한 이유가 많다. 그런 의도가 없었다, 몰랐다, 무엇이 문제냐 등. 그러나 실수에도 책임이 따른다. 우리는 실수를 저질렀을 때, 주로 의도를 설명하기 바쁘다. 자신의 의도를 전하는 일이 상대를 이해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방은 그저 사과받기를 원할 것이다. 사과야말로 진정한 반성의 표현이자 위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차별 교육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상대에게 사과하는 법도 익혀야 한다. 사람이라면 자신의 실수를 알았을 때 부끄러움이 몰려올 것이다. 이 부끄러움을 피하고자 변명하거나 화를 내기도 한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일시적인 부끄러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같은 부끄러움을 반복되지 않게 도울 것이다.

*“모두에게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다수자와 소수자의 자유는 같지 않다.”²⁾*

다수자는 ‘우리’라는 개념에 묶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소수자는 ‘우리’에 속하지 않아 곁도는 사람일 것이다. 《이수정 이다혜의 범죄 영화 프로파일》에 따르면, 한국에 타자에 관한 편견은 많이 있었다고 한다. ‘우리’라고 규정된 집단 밖에서 온 사람에 대한 적개심으로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집안이 망했다’³⁾라는 말도 생겨났다고 한다. 끈끈한 ‘우리’만의 공동체 의식이 또 다른 피해자를 낳고 있었다.

이러한 생각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배척했던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외면이 다른 사람이 ‘우리’ 동네를 돌아다니면 괜히 한 번 더 쳐다보았던 과거가 떠올랐다. 나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혹은 특정 인종, 특정 나라 사람)이 싫다’는 말을-물론 차별적 발언이지만-쉽게 했었다. 그러나 외국인이 타지인 우리나라에서 한국인이 싫다고 발언하는 것에는 자유가 없을 것이다. 반대의 상황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희한하게도 둘 중 한 문장은 굉장히 자연스러웠다. 평상시에도 들어본 말이거나 인터넷에서 본 글이었다.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선량한 차별주의자》의 프롤로그에서 말했듯이, ‘나는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착각이고 신화일 뿐이었다.’⁴⁾ 싫어할 수 있는 권력은 다수자에게 있었으며, 나는 그 권력을 때로는 갖고 있었고, 갖고 있지 않을 때가 있었다.

“구조적 차별은 우리의 감각으로는 자연스러운 일상일 뿐이다.”⁵⁾

2) 위의 책, 96쪽.

3) 이수정 외, 『이수정 이다혜의 범죄영화 프로파일』 (E-Book), 민음사, 2020, 98쪽.

4) 김지혜, 앞의 책, 9쪽.

고칠 점이 많은 사회지만 분명 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영화 주인공에서도 찾을 수 있다.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쿼터영화가 극장에서 상영되는 점을 보면 어쨌든 다양성을 인정하고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영화를 만드는 디즈니 영화에서 이 변화가 두드러진다. 예전부터 공주는 예쁘고 날씬하며 순종적이고 왕자만을 기다리는 여성스러운 인물로 그려졌다. 그러나 여성학이 등장하고 알려지면서부터 자신의 삶을 구원해줄 왕자를 기다린다는 플롯에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다.

이 변화는 실사화 리메이크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영화 《알라딘》속 자스민 공주가 원작보다 더 많은 활약을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아무지고 당찬 모습뿐만 아니라 능동적인 인물로 그려졌으며, 리더십이 돋보이며 백성을 위하는 모습도 더해져 왕국의 리더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스민이 왕인 술탄의 자리를 물려받음으로써 첫 여왕의 탄생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를 넘어 남성의 도움 없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겨울왕국》. 나아가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섞이지 않은 유색인종 여성의 영웅적 이야기, 《모아나》⁶⁾를 통해 변화를 뚜렷이 느낄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많은 사람의 사고를 파고들 것이다. 영웅은 백인 남성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닐뿐더러 피부색 혹은 성별과 관계없이 누구나 옳은 일, 좋은 일을 할 수 있음이 관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어떤 차별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보이게 만들기 위해
차별금지사유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⁷⁾*

교내 단기 해외연수 프로그램으로 처음 방문해본 미국은 정말 다른 세상이었다. 피부색, 머리색, 눈동자 색이 다양한 사람들을 보고 있으니 나도 검은 머리의 검은 눈동자를 가진 다양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동시에 익히 들어온 인종차별에 관해 걱정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미국에는 차별이 법으로 금지되어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때문에 학교에서도 차별 금지에 관한 교육을 했으며, 많은 사람이 차별에 경각심을 갖고 있었다. 동시에 우리나라에도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땐, 법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이라 믿었다. 어렵듯이 알고 있던 차별의 해법이 법안 제정이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니었다. 지난 6월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 등 10명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 법안은 2007년부터 발의하였으나 번번이 철회되었다. 포괄적으로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원칙만 있으면 될 줄 알았으나, 차별받는 대상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이유를 이 책을 통해서야 알게 되었다. 최근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는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學歷), 고용 형태,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사회적 신분 등으로 구체화했다. 사실 지금까지 언급하지 못한 사례도 많아 보인다.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는 다수자의 거센 반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다수자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커서 최대한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직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포기하기 쉬웠을 수도 있겠다. 21대 국회에 들어서 적지 않은 기사를 쏟아내며 관심을 받은 이 법안

5) 위의 책, 47쪽.

6) 특히 《모아나》에서는 자신은 족장의 딸이며 공주가 아님을 명확히 밝힐뿐더러, 할머니는 테피티의 심장을 마우이에게 돌려놓으라고 시키지만 모아나가 직접 한다. 뿐만 아니라 모아나의 조력자로 나오는 인물인 마우이도 반신반인으로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인물로 다수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다.

7) 김지혜, 앞의 책, 112쪽.

은 과연 완성될 수 있을까? 이 책을 읽은 사람으로서 법안이 끝까지 통과되길 지켜볼 것이다.

법안이 발효된다고 해도, 긍정적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에게만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장 필요한 자세는 악의 없는 말실수를 지적받았을 때 부끄러워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수했을 때 느끼는 부끄러움은 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뿐더러 변명을 낳고, 자기합리화까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옳지 않은 생각을 더욱 견고히 하여 옳지 않은 생각에 갇힐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때, ‘자비로운 해석의 원리(Principle of charity)’를 적용하면 좋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논리적 사고 수업을 들으며 알게 된 이 개념은 상대방의 주장이 맞다 생각하고 이야기를 듣는 자세였다. 누군가가 나의 말 혹은 행동에 상처를 받아 그 말이 옳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며 쉽게 사과하고 변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반면, 이 생각을 소수자에게 강요한다면 또다시 그들을 벼랑 끝으로 몰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역시 차별의 해소는 단어 하나, 한 생각의 변화로 해낼 수 있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개인의 편견만 없앤다고 차별이 해소되지 않는다’⁸⁾는 말을 이해하는 순간이었다.

나는 차별하지 않는 선량한 사람이라는 믿음은 깨졌다. 가볍게 내 입을 날아간 단어가 누군가를 아프게 했고, 사회가 병드는 것에 일조했다. 때로 매체에서 이 차별을 더욱더 질게 만들기도 하였지만, 일부는 편견이라도 없애고자 노력하고 있다.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고자 하는 길을 멀고 험난할 것이다. 편하게 지내던 사람은 불편을 호소할 것이다.

책을 다 읽고 보니 강조표시가 셀 수 없이 많았다. 내가 저질렀던 실수를 책에서 확인하며 너무나도 부끄러워하며 표시했고, 깊이 반성하며 마음에 새겼다. 잘못된 점을 발견했을 때, 큰 소리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자 더 꼼꼼히 읽었다. 올바른 사회가 되기까지는 쉽지 않은 여정일 것이다. 평등을 향해 가며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 것이다. 일상적인 단어를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늘 것이다. 그럼에도 다수가 생각을 바꾸면 사회는 변할 수 있다고, 내가 속한 집단은 여전히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믿고 싶다.

8) 위의 책, 101쪽.

Ne pas se refroidir, Ne pas se lasser.

종로의 대부호였던 간송 전형필 선생은 일제 강점기 시절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바쳐 우리나라 문화재 보존에 힘쓰셨다. 이러한 전형필 선생님께서는 6.25 전쟁이 발발하자 자신이 모든 걸 바쳐 모았던 문화재들 중 딱 한 가지만을 고심해서 선택하여 직접 가지고 피난길에 오르셨다. 오동나무 관에 넣어 소중히 품으셨던, 잠에 드는 때에도 베개로 머리 밑에 두어 보관하셨던 그 문화재는 바로 ‘훈민정음해례본’이다. 이 분 덕분에 우리는 한글의 원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고, 여전히 우리는 한글을 누리며 살고 있다. 내가 과외 선생으로 한 남학생을 가르치고 있는데 얼마 전 일이었다. 영어 과목을 가르치던 도중 영어 공부에 싫증을 느낀 학생이 내 앞에서 중얼거렸다. ‘그냥 영어를 언어로 채택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영어로 대화하고 이렇게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 뭣하러 두 개 언어를 내가 반강제적으로 해야 해요. 한글은 왜 만든 거야.’ 아직 철이 들지 않은 어느 한 공부하기 싫은 학생의 투정임을 알지만, 나도 모르게 화가 나 학생에게 큰소리를 냈다. 감히 내가 한글이 왜 만들어졌는지 아느냐고, 이 언어를 지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과 역사가 있는지 알고나 말하는 것이냐고, 그리고 자국의 언어를 잃은 슬픔을 내가 감히 헤아릴 수 있겠냐고.

우리의 선조들은 ‘한글’을 지키기 위해 창씨개명을 당하는 와중에도 이 언어 속에 담긴 백성을 사랑했던 한 성군의 고민과 집현전 학자들의 연구를 기억하셨을 것이다. 선조들은 한글을 지켜냈고 우린 이 한글로 수많은 응용을 하며 한 세대 한 세대만의 특징을 언어에 녹여 해학적으로 살고 있다. 그리하여 그 시대를 풍미했던 유행어엔 그 단어를 창조해낸 세대의 향기가 깊게 배어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지켜낸 한글을 쓰면서도 이 언어에 내 감정과 생각을 오롯이 담지 못하는 심정을 어떨까.

우리는 어릴 적 문학 시간에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시를 익히 배웠을 것이다. 눈 내리는 배경에 나타샤를 생각하며 쓴 이 시는 현실을 초월한 이상, 사랑에 대한 의지, 그리고 소망을 노래한 작품이라고 우린 배웠다. 하지만 이 ‘일곱 해의 마지막’에서 등장하는 백석 시인은 자신이 단어 하나하나마다 소중한 의미를 담아 완성시켰을 이 시에 대해 낯설을 느끼는, 색을 잃은 흑백의 ‘과거’ 시인으로 등장한다.

사회주의의 바람이 매섭게 불던 북한의 한복판에 살아가는 기행은 더 이상 시인이 아니다. 그저 러시아어를 번역하는 번역가이다. 그의 동료들은 사회주의의 물결에 탑승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쓴다고 생각했지만, 자신들 역시 언어에 의해 쓰여지는 운명에 합류된 것이다. 자의이든 타의이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언어는 지워지고 나라가 정한 언어만이 기계적으로 인쇄되고 있었다. 기행 또한 조선작가동맹에서 주최하는 회의에서 자신의 작품을 검열당하며 점점 자신의 색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 때문이었을까 나는 이 책을 읽는 내내 이 소설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흑백으로 그려졌다. 사회주의 물결에 북한 곳곳에 세워지는 콘크리트 건물들과 수령의 지휘 아래 획일화되는 언어들. 이 때문에 나는 이 책의 색깔은 흑백이라 생각

했다. 이렇게 기행은 점점 타의로 자신의 시를 부정당하자 자의로 자신이 시인임을 부정하고 번역가라고 소개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기행에게 색을 다시 입혀줄 팔레트는 존재했다. 나는 이 팔레트 들이 흑백의 기행을 컬러풀한 백색으로 색칠해 줬다고 생각한다. 그 첫 번째 팔레트는 러시아의 시인 ‘벨라’였다. 벨라가 북한에 방문할 적 기행은 그녀의 통역가로 동행했었다. 그녀는 기행에게 시인이란 ‘폐허를 응시하는 사람’, ‘매일매일 죽어가는 단어들을 생각해야 하는 사람’이라 말해주었다.

두 번째 팔레트, 그들의 동료들이 있었다. 그들은 자유에 대해 수없이 말하였다. 북한의 사회는 인간이 외로움과 고독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늘 기쁘고 즐겁고 벽찬 감정만을 억지로 고수하는 사회이며, 저 달과 해처럼 자연을 닮아 그저 유유자적 살면 된다고 말하였다. “인간의 실존이란 물과 같은 것이고, 그것은 흐름이라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때로는 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며 때로는 호수와 폭포수가 되는 것인데, 그 모두를 하나로 뭉뚱그려 늘 기뻐하라, 벽찬 인간이 되어라, 투쟁하라, 하면 그게 가능할까?” 이 말은 특히 나에게 와닿았던 말이다. 인간은 자기가 잠시 몸담아 간 사회란 바다에서 흘러가다 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호수가 되고 폭포수가 되다 증발하여 비가 되고 땅으로 떨어져 웅덩이에 갇히기도 하는 존재이다. 그러한 바닷물을 어찌 함부로 가둘 수 있겠는가 말이다.

세 번째 팔레트, 인민학교 교원 ‘서희’이다. 기행이 당에서 준 마지막 기회로 관평 협동조합에 배치되어 삼수 군으로 가던 길에 폭설을 만나 잠시 해산 역에 발이 묶였을 때, 해산역의 정류장에서 만난 한 여성이다. 이 여성은 기행이 과거에 지었던 시 한 편을 기행 앞에서 읊어 준다. 바로 그 시가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였다. 하지만 기행은 자신의 시를 낭독하는 서희에게 자신은 시를 번역하는 사람이며 그런 시는 쓸 능력도 없는 사람이라 소개하였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그는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밤은 푹푹 눈이 나린다’라고 시를 읊조리기 시작했던 순간을 기억해 낸다.

기행은 이 삼수 군에서 새끼 양을 받으며 살아간다. 그러한 평범한 일을 하며 살다 ‘천불’을 목격한다. 하늘이 내린 불이라는 천불은 저절로 생겨나 화전민들에게 생을 향한 어떤 뜨거움을, 어떤 느껴움을 선사한다고 한다. 기행은 어디에서도 오지 않고, 어디로도 가지 않는다는 천불에 휩싸여 타오르는 숲을 바라보며 이 소설은 끝이 난다. 아는 이 천불의 존재가 기행에게 색을 입혀주는 마지막 팔레트라고 생각한다. 생을 향한 뜨거움과 느껴움을 선사하는 천불은 다시금 기행에게 활력을 주었을 것이다. 타오르는 불은 자신이 자신만의 언어로 불꽃처럼 시를 써 내려갔던 시인 백석의 시절을 회상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리하여 기행은 다시 온전한 ‘백석’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이 책의 마지막에서야 나는 컬러감을 얻었다. 내가 과거 교과서에서 보았던 흑백의 백석 시인의 사진이 어제 찍어 인화 받은 증명사진 마냥 색을 띠고 있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리얼리즘’을 언급한다. 리얼리즘이란 언어와 문자는 언어와 문자 자신의 것이며 그것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즉 리얼리즘이란, 그런 언어와 문자가 스스로 실현되는 현실을 말한다. 우리는 그 자체인 언어와 문자를 빌려 많은 것을 담아낸다. 앞서 내가 말했듯 우리 선조들은 우리의 한글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였으며 후손들은 이를 활용하며 유례 없는 언어의 활용을 즐기고 있다. 이렇게 활용되는 언어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담긴다. 내가 좋아하는 한 가수가 있다. 이 가수가 언젠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가수의 수많은 팬들은 팬 레터를 통해 가수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을 전한다. 하지만 가수는 수많은 팬들 한 명 한 명에게 답장을 써주지 못한다. 그래서 자신은 자기 노래의 가사에 편지에 대한 답장을 담아 팬에게 쓰는 팬 레터를 쓴다고 하였다. 언어를 빌려 마음을 전하는 것이다. 의미가 담긴

언어는 그 의미를 넘어설 때가 많다. 사람 개개인이 각자 생각을 담으려 빌려온 언어는 엄청난 힘을 가진다. 내가 좋아하는 가사 중에 ‘언어란 틀에 채 못 담을 찬란’이란 가사가 있는데 그 찬란함을 언어란 틀에 못 담을 만큼 흘러넘친다는걸 언어로 표현해냈다. 보자마자 감탄을 자아냈다. 이러한 생각을 어떻게 했고 어떻게 언어로 표현해낸 걸까. 빌려온 언어는 심상을 선사하기도 한다. 내가 바다 앞에 앉아 들었던 음악을 다시금 들으면 그 노래에서 나는 바다의 푸른색이 보이고 그때 말았던 바다의 짙내가 코 끝에 스치며 그곳에 앉아 내가 생각한 것들이 떠오르곤 한다. 내가 읽었던 책에서 이러한 구절을 보기도 했다. ‘책방은 수천수만 명의 작가가 산 사람, 죽은 사람 구분 없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인구 밀도 높은 곳이다. 그러나 책들은 조용하다. 펼치기 전까지 죽어 있다가 펼치는 순간부터 이야기를 쏟아낸다. 조곤조곤, 딱 내가 원하는 만큼만.’ 언어를 빌려와 이를 담은 책은 그 작가의 이야기를 담기도 한다. 이처럼 언어는 생각, 의미, 심상, 이야기 등등 수많은 요소들을 담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수많은 요소는 사람마다 또 다른 모습을 가진다. 그렇다면 이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수많은 요소를 담아 언어를 빌려 쏟아낸다면 얼마나 다채로울까. 언어의 자유란 이렇게 풍요로움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언어와 문자는 자신의 고유한 의미를 잃지 않은 채 많은 사람들 사이를 스치며 새로운 것들을 창조한다.

나는 이 소설을 통해 다시금 언어의 위대함을 깨달았다. 내 생각, 내 추억, 내 인생 모든 것이 ‘언어’라는 것으로 기록되고 공유될 수 있음에, 그리고 언어를 통해 발전하며 언어를 통해 문화를 향유함에 감사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한글’이라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문자를 사용함에 정말 절실히 감사함을 느꼈다.

하지만 같은 한글을 사용할지라도 이 소설의 배경인 북한은 다채롭지 못한 사회이다. 정부는 각자 다채로운 사람들이 오로지 한 주제에만 글을 쓰게 강제하고 감시하였다. 획일적인 의미만이 북한 사회를 지배한다. 누구보다 자유롭게 시를 통하여 여인에게 사랑을 표현하기도 했던 백석이 리얼리즘이 아닌 매너리즘으로 색을 잃어가 기행으로 살던 이 소설을 덮으며, 이 시인이 느꼈을 답답함에 많은 공감을 하였다. 그리고 언어의 자유에 대해 감사함을 느꼈다. 이 소설을 쓴 작가 김연수 님은 작가의 말에 이렇게 쓰셨다. ‘현실에서 실현되지 못한 일들은 소설이 된다고 믿었다. 소망했으나 이뤄지지 않은 일들, 마지막 순간에 차마 선택하지 못한 일들, 밤이면 두고두고 생각나는 일들은 모두 이야기가 되고 소설이 된다.’ 실제로 백석 시인은 북한에서 조선 노동당을 찬양하는 시를 쓰셨지만 그동안의 백석 시인이 써왔던 시와 완전히 다른 느낌의 시였다고 한다. 눈 감는 날까지 북한 문단에 공식적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백석 시인이 소망했으나 이뤄지지 않은 일들이 김연수 작가님의 소설 속에서 이뤄졌길 바란다. 마지막 장면의 천불을 보며 다시금 백석 시인만의 불을 지폈으면 한다. 지금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은 백석 시인에게 한 마디 해드리고 싶다. 그곳에선 아름다운 한글로 언어의 자유를 맘껏 누리 주세요.

‘Ne pas se refroidir, Ne pas se lasser(냉담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그리고 모두들, 이 자유를 누리주시길 바란다. 우리의 한글이 살아 숨 쉬는 한.

대한민국 뉴스, 안녕하십니까?

전공이 언론인 나는 '뉴스'라는 단어가 친숙하지만, 외국인이 쓴 책이라 공감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 나라마다 뉴스를 다루는 방식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이다. 예상과는 달리 다른 나라의 사례 속에서 한국 뉴스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뉴스의 역할을 생각하며, 대한민국 뉴스는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1. 코로나19 뉴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 9개월째.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코로나 뉴스를 놓치지 않고 있다. 확진자가 몇 명 늘었는지, 우리 지역 확진자 동선은 어떤지 등 늘 정확한 수치와 사실을 전달하는 뉴스를 손에 달고 살고 있다. 실시간 언론사 전체 랭킹에 항상 코로나 뉴스가 올라와 있는 걸 보면 나 말고도 이를 보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왜 코로나 뉴스를 보는 걸까?

알랭드 보통은 대중이 계속 뉴스를 확인하는 이유가 공포와 큰 관련이 있다고 한다. 뉴스에서 눈을 떴고 나서 아주 짧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습관처럼 불안이 축적된다는 것이다. 내 얘기다. 짧은 시간 사이에도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재난문자도 끊임없이 오니 자꾸 뉴스를 확인하고 있던 것이다. 내 주변은 안전할까, 나와 동선이 겹치지 않을까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코로나 뉴스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을까?

국내 코로나 현황을 검색하면 확진자 수에 관한 뉴스가 대다수다. 그리고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염됐는지 보도되어 있다. 그뿐이다. 우리나라 뉴스는 수치와 사실만 전달하고 있다. 작가는 뉴스의 임무가, 사회가 저지른 최악의 실패를 우리에게 날마다 상기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자부심과 회복력과 희망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것'이라고 얘기한다. 우리나라 뉴스는 스타벅스, 리치웨이 등 대거 확진 사례가 나오는 곳의 확진자 수를 보도하며 날마다 코로나를 상기시키고만 있다. 시민들이 최악 속에서 자부심과 회복력과 희망을 갖출 수 있도록, 대한민국 코로나 뉴스는 변화해야 한다.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작가는 뉴스의 역할이, 우리가 얼마나 상시적으로 갑작스러운 죽음과 부상에 노출되는지 분명히 보여주어야 하고, '고통을 겪지 않는 모든 시간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와 관용을 베풀며 살아야 하는지를 선명히 드러내주는 것'이라고 얘기한다. 우리나라 뉴스가 뉴스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확진자 수만 보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코로나에 맞서 싸우는 의료진에게 감사를 느끼고 자신이 사회의 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관용을 베풀며 살아야 한다고 선명히 드러내주어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함께 보도하는 것이 진정 뉴스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2. 범죄뉴스, 안녕하십니까?

올해 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다. 바로 ‘n 번방’이다. 작가는 뉴스가 비극적인 사건을 보도할 때 더 큰 울림을 줄 수 있는 유용한 결론을 끌어내는 데는 주저한다고 말한다. 그 결론이란 우리가 끔찍한 행동으로부터 머리카락 한 올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이라며, 우리는 다른 구성원들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생각보다 더 깊이 연루되어 있다고 한다. 뉴스에서는 n 번방에 가입한 사람들을 우리와 별개인 사람들인 것 마냥,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인 것 마냥 남의 일처럼 보도했다. 큰 울림이 없었다는 것이다. 결론도 주범들의 신상 공개로 끝이 났다. 뉴스가 사실만 정확하게 전달하면, 그것으로 끝이 될 수 있을까?

이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해시태그 물결이 이어졌었다. #디지털 성범죄 out #n 번방 #신상 공개하라. 이 사건에 분노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디지털 성범죄는 사라져야 한다고 외쳤다. 사실, 이건 뉴스가 해야 한다. 사실만 전달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이러한 사건에 마주하지 않도록 뉴스가 적극적으로 노력했어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뉴스는 그러지 않았다. n 번방 보도만 이러했을까?

아동학대 뉴스도 마찬가지다. 캐리어에 9살 아이를 넣어 죽게 한 계모가 보도됐는데 바로 이어서, 또 다른 9살 아이가 멍투성으로 도망치다가 주민에 의해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나왔다. 만약 뉴스가 아동학대를, 나 자신도 주의해야 하고 가까이 있는 일이라는 경각심을 줬다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게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면 아동학대는 줄어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뉴스는 그러지 않았기에 수십 년간 아동학대가 보도되고 있다.

#3. 사실 보도, 안녕하십니까?

작가는 많은 언론기관 내부에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실’ 보도가 가장 품격 있는 저널리즘이라는 편견이 광범하게 퍼져 있다며 CNN, BBC 그리고 NRC의 슬로건을 예시로 들었다. 우리나라 언론기관들도 사실 보도를 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 뉴스가 고집하는 ‘사실’, 과연 중요할까?

정치뉴스의 경우 누가 봐도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기사들이다. 어떤 정당의 누가 어찌했고, 누구와 누가 사이가 안 좋고 등 수많은 정치뉴스를 보도하지만 그 사실로 내가 뭐 어찌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그저 지루함이 느껴질 뿐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뉴스는 사실을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많이 전달하는 데에만 중요시하고 있다. 오늘날 신뢰할 만한 사실 보도를 찾는 게 어렵지도 않은데 말이다. 작가의 말대로 문제는, 우리가 많은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접한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 문제로 야기된 것은 무엇일까?

먼저, 우리나라의 사실 보도는 타인에 대한 우리의 시각에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사태 중 이태원 클럽으로 인한 대규모 감염이 발생했을 때, ‘게이클럽’에서 발생되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게이들이 문제다’, ‘성소수자 혐오한다’ 등 갈등과 분란이 일어났다. 이 사실을 성소수자에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태원이 대규모 감염이 일어났는지 그 원인에 초점을 뒀어야 하는데 말이다. 이렇게 비난의 화살이 잘못 간 이유는 뉴스가 시민들에게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은 채 그저 사실만 전했기에 일어난 일이다.

작가는 의문을 던졌다. 사실들이 진정 의미하는 바가 뭐란 말인가? 나는 이렇게 답하고 싶다.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빈 껍데기일 뿐이라고. 대한민국 뉴스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전달하는 고리타분함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중학생 때부터 뉴스를 접해 온 나는, 팩트만 전하는 대한민국 뉴스에 익숙해 있었다. 뉴스는 그 어떠한 의견 없이 공정하게 보도되어야 한다고도 배웠기 때문에 우리나라 뉴스는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 말이다. 책을 통해 사실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가 더 핵심임을 크게 깨달았다. 쏟아져 나오는 사실들 때문에 불과 몇 시간 전에 내가 관심을 기울이고 생각했던 사건이 뭐였는지도 깜박하는데, 내게 가르치는 게 없는 빈 껍데기일 뿐인 뉴스를 굳이 시간을 투자하여 볼 필요가 있을까 싶다.

작가는 말한다. 뉴스가 더 이상 우리에게 가르쳐줄 독창적이거나 중요한 무언가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챌 때, 삶은 풍요로워진다고. 이 말은 즉, 뉴스가 아무 탈 없는 안녕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나는 언론사들에게 묻고 싶다.

대한민국 뉴스, 안녕하십니까?

나는 평등 사회의 시민일까?

‘선량한 차별주의자’를 처음 읽고 들었던 감정은 ‘불편하다’ 였다. 내가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는 어김없이 글쓰기가 나를 공격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 번 책을 덮고 혼자 생각을 정리한 뒤에야 다시 책을 펼칠 수 있었다.

내가 왜, 그런 감정을 느꼈을까? 나는 부정할 수 없는 ‘선량한 차별주의자’ 였기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를 ‘긍정적인 페미니즘을 지향하는 페미니스트이며, 어떤 기준으로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선량한 시민’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지만 결국 나는 내 스스로가 행하는 차별적인 생각과 행동을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었다.

제1장에서는 ‘토큰니즘(tokenism)’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역사적으로 배제된 집단 구성원 가운데 소수만을 받아들이는 명목상의 차별시정정책’을 일컫는 용어이다. 책에서도 나오지만 한국사회에서는 고위직에 진출한 여성이 많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성차별이 심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고 이야기한다. 허나 과연 그럴까. 이 부분을 읽으며 내 뇌리에 스쳐간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

2020년 4월 15일 총선은 코로나 시국에 펼쳐졌지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선거였다. 이 과정에서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일이 있었는데, 국가혁명당(당대표: 허경영)이 여성추천보조금으로 8억이 넘는 돈을 가져간 일이었다. 여성추천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전국지역구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한 정당에 우선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국가혁명당은 성범죄 전과를 가진 후보를 몇 명이나 공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후보를 30%이상 추천했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챙겨가며 구설수에 올랐었다. 이와 관련한 인터뷰에서 선관위 관계자는 이 30%의 비율을 채운 정당이 한 번도 없었기에 이 제도를 이렇게 이용하는 정당이 있을 거라 예상하지 못했다고 곤혹스러움을 표하기도 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한다. 한 정당의 전체 지역구 후보 중 단 30%만 여성으로 구성되어도 꽤나 큰 금액을 보조금 명목으로 받을 수 있다. 정치자금법 제26조는 2006년부터 시행되었지만 2020년 총선에서야 단 하나의 정당이, 여성인권을 진정으로 위하는지 알 수 없지만, 30%의 비율을 채워서 보조금을 받아갔다. 그럼 실제 당선된 국회의원의 성비는 어떨까? 21대 국회에는 57명의 여성 국회의원이 있고 그 비율은 19% 정도이다. 채 20%도 되지 않지만, 놀랍게도 이건 역대 최다 인원이다.

우리는 한국사회에서 고위직에 진출한 여성이 많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한국사회의 성차별은 심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걸까? 여성 대통령이 나왔었다는 이유로 여성의 인권신장 수준이 상당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내가 여성으로 살아가며 느끼는 차별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수준일까?

2부의 시작인 제4장에서는 코미디 프로그램인 ‘웃찾사’의 사례가 등장한다. 개그맨이 흑인 분장을 하고 나와서 머리에는 파를 붙이고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며 개그 소재로 사용했는

데, 이것이 나중에 논란이 된 일이었다. 당사자와 방송사는 사과하고 게재했던 영상도 삭제했지만, 오히려 다른 개그맨이 ‘단순히 분장한 모습을 인종 비하라고 하는 것은 확대 해석이다.’라는 글을 SNS에 게시하며 더 큰 논란이 된다.

이 일은 2017년 4월에 있었던 일이지만, 2020년에도 비슷한 논란은 계속 되고 있다. 한 해에 있었던 이슈를 바탕으로 유쾌한 졸업사진을 찍으며 화제가 되는 한 고등학교의 2020년도 졸업사진에는 ‘관작소년단’이 등장했다. ‘관작소년단’은 가나의 전통 장례식에서 호상일 경우에 흥겹게 춤을 추는 일종의 댄스팀을 부르는 말이다. 올 한해 인터넷 상에서 굉장한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유명해졌는데, 문제는 고등학생들이 졸업사진을 찍을 때 이를 패러디하며 흑인 분장을 하며 시작된다.

책에서도 상당히 상세히 기술하지만, 흑인처럼 피부를 까맣게 분장하고 곱슬머리의 가발을 쓰는 행위는 ‘블랙페이스’라고 하는, 현대사회에서는 금기시되는 인종차별적 행위이다. 단순히 흑인 분장을 한 것이 왜 인종차별이나 물으면, 그 분장을 웃기기 위해 사용했기 때문이다. 흑인 분장이 왜 웃길까? 마음 깊은 곳에서 흑인을 비하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이 학생들의 졸업사진이 공개되고 가나 출신의 방송인은 SNS에서 블랙페이스는 명백한 인종차별이라고 이야기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설전을 이어갔다. 단순히 유쾌하기 위한 분장이었고 비하의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실제 ‘관작소년단’도 이를 보고 긍정의 표시를 보냈는데 뭐가 문제냐는 사람들과, 이것은 오래된 인종차별이므로 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사람들로 의견이 갈렸다.

한국 사회는 아직 흑인 인종차별에 대한 자각이 부족하다. 한국사회에서 흑인을 많이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며, 그들이 겪는 차별이 많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패러디가 만약 백인의 일이었다면 어땠을까? ‘관작소년단’이 흑인이 아닌 백인이었다면, 이 학생들은 하얀 분칠을 하고 나왔을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 책에서 ‘비하성 유머’는 사람들의 잠재된 편견(무슬림, 게이, 여성, 장애인 등)을 표출시켜서 차별을 촉진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일은 유머였을까, 비하였을까?

나는 스스로를 아주 선량하고 평등을 외치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었다고 위에서 말했다. 5장에서는 이런 내게 일침을 놓는 부분이 등장했다. 사람들은 스스로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믿을 때 더 편향되게 행동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자기 확신이 강해서 생기는 현상이었다.

이와 관련해 ‘능력주의’를 믿는 사람들의 예시가 나왔다. 능력주의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나 권력이 주어지는 현상을 가리키는데, 보통 사람들은 능력주의가 매우 공정하다고 느낀다. 개인의 능력으로 차지하는 것들에 대해서 공정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출입증의 색깔로 구분하거나 호칭에 차이를 두고도 구분한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걸까? 이렇게 구분하면 일의 능률이 오른다거나, 더 경제적이거나 하는 이유가 있는 걸까?

사실 이 부분을 처음 읽을 때의 나는 굉장히 불편했다. 나 또한 능력주의 신봉자였고 비정규직 차별이 정당하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또 하나의 능력주의 사례로는 고등학교에서 운영되는 특별반이 있다. 내가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닐 때에도 학년별로 상위 10%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별반이 있었다. 자습시간에 따로 모여 자습을 하는 반이었는데, 제공되는 시설이 보통 교실과는 현저히 달랐다. 개인 자리가 보장되어있었고, 꽤 넓은 독서실 책상과 사물함, 스탠드 조명이 있었으며, 야자 감독 선생님이 꼼꼼하게 관리하며 학생들의 학습 능률을 높여주었다. 나 또한 그곳에 있으면 더 공부가 잘 되는 기분이라 야자시간을 좋아하곤 했다.

책에서 등장하는 사례는 아예 수업의 질도 다르게 만드는 특별반의 개념이라 아마 내가 경험한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을 읽고, 내가 경험한 특별반 제도가 공정한 것이었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했다. 지금까지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능력주의로 인한 구분과 그에 대한 차이. 그 모든 것이 정말 정당한 것이었던가.

제 7장에서는 싫은 것을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자리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 대표적 사례가 지금은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TV 토론에서 했던 말이다.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일이었다. 이것을 두고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던 게 기억난다. 사람들은 그도 한 사람이니 기호 표현정도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책에서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사용하는 싫다는 표현은 다르다.’ 고 이야기하고 있다. 단순한 개인 취향이 아닌 문제라고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이 싫다고 표현함으로써 혐오를 인정할 수 있게 되고 그건 사회의 부정의를 생산한다.

다시 돌아가서, 제1장에서는 특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다. 흔히 특권이라 하면 많이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특별한 권리 정도로 생각된다. 하지만 특별히 더 많이 가지지 않았으며 여성인 지금의 나도 특권을 누리는 것일 수 있다. 나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내가 받은 부당한 평가가 나의 피부, 머리, 눈동자 색으로 인한 것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다.(인종) 또한 처음 보는 사람들이 내게 낯선 시선을 보내도 그것이 내 신체적인 특성으로 인한 일이라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비장애인) 내가 대중목욕탕과 같은 시설을 이용할 때 에이즈 보건자임을 의심받고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빼앗기지 않으며 (이성애자) 대한민국 안의 어떠한 곳에서도 안내표지 등을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겪은 적이 없다. (언어)

이렇게 한국사회에서 내가 가진 특권을 나열하고 보니 생각보다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느껴졌다. 이는 7장에서 말하는 ‘거리의 권력’과도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었다. 거리는 공공의 공간이지만 그 공간을 지배하는 권력이 존재한다는 말이다. 익명의 다수가 시선으로, 말, 행위 혹은 직접적 방해수단으로 그 거리에 어울리지 않는 불온 존재를 단속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퀴어문화축제’ 이다.

‘퀴어문화축제’는 한번 개최될 때마다 축제를 막으려는 사람들과 맞서야 한다. 축제 허가를 내주지 않는 지자체, 축제의 앞에서 반대 시위를 하는 각종 교회나 단체들, 왜 꼭 거리여야 하냐고 묻는 시민들까지. 책에서는 다른 축제가 있을 때에도 이다지도 많은 반대를 수반하는지, 그 반대가 이렇게 폭력적인지 묻고 있다. 당연히 그 답은 ‘NO’다.

어떤 사람들은 성소수자들을 향해 왜 꼭 거리에 나와야 하느냐,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빠진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나와 ‘차이’가 있는 것은 알겠지만 굳이 보고 싶지 않다고도 이야기한다. 이러한 논리 때문인지 가끔 공공장소에서 손을 잡고 걷는 동성애자 커플은 단지 손을 잡고 걸었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욕설을 듣기도 한다.

먼저, ‘차이’의 의미에 대해 말하고 싶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차이’는 ‘서로 같지 아니하고 다름. 또는 그런 정도나 상태’를 의미한다. 하지만 위의 사람들이 쓰는 ‘차이’는 ‘서로 다름’ 이 아닌 ‘나와 다름’을 의미한다. 이것은 주류집단과 다르다, 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말 자체에서 권력관계가 생성된다. ‘다르다.’는 말이 폭력적인 의미를 담을 수도 있는 것이다.

또, 그런 사람들의 이론에 따르면 성소수자는 대체 어디에 있어야 할까? 주류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거리’ 즉, 공공의 공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공공

의 공간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그 기준을 정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이 책을 읽고 정말 많은 생각을 했다. 내가 경험해가는 세계가 넓어질수록 더 많은 생각이 들 것 같고, 내가 보는 시각이 넓어질수록 더 많은 차별이 눈에 띌 것 같다.

예전에는 미처 하지 못했던 생각 중에는 이런 것도 있다. 최근에는 지인이 결혼을 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으레 결혼식에서는 신부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들어간다. 신부의 아버지는 조심히 걸어가는 신부의 손을 잡고 가다가, 신랑을 만나면 마침내 신랑에게 그 손을 건네준다. 이걸 신부가 신랑과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느껴지는 부분이다. 신부는 마치 결혼 전에는 부모님의 전유물이었다가 결혼을 하며 신랑의 전유물이 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걸 ‘문화’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고정관념의 재생산의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의 결혼식에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없게 해야겠다고 마음먹기도 했다.

이 글의 제목인 ‘나는 평등 사회의 시민일까?’ 에 대한 나의 대답은 ‘아직 아니다.’ 이다. 이 책의 저자는 ‘우리는 아직 차별을 부정할 때가 아니라 더 발견해야 할 때다.’ 라고 말하는데 정말 동감한다.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인종, 국적 등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너무나도 멀다. 나는 그 길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힘을 모은다면 정당하고 평등한 사회로 가는 길이 더욱 쉬워질 거라 생각한다. 그리고 그 길에는 내가 굳건히 함께 할 것이다.

과거 성찰을 통해 얻은 현대 사회의 전염병에 대해 필요한 태도와 지혜

2019년 12월 말 독일에 있을 당시 코로나 바이러스의 소식을 접하기 시작했다. 그 후 2020년 1월 말에 한국으로 들어온 후에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전염병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다. WHO에서는 팬데믹을 선언했으며 세계는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2020년을 보내야만 했다. 그렇기에 지금은 ‘팬데믹’이 COVID-19 창궐 이후 현재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듣고 있는 단어 중 하나일 것이다. 나는 간호학을 전공하며, 지역사회보건과 의료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보니 이 사태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고, 여러 방면으로 레포트를 작성하기도 했다. 또한 내년이면 의료인으로서 장기적으로 맞서야 하는 이 전염병에, 더 나아가 매년 새로운 백신이 나오는 신종인플루엔자, 어디서 새롭게 출현할지 모르는 신종감염병 등을 마주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태도와 지식 그리고 지혜를 갖추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해보게 되는 시간들을 보냈다.

그런 와중에 COVID-19와 관련된 최신문헌과 논문 등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병이 있었는데, 바로 스페인독감이었다. 일부 논문에서는 이번 팬데믹을 100년 전 스페인 독감에 비추어 비교하기도 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해보기도 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접했던 스페인독감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었던 찰나에, 도서 목록에서 스페인 독감을 다룬 아주 인상적인 책을 발견했다. 이 책은 100년 전 상황들이 담긴 매우 소중한 기록들을 수집하고 모아 한 데 엮은 책이었다. 간접적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참담하고 비극적인 상황들을 아주 생생하게 느껴볼 수 있었다. 더불어 지금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인류의 반응과 대처에 감동하기도 하고 무력감을 느끼기도 했으며, 이 책을 통한 성찰로 내가, 더 나아가 우리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전염병들에 대해 어떤 자세를 지니고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스페인독감은 스페인에서 처음 발생해서 지어진 이름이 아니었다.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영국이나 미국 등의 나라는 스페인 독감 대한 언론의 통제가 이루어졌지만, 중립국이었던 스페인에서는 이 질병이 창궐했을 때 적극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다루어졌다. 전쟁 중인 국가에서도 스페인에서의 상황에 대해 보도하는 것은 제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스페인 독감으로 널리 불리게 되었으며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다. 스페인독감은 ‘스페인독감’으로 명명되었으며 우리는 의문을 품지 않은 채 스페인독감을 ‘스페인독감’으로 기억할 것이다. 나 역시 그랬다. ‘스페인에서 창궐하여 스페인독감으로 불린 것인가 보균’ 하고 별다른 고민 없이 넘어갔다. 이후 스페인독감의 명칭에 대한 기원을 제대로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어떤 이들은 스페인독감이라고 부르는 것은 인종차별 적이고 왜곡된 것들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한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억하고, 다양한 학문에서도 이미 스페인독감이라고 다루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이제 와 다른 이름으로 정정하면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관련해서는 분명히 다양한 관점과 의견이 분분할 것이

라고 생각한다. 나 역시 정정하는 것은 혼란을 줄 것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닐까? 분명한 것은 이 스페인독감을 현대의 바로 지금, COVID-19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는 바로잡아야 할 점이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학계와 일반시민을 포함한 세계의 합의가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한다. 초기 중국 우한에서 창궐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계화의 필수 수단인 비행기와 선박 등을 통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우려 속에서, 각국에서는 언론을 통해 우한바이러스라고 다루었으며 곧 많은 이들에게 우한바이러스라 불리게 되었다. 물론 이는 임시명칭이었으며 WHO에 의해 정식 명칭이 나오기 전이었다. 이후 전세계 팬데믹 상황이 오게 되면서 적지 않게 중국인에 대한 반감, 차별과 폭력에 대한 소식을 기사뿐만 아니라 지인들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었다. 이후에는 아시아인만 보아도 차별과 폭행을 당하게 되는 일도 발생했다. 이러한 사건들이 대두되면서 계속해서 ‘우한바이러스’라고 부르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가시화되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점차 COVID-19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현재 정식 명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rona virus disease-19, COVID-19)이다. 이와 관련해서 이전에 CNN에서 보도되었던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중국인 기자의 기자회견에서의 대화가 기억난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우한 바이러스’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으며, 중국인 기자는 ‘우한바이러스’ 사용에 대한 이슈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대한 질문을 했으나 마이동풍인 듯한 대답으로 얼버무리며 넘어가는 상황이었다. 중국과 미국의 간의 상황과 정치적 갈등 배경을 포함하더라도, 이는 우리가 노골적으로 꼬집어 볼 수 있는 일화라고 생각한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는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서양에서 코로나혐오의 대상이 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아시아 내에서도 중국이 원인이라며 중국을 혐오하는 현상들이 발생했다. 나는 ‘우한 바이러스’라고 불리던 것이 이러한 현상에 일조했을 수도 있으며, 명명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각국의 입장표명과 나라를 대표하는 이들의 성명이 많은 이들에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는 지에 대해 숙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본다. 물론 많은 나라들이 인과관계를 파헤치며 중국에 책임을 묻기도 하는데, 세계화 속의 국제관계에서 벌어지는 이런 과정은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이런 관점으로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엄밀히 말해 MERS(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중동호흡기증후군)도 중동이라는 특정 지역을 포함하고 있기에 문제가 된다. 중동지역 아라비아반도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명명된 것인데, 특정 지역을 일컫고 있음에도 이는 왜 큰 이슈가 되지 않았던 것일까? 일단 메르스는 팬데믹 현상을 일으키지 않았으며 이후 질병 통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외에도 한탄 홍콩 독감이나 일본뇌염처럼 아예 국가명이 포함되어있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WHO가 실제로 메르스 이후에 특정 지리나 사람 이름 등이 병명에 포함될 수 없도록 표준지침을 개정하였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서의 핵심은 전염병은 세계 어디서든 창궐할 수 있다는 점이다. 흑사병은 유럽에서 창궐했다. 스페인독감은 초기 미국에서 창궐한 후에 제1차 세계 대전 동안 유럽에서 창궐하며 곧 세계로 퍼졌다. COVID-19는 중국에서 발발했다. 이처럼 우리는 전염병이 어디에서 나타날지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고도로 발달한 국제화 사회 속에서는 전염병이 짧은 시간 안에 세계 곳곳으로 침투한다. 이 점을 바탕으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스페인 독감이라서

‘스페인’이나 ‘스페인사람’을 혐오하거나 메스르여서 ‘중동’이나 ‘중동사람’을 차별하는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는 간호사로서 앞으로 간호할 이들을 대할 때 이 점을 유념하며 경각심을 잃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이 도서의 작가 캐서린 아놀드는 스페인 독감에 대한 내용에 부가적으로 다른 질병에 대한 설명을 통해 우리에게 전염병에 대한 배경지식을 이해시키고 있다. 이런 내용을 읽으며 내가 깨달은 것은 인류는 전염병으로부터 완벽하게 안전했던 적이 없었고, 지금도 그렇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나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전염병을 바라보게 되었고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 지금까지 전공교양에서 배웠던 미생물학과 간호학에서 다루었던 수많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며 이는 우리 인류의 완전한 통제하에 있다고 생각했다. 인플루엔자는 스페인독감 이전에도 존재했으며 여러 국가에서 유행했고, 세기에 걸쳐 계속 변이해왔다. 우리는 지금도 인플루엔자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며 매년 백신을 통해 대유행을 막으려 고군분투하고 있다. 언제 어떻게 스페인독감처럼 치명적이고 전염성이 강한 인플루엔자로 변이할지 예측할 수 없다. 인플루엔자 외에도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도 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MERS, COVID-19), 두창, 홍역 등등 우리는 수많은 감염병으로부터 끝없이 저항하고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백신의 발달과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러한 질병들의 위협이 줄어들었을 뿐, 그들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감염병의 감시와 통제를 위한 WHO가 존재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번 COVID-19의 사태가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며, 전례 없던 일이고 코로나19의 극복 후에는 앞으로는 다시없을 일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나는 26해 동안 살아오면서 처음 겪었던 팬데믹이며, 이 정도로 심각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SARS, MERS, 지카바이러스 등은 노력 끝에 인간의 감시와 통제의 범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모든 감염병들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과거에는 의학의 발달이 미약했으니까, 과거에는 백신 발달이 미미했으니까 페스트와 스페인 독감에 인간이 무참히 패배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착각이었다. 하지만 이제 COVID-19로 스페인독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 책을 읽으며 감염병 자체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다. 앞으로도 감염병의 위협은 계속될 것이고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른다는 것을 유념하고, 더불어 기존에도 존재한 감염병들에도 경각심을 놓지 않는 한 명의 시민이자 의료인이 되어 가고자 한다.

스페인독감에 대한 기록들을 읽어보면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현대에서의 전염병,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의 모습과 100년 전의 스페인 독감을 대하던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유사했다는 점이다. 그 당시에도 많은 의학자와 의사, 간호사들이 전염병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 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독감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당시 초반에는 제 1차 세계 대전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미 스페인 독감이 퍼져있던 미국에서 유럽으로 향해하는 지원 병력들을 통해 타국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우편 때문에 전쟁과 관련 없던 알래스카에도 전파되었고, 뉴질랜드, 인도, 호주 등 각지로 퍼지게 되었다. 우리는 교통수단의 발달로 선박은 물론이고 기차, 특히 비행기를 통해 세계 곳곳이 연결되어 있다. 짧은 시간 안에 팬데믹이 퍼지기 쉬운 상태인 것이다. 100년 전에는 배였다면 이번에는 비행기로 이 지구가 훨씬 더 짧은 기간 안에 팬데믹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캐서린 아놀드는 책의 한 구절에서 빠른 초기 대응과 강력한 조치를 보여주었던 호주의 사례를 들며 ‘아무리 강력한 격리 조치를 실시한다고 해도 대륙 전체를 스페인 독감으로부터 고립시킬 수는 없다는 점을 잘 보여준 사례였다.’고 했다. 스페인 독감을 막기에 당시의 기술과 지식으로는 역부족이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번 사태라고 해서 결과는 크게 다를 것이 없다. 비록 초기 폐쇄 조치 등을 통해 도시 안정을 되찾은 나라도 있지만, 발 빠른 감시체계와 기술이 발달했음에도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가 출현했으며 완전히 고립되지는 못했다. 오히려 현재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복잡하게 연결되고 맞물려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고도의 감시체계와 기술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스페인 독감을 막기 위해서 많은 마을과 도시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외출하는 것을 위법화하기도 했으며, 폐쇄 조치가 취해졌고, 공공시설은 문을 닫았다. 놀랍게도 그 당시에도 좌석 옆을 비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행해지고 있었다. 사람은 너무 많이 희생되어 관이 부족했고 수장할 공간이 부족했다. 마스크를 공급하는 이들과 관을 제작하는 이들은 폭리를 취하기도 했다. 지금과 너무도 비슷한 상황들이 묘사되고 있어 읽는 내내 흥미로움을 느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턱없이 부족했고 그들은 환자들을 지키다가 희생되기도 했다. 병원은 마비가 되었고 모든 환자들을 돌볼 수가 없었다. 한 구절에서는 ‘세상의 그 어떤 조직으로도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들을 돌보아줄 간호사들을 대체할 수는 없었다.(팬데믹 1918, 2020, p.165)’라고 하며 아비규환 속 간호사들의 희생과 용맹함을 표현하고 있었다. 이처럼 의료인들은 백신도 없고 확실한 치료제도 없는 상황에서 환자들을 지키려고 싸웠다. 전쟁터 속에서 감염된 군인들을 돌보는 간호장교들과 군의관 그리고 의무병, 시민환자들을 지키기 위한 지역 사회 의료인들은 감염되어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해냈다. 이 내용들을 읽으며 현재 COVID19 환자들을 지키고 있는 의료인들을 떠올리게 되었는데, 특히 해외에서의 처절한 의료환경과 인력의 문제가 떠올랐다. 조국의 등불이 되어 각 나라의 환자들을 지켜내고 있는 이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책에서 인용한 호주 신문의 일부분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인간들은 독립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에 무관심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들은 여성과, 자신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의 목숨에 무관심한 것이다.(팬데믹1918, 2020, p.305)’. 현재 우리에게 요구되는 태도를 분명하게 말해 주는 것 같다. 의료인들의 희생에 감사하며 자기 스스로가 감염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타인의 건강과 목숨은 자신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기적인 행동을 멀리 하고, 함께 코로나바이러스를 극복해야한다.

궁극적으로 책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은 의료만으로, 정부만으로 그리고 혼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 부분이 함께 맞물려야 극복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온고지신으로 이 책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관점, 특히 이 현대의 한 시민으로서 현재 갖춰야 할 태도를 숙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준 이 책에 고마움을 느낀다.

이것도 미술인가

『이것은 미술이 아니다』 .. 많은 독후감 책 리스트 중에 단연, 이 제목이 끌렸던 것은 사실이다. 매우 파격적인 제목으로 미술 전공생인 나는 이 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했지만 ‘이것’이 무엇인지 예측할 수는 없었다. 책의 가장 첫 장 <글을 옮기면서>와 함께 존 버거의 『보는 방식』이 인용된다. 다행히도 나는 이 책을 읽은 적이 있다. 나는 책을 읽을 때 저자의 의도나 책 읽는 방법을 파악한 후 읽는 것을 선호한다.

이 책의 쓸모는 총 3가지다. 첫 번째는 미술과 인문학 강좌의 커리큘럼을 보충할 목적으로 기존의 제도화된 규범을 재구성하며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나와 같은 미술에 흥미를 가진 혹은 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미술사 입문서, 미술이론서다. 세 번째는 미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의 답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이 책은 기존의 강단 미술비평이 아니라 새로운 미술비평의 시각을 열어준다. 기존의 아카데미즘 미술비평은 주로 미술품의 권위에 대해 다루지만 이 책은 사실 미술이라 믿어왔던 것들은 실상 미술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현대미술을 배우는 학생으로서 현대미술의 가치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았다. 그들은 “이게 어떻게 미술이야?”, “이건 나도 그리겠다”와 같은 말을 하며 현대미술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저자는 그들과 반대의 입장이다. 저자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모나리자>, 1503-05는 미술을 아이고 마르셀 뒤샹의 <L, H, O, O, Q>, 1919가 미술이라고 주장한다. 우리가 읽는 대다수의 서양미술사는 라스코 동굴벽화나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기원전 25000-20000으로 시작된다. 초기 예술은 ‘주술’로 시작해 초자연적 존재나 신비적 힘을 위해 빌며 풍요와 숭배를 빌었다. 서양 미학의 창시자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주술은 예술, 철학 그리고 종교로 이어진다. 중세 미학은 기독교와 결합하여 신을 그리고 르네상스 인본주의에 들어서 자화상이 등장하며 재탄생하게 된다. 과학이 결합하여 원근법과 명암법과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인체 비례법이 등장한다. 19세기 카메라의 등장으로 카메라로 구현하지 못하는 독특한 화풍이 유행하게 된다. 인상주의(세잔, 고갱, 고흐, 모네, 마네), 야수파(마티스, 칸딘스키), 큐비즘(피카소), 다다이즘(마르셀 뒤샹), 초현실주의(살바도르 달리), 팝아트(앤디 워홀) 등 다양한 미술사조가 등장하여 사람들의 보는 방식이 변화함을 알 수 있다.

현대미술 하면 단연 마르셀 뒤샹이다. 감히 이 사람 때문에 현대미술이 어려워졌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변기’라는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기성품을 미술품 반열에 올려놓았다. 이것을 레디메이드라고 부르며 이 개념을 만든 것이 바로 뒤샹이다. 일상적인 물체가 예술의 영역으로 옮겨가 사람들은 ‘예술가의 손으로 매체를 만지작거리지 않아도 예술이다?’라는 의문을 제시한다. 그렇지만 ‘변기’는 가장 더럽고 수치스러운 물건이지만 그 고상한 척하는 미술관에 전

시된다는 것이 매우 역설적이며 우리는 번기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오브제 그 자체로만 본다면 매우 아름답게 감상할 수 있다고 말한다.

간단하게 미술사를 정리해보았다. 저자의 말에 의하면 ‘18세기 전반까지만 해도, 우리가 지금 미술이라 부르는 것들은 모두 일상 생활의 맥락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p39’라고 주장한다. 그런 까닭에 저자는 모나리자는 미술이 아니라고 한 것이다. 작품의 예술적 가치와 그 범위는 계속해서 계속해서 확대되어 가며 비로소 현대미술까지 오게 되었다. E.H.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따르면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규정한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사에 따라 우리들의 가치와 관점의 변화는 다양한 해석으로 이끈다. 앞서 말한 역사적 사실과 관계는 연속적이며 우리는 이 흐름에 적응해야 한다.

이 책의 저자의 주장은 매우 파격적이고 매력 있다. 그가 규정하고 자 한 ‘미술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5부 미술창작이라는 특권이다. ‘본인이 알고 있는 화가를 적으시오’라는 질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화가들의 이름을 달 것이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 앤디워홀, 몽크, 몬드리안, 세잔, 고갱, 앙리 마티스 등등...’ 그런데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다. 모두 남성이며 백인이다. 분명히 여성 작가와 다른 유색인종이 존재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미술관에서 여성 작가의 그림보다 여성의 누드를 더 많이 볼 수 있다. 과연 미술뿐일까? 음악가, 과학자들도 마찬가지다. 역사는 여성을 잊고 잃었다. 인구의 절반인 여성들은 역사서 속에 기록조차 되지 않았던 것인가. 누드화의 화가와 관객은 보통 남성이었고 그러한 대상이 된 것은 여성이었다. 이러한 불평등한 관계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성적 행위의 주인공이 바로 그 이미지를 바라보고 있는 관객이자 소유자이며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몸이 비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기가 보이도록 그려져 있다. 존 버거의 『보는 방식』에 따르면 ‘그림을 보는 관객은 남성이며 낯선 사람이고 옷을 걸치고 있다. 그림 속 여자는 남자의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려진 것이며 그녀의 성적 욕망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나와 있다.

나는 17년도부터 페미니즘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페미니즘을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하기도 하며 여성의 목소리에 힘을 실는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낙태’가 아닌 ‘임신 중절’, ‘그녀’가 아닌 ‘그’, ‘여배우’가 아닌 ‘배우’ 등 단어사용에 유의하고 있으며 여성들의 부조리한 사건에 후원하고 시위를 나가고 있다. 이 책의 저자도 인칭대명사 ‘그’를 사용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다. 유화 그림에 이어 대중매체가 발달하지만, 여전히 유화 그림은 자신의 권력을 증명하기 위해 사고 팔린다. 미술은 끝없는 과시와 그들의 행복을 증명하기 위해 혹은 선망의 대상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다. 더 나아가 대중매체로 이어져 더 대량화되었다. 과감히 나도 이 의견에 동의한다.

얼마 전에 나는 동기들과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는 현대미술이라는 이름을 걸고 철학을 하는 것 같아” 모두 나의 말에 동의하였다. 우리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처럼 철학적 사고를 기반으로 나만의 철학을 만들고 발표한다. 그들과 우리가 조금 다른 점은 우리는 이 철학을 시각예술로 창작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현대미술에 적용하려는 우리의 태도다. 그러나 그림을 사는 컬렉터들은 그림의 의미와 철학보다는 작가의 이름이나 학력, 명성을 중요시하는 게 현실이다. 동기들과 나는 이러한 현실을 알지만, 곳곳이 우리만의 철학을 걸고 있다.

이 책은 더욱 미술을 보는 인식의 장이 넓어진다. 가장 첫 부분에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는 말이 나온다. ‘본다는 것’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다. 작품을 보는 여러 길을 제시한다. 저자는 세상의 다양한 이미지들에 의해 우리가 어떻게 지배되고 세뇌당하는지 그리고 그것들에 어떤 의도들이 숨어있는지 보여준다. 그리고 세상이 보라고 강요하는 것만 보지 말고 그 이면의 숨겨진 의도와 정보까지 보기를 조언한다. 다소 난해하고 어려운 현대미술, 눈치 보지 말고 당당히 ‘이것은 미술이 아니다’라고 말하자. 그리고 ‘미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자신의 답을 말해라.

회색 매니큐어,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슬픔이여!

모두가 잠든 캄캄한 새벽 아버지의 벨소리가 울렸다. 곧이어 전화기 너머로 여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고, 아버지는 한참동안 전화기 너머로 죄송하다며 보이지 않을 고개를 연신 숙이셨다. 그 날 아침 아버지는 내게 회색 매니큐어를 사와줄 수 있냐고 물으셨다. 아버지와 매니큐어라는 낯선 조합에 그것이 왜 필요하냐고 묻자, 작은 기스를 회색 매니큐어로 덧칠해야한다고 하셨다. 새벽에 걸려온 그 날카로운 전화가 이와 연관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나의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다. 하루 단위로 인력사무소에서 일거리를 받아서 일을 하신다. 늦게 가면 일거리가 없다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인력사무소로 향하시지만 허탈한 발걸음으로 일거리를 얻지 못한 채 집에 돌아오실 때가 많았다. 얼마 전 한 아버지가 단독주택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게되어 2주는 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신 것이 떠올랐다. 회색 매니큐어를 사오는 길에 가슴에서 울컥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매니큐어를 전해주며 물었다. “아빠, 그 일 안하면 안돼?” 아버지는 대답없이 회색빛 미소를 지으셨다.

소설에 “이상하다는 생각을 안 해야 돼요.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머리가 이상해져요.”라는 구절이 나온다. 소설 속 이지혜 차장도 아마 이 말을 하며 나의 아버지가 보였던 모든 것을 순응한 듯한 그 미소를 짓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지혜 차장은 조운범 회장의 갑질로 인해 1년 동안 월급을 현금이 아닌 카드 포인트로 받게 된다. 일의 기쁨을 앗아가고 슬픔만 축적되도록 만드는 갑질에 순응해야만 하는 수많은 ‘이지혜 차장’들이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 자본주의 시대에서 나눠 가질 몫의 부족함으로 인해 우리 모두는 과도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야 한다. 흔히 말하는 ‘잉여’가 되지 않기 위해 생존 자체를 목적으로 경쟁에 뛰어들어야만 한다. 이들은 대단한 성공보다는 평범한 안정을 위해 분투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평범함을 위해 충족해야 할 요소들은 점점 더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숫자로 자라난다.

대표적인 ‘갑’으로 묘사되는 안나네 회사 대표와 조운범 회장, ‘을’로 묘사되는 안나와 이지혜 차장은 우리 사회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내었다. 일의 기쁨과 슬픔에서 슬픔을 불러오는 갑질은 “갑을관계에서의 ‘갑’에 어떤 행동을 뜻하는 접미사인 ‘질’을 붙여 만든 말로,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리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 행위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이지혜 차장은 이전에 공연기획팀 소속으로 능력 있는 개인이 노력을 통해 루보프 스미노르바 섭외라는 목표 달성까지 했으나, 조운범 회장이라는 거대한 힘 앞에서 그 능력과 노력도 힘없이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지혜 차장이 ‘포인트 월급’ 인생이라는 사회의 시스템 밖으로 추방되까지 ‘조운범 회장의 눈 밖에 났다.’는 비합리적인 원인이 커다란 이유로 작용한 것이다. 사랑은 빨간색, 붉은 노란색 그리고 일의 슬픔은 회색. 실체가 없는 것들을 색으로 표현한다면 아마 이런 색일 것이다. 회색,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그 애매하게 탁한 색은 ‘일의 슬픔’에 가장 잘 어울린다.

‘일의 슬픔’이 회색이라면, ‘일의 기쁨’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다섯 남매 중 첫째로 태어나 중학교 졸업 후 동생들을 위해 바로 생계에 뛰어든 아버지는 시인을 꿈꾸셨다. 특히 이해인 수녀님의 시를 좋아하셔서 딸을 낳으면 이름을 이해인으로 짓겠다고 오래 전부터 생각했다고 하셨다. 아버지의 오랜 꿈이 담긴 나의 이름 때문인지 집안 곳곳에 놓인 책들 때문인지 난 책 읽는 것을 좋아했다. 책 읽기와 글쓰기가 주는 위로에 기대며 학창시절을 보내며 작가를 꿈꿨고 나와 아버지의 꿈을 품고 국문학과에 입학했다. 하지만 회색 매니큐어를 사오던 그 길에서 나는 비합리적인 것이 합리적인 것이 되는 회색빛 세상을 마주했다. 더 이상 노력이 성공을 견인할 수 없는 시대에서 나의 꿈은 어쩌면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라는 생각에 혼란스러웠다. 그러던 중에 아버지의 건강이 안좋아지셨고, 글쓰기를 업으로 삼을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사라진 나는 점점 더 무력감에 빠졌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학교를 마치고 학교 도서관에서 내가 읽을 책 한 권과 아버지가 좋아하실만한 책 한 권을 빌려서 아버지가 있는 병원으로 향하는 것이었다. 아버지와 함께 책도 읽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하루종일 병실에서 혼자 적적하셨을 아버지에게 대중교통을 타는 시간에 틈을 내어 휴대폰 메모장에 쓴 소설을 보내드리기도 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줄여서 소확행이라 한다. 아버지에게 내가 쓴 소설을 보여드리고 그것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일은 내게 소확행이었다.

일의 기쁨은 소확행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일상 속 작은 기쁨을 찾는 일은 일의 슬픔 속에서도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작은 기쁨이며 이는 소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여는 통로라고 생각한다. 이 소설 속에서 기쁨은 안나의 클래식, 이지혜 차장의 애완 거북, 케빈의 레고로 대표된다. 작은 행복을 가진 개인들은 조금씩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통으로 나아간다. 나의 글은 마음을 따뜻해지게 만드는 힘이 있다던 나의 1호 팬 아버지와의 소통 속에서 용기를 얻어서 학교에서 개최한 문예 창작 공모전에 메모장에 썼던 수필을 제출했고 최우수상을 받았다. 난생 처음으로 나의 글이 다른 이에게 읽혀지고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소설에서 이지혜 차장은 ‘급여 입금 알림 메시지’에 배시시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좋아하는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주말 홍콩 리사이틀을 보러가겠다고 비행기표를 예매하면서 그만한 사치를 누릴 자격있다고 위로하기도 한다. 일의 슬픔을 다시 일의 기쁨으로 기꺼이 전환하고 있다. 반복되는 일상을 견디는 지혜는 어쩌면 이렇게 사소한 발상의 전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 슬픔이 있어야 기쁨도 누릴 수 있다는 세상의 이치는 일에서도 역시 적용이 되었다.

갑을관계로 인한 직장 내에서의 폭력과 을의 고통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일의 기쁨과 슬픔』이지만, 그렇다고 회색빛 슬픔을 어둡게만 묘사하지 않는다. 이 소설의 마지막 문장처럼 “오늘은 월급날이니깐 괜찮아”라며 인물들은 을로서의 슬픔을 이겨낸다. 이 소설을 통해 깊숙이 묻어두었던 나의 슬픔인 ‘회색 매니큐어’를 꺼내어 보았다. 그리고 그 슬픔을 기쁨으로 잠시 덮어두었다. 일상 속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찾고 그것을 통해서 작은 행복을 가진 우리는 조금씩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을로서의 슬픔이 더 깊어지지 않고 기쁨으로 봉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 소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적이면서도 희망적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우리의 회색빛 슬픔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들을 찾는 동안 우리는 일의 슬픔을 더욱 새롭게 바라보면서 용기를 얻을 것이다. 감춰둔 깊은 마음 속 기쁨과 슬픔 그리고 아버지를 꺼내담은 이 글을 마치려고

한다.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슬픔이기에 우리는 다시 기뻐할 것이다.

회색 매니큐어,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슬픔이여!

글쓰기가 죄가 될 때

할아버지는 작가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본업은 법조인이지만,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여러권의 법학 서적과 자전적 이야기들이 담긴 서적을 집필하셨다. 1980년대부터 2010년대 초까지 쓴 여러 권의 책을 통해 고향인 영암에서 자랐던 소년 시절부터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검사 시절의 이야기, 검사직에서 은퇴한 뒤 변호사로서 살아온 이야기, 할머니와의 만남, 사랑, 그리고 사별의 애끓는 마음을 담아냈다. 그런 할아버지를 닮아서일까, 나도 어렸을 때부터 글쓰기를 즐겼다. 중학생 때에는 학교에서 소설을 써 친구들에게 읽힌 적도 있고, 지금도 어딘가에 완결을 곧 앞둔 소설을 일간 연재하고 있다.

비록 취미로 하는 글쓰기지만, 그 행위를 통해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하고,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토해낸다. 내가 만든 소설 속 인물들은 내가 아니지만 나의 말을 하고, 나의 생각을 한다. 그들은 내가 꿈꾸는 이상적인 행동을 하고, 내가 현실에서 아름답다고 생각한 것들을 그대로 경험하며 기쁨을 느낀다.

김연수 작가의 <일곱 해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백석 시인이 문학적 생애의 마지막 7년을 어떻게 보냈는가를 담은 팩션 소설이다. 작가가 조사를 통해 알아낸 사실에, 그의 상상력을 덧붙여 해방 이후 북에 남게 된 백석의 이야기를 그려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소설 속의 '기행'은 백석의 몸과 영혼에, 김연수 작가의 정신이 덧붙여진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소설 속 인물은 아무리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결국 작가의 분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이 책을 통해 백석이라는 시인 그 자체보다는 김연수 작가가 기행이라는 인물을 통해 그려낸, 당시 그를 불행하게 만들고 절필하게 만들었던 통제된 사회의 글쓰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요즘 북한의 작가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는 북한 출신인 김주성 작가의 <한국이 낮설어질 때 서점에 갑니다>라는 책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북한에서는 소설가가 되기도 힘들지만, 글을 쓰기도 힘들다. 문학은 사상을 주입하기 위한 무기이자 선전, 선동의 수단이다. 제도와 이념을 찬양하고, 국가지도자를 우상화하는 내용의 글만 써야한다.' '북한의 작가들은 직업소설가이다. 그들은 작가동맹이라는 곳에 소속되어 국가의 월급을 받고 글을 쓰는데, 소설가의 경우 1년에 단편 두세 편, 3년에 중편 한 편을 써내야 한다. 만약 이를 완수하지 못하면 부진작가로 낙인찍혀 동맹에서 퇴출되고,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한다.' 라는 문장을 통해 어째서 글을 쓰지 않았을 뿐인 기행이 오지로 쫓겨나야 했는지를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몇십년 전과 비교했을 때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현실에 숨이 막혔다.

작품 속 기행은 동료 작가들 앞에서 자식같은 시들이 연별로, 행별로 조각조각 나뉘어 평가당하는 것을 지켜봐야했다. '주체적인 사회주의 문학'을 해야한다 주장하는 이들에 의해 이

국의 동물, 우주로 날아간 개는 지워지고 공산주의 천재, 제3인공위성만이 남았다. 아쉬움을 토로하는 기행에게 엄종석은 "그런 걸 아쉬워하면 개인주의지."라고 말한다. 문학은 원래 가장 개인적인 것이 아닌가? 나는 출판문학이란, 개인이 사회에 하는 소리침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북한의 노동당은 문학을 통해 사회의 이념을 개인에게 주입하려고 한다. 그런 당의 문예 정책으로 인해 작가들은 생각이라고는 없는 당의 육성기가 된다. 하지만 기행은 글 쓸때 생각을 멈출 수 없어 당의 지시를 따를 수 없어 괴로워했고, 그 모습을 본 나는 준이 되어 위로의 술을 따르고 있었다.

이 책에서 북한 사회를 묘사하기 위해 쓴 소재 중 하나인 '륜환선 거리'는, 미군의 폭격으로 폐허가 된 뒤에 완벽하게 자로 줄을 굿듯이 만들어 낸 계획도시의 일부이다.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벽체를 올려 아파트를 건설하는 그 장면을, 김연수 작가는 '시가 건설된다'라는 표현을 통해 북한 문단의 현실과 연결시켰다. 당의 계획 하에 계산적으로 생산되는 선전용 시들. 그리고 대동강국수집처럼 사라지는 순수문학들.

당의 지시처럼 우울, 죽음, 슬픔같은 감정들을 시에 담을 수 없게 된다고 해서 인간이 그 감정들을 느낄 수 없게 개조되는가? 죽음에 대해 쓰며 살 것 같다고 느끼는 기행처럼, 인간은 슬픔을 느껴야 기쁨을 느낀다. 빛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있으니, 그 그림자를 모르는 척 가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과오이다. 내가 좋아하는 시 중에 김이듬 시인의 <시골 창녀>라는 시가 있다. 슬픈 역사를 거쳐온 우리 민족이 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대해서만 이야기 하고 멸시를 받거나 천대받았던 사람들은 마치 없었던 것 마냥 말하는 게 너무 쓸쓸하다고 작가는 말한다.

당은 당에 반대하는 작가들을 체포해 사상개조를 시키거나 오지로 좌천시킨다. 나는 서초동 대법원 바로 옆에 거주중인데, 시위가 정말 자주 있다. 다양한 시위들 중에는 나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시위도 분명 있다. 하지만 그 시위들을 보면서 나는 아직 우리 사회가 살아있음을 느낀다. 모두가 만족하는 사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만이 없는 사회는 약자들이 침묵해야만 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문학적 다양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같은 도시 함흥을 보고도 누군가는 강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폐허가 된 도시가 눈부시게 재건되는 과정을 찬양하는 것이 문학이다. 현재 북한의 콘텐츠들을 접하는 남한의 우리는 비슷한 생각을 할 것이다. '정말 판에 박히고 재미없다.' 만약 당의 통제 없이 북한의 문인들이 자유롭게 시와 소설들을 남겼다면 우리가 북한을 지금보다는 인간적이고 살가운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거기서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백석은 당의 문예정책을 따르지 않았다. 그는 쓰지 않음으로서 선언했다. 그리고 쓰지 않았기 때문에, 사상이 개조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어 오지인 삼수로 보내졌다. 정말 백석다운 저항이라고 생각한다. 삼수로 좌천된 기행이 홀로 사무실에서 지내며 노트에 원하는 대로 글을 쓰고 바로바로 태워버리는 장면에서는 재가 되어 사라져버리는 글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감출 길이 없었다. 나는 진시황의 분서갱유를 떠올렸다. 세상에 한 권, 또는 몇 권만 존재하는 책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모습을. 전해내려오지 못한 지식을. 사라져버린 이야기들을. 하지만 나는 지독한 당이 아니기 때문에, 시인이 불행해지면서까지 내가 원하는 시를 쓰

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그래도 그 장면을 보면서 하게 된 즐거운 상상이 있다. 시인 백석이 말년에 정말로 절필을 하지 않고 시를 계속 써 왔다면? 북한에서 출판되지는 못했지만 어느 집의 어느 서랍 속에 고이 숨겨져있다면? 그 시 안에는 우리가 사랑했던 젊은 백석의 언어와 생각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을까? 나는 그가 자유롭게 쓴, 어디엔가 숨겨져 있을 시들을 상상한다.

전쟁이 앓아간 순수함

<유년의 뜰>은 6.25 전쟁 중 피난민 가족의 일상을 그린 이야기다. 아버지는 전쟁터에 끌려가 어머니와 할머니 그리고 4명의 형제자매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진한 화장을 하며 식당으로 일을 나가고, 오빠는 어설피른 가장의 옷을 입고 폭력을 행사한다. 할머니는 가족들을 위해 닭을 훔치고 언니는 집 밖으로 나돈다. 그리고 화자인 '노랑눈이'는 배고픔에 식탐이 점점 강해진다. 이들은 조화로우면서도 불협화음을 내며 진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시대적 배경이나 공간적 배경 어느 것 하나 큰 공감으로 와닿지는 않았다. 그러나 섬세하고 구체적인 묘사는 책 속 한 장면 장면이 하나의 정밀화로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았다. 누렇게 빛바랜 한 장의 사진 같았고, 그 사진에서는 귀귀한 냄새와 고소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그 냄새는 아버지 없는 가족들이 작은방에 엉겨 붙어 지냈을 방 안의 땀 냄새일 것이고, 사랑의 냄새였을 것이며 증오의 냄새였으리라 짐작해본다.

이 책의 화자는 일곱 살의 어린 소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눈을 빌려 보는 책 속의 세상은 맑거나 순수하지 않았다. 오히려 불순물이 뒤섞인 흙탕물 같았고, 찝찝한 기분이 들게 했다.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꼬여진 가족들의 관계는 그 어린아이의 고사리 같은 손으로 풀기에는 버거운 것이었을 것이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속에서 살아가며 조금은 닮은 듯 다른 결핍을 안고 살아가는 가족들의 모습을 노랑눈이는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그 시선이 시작되는 노랑눈이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안타까웠다. 그 시절 그 아이가 겪은 시간들은 성장이 되었을까 아픔이 되었을까? 그런 노랑눈이의 시선을 따라가면서 그 아이에게 아버지가 함께 있었다면, 전쟁이 끝난 평화로운 환경에서 지냈다면 내가 생각하는 7살 어린이의 웃음을 짓고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다. 그 당시에는 7살의 흔한 모습이었는지 몰라도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그 아이를 보고 있으면 왠지 모를 연민의 감정이 들었다. 이러한 연민의 감정은 다른 가족들에게도 이어졌다. 특히나 나의 눈길을 오랫동안 끌었던 인물은 노랑눈이의 큰 오빠이다. 어머니가 읍내로 일 나가는 것에 대한 불만을 괜히 소리 높여 영어책을 읽는 것으로 표출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이 모습이 딱 아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아들도 아버지도 아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춘기 소년의 모습 같았다. 그의 어리숙함과 가난에 대한 분노는 폭력으로 표출되었다. 암묵적으로 아버지의 빈자리를 맡으며 그 아이가 느꼈을 부담과 공포가 얼마나 컸을지 느껴지기도 했고, 효과적으로 집안을 다스리는 방법이 매질이라고 생각해낸 그의 발상도 참 어리숙하다고 느꼈다. 그럼에도 늘 거울을 통해서 바라봤던 자신의 모습과 현실의 모습에 얼마나 많은 탄식을 했을지를 생각하면 그에게도 역시 연민의 감정이 가닿았다.

이 가족 구성원들의 결핍은 일차적으로 아버지의 부재였고, 근본적인 원인 전쟁으로 인한

아버지의 부재와 가난함이었다. 이런 가족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전쟁으로 인한 사회환경이 한 가정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안길 수 있는지, 7살과 16살 그 어린 나이의 고유한 순수함마저 앗아갈 수 있는지를 느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 않고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모든 것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의 생과 나의 생을 빗대어 가며, 남의 불행을 통해 나의 행복이 비로소 보인다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발상인 줄 알면서도 그런 감사의 마음은 마음 한편에 자리 잡았다. 그들이 겪은 그 시간과 공간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로 간직되고 있는지 내가 알 도리는 없지만 그들의 방식대로, 사랑과 증오 속에서 그 시절을 견뎌준 이들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내가 못 느꼈을 뜨거운 정이 그들에게는 간직되어 하나의 추억이 되었기를 바란다.

웅크리지 않는 아이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마음을 갖고 있다. 그저 마음이라고 칭하면 선명하지 않으므로 사람이 갖는 모든 생각이라고 비유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다. 우리의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마음이 관여하고 그 행동의 결과로 마음이 요동치기도 한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기 때문에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는 쉽게 들리기 쉬운 이 마음 뒤에 숨겨진 마음 또한 갖고 살아간다. 이 숨겨진 마음의 영역, 무의식의 세계를 알아야 진정으로 자신을 또, 타인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보통 20살이 되면 ‘어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 대부분의 결정에 부모님의 허락이 있어야했던 청소년기를 지나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는 시기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마음은 나이처럼 시간이 흐른다고 어른이 되지 않는다. 몸은 자라 어른이 되었어도 마음속에는 웅크린 아이가 존재하는 사람도 있다. 여기서 눈여겨볼 표현은 ‘웅크린’이다. 이 표현을 지우면 순수한 마음을 지닌 어른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웅크린’이라는 표현이 존재함으로써 상처가 존재하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을까 짐작하게 한다. 상처라는 단어에 모든 의미를 담을 수는 없지만 드러났을 때 감추게 된다는 부분은 꽤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언제나 깨질지도 모르는 불안과 위험에 휩싸여있는 어린아이를 다루는 상당히 까다로운 일을 하는 분야가 정신분석이다.

정신분석에서는 사람의 숨겨진 마음인 무의식으로 접근해 유년 시절의 기억으로 돌아가 그때의 이야기를 재구성한다. 정신분석가로 일한 저자가 만난 사람들의 사연을 읽으며 가장 먼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의 깊이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을 수 있구나’를 느꼈다. 우리는 어릴 때 가진 상처를 받았던 마음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안쪽 깊이 숨겨두다 보니 그 마음이 자신도 꺼낼 수 없을 만큼 깊은 곳까지 잠식해버려 웅크린 아이로 변해버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 마음만큼은 마주하기 싫다면 피해도 되고 아무도 못 보게 숨겨도 돼’라며 자신을 다독이지 않았을까 짐작한다. 그래서 숨겨진 마음을 읽어내는 건 어렵지 않을까.

우리가 정신분석가의 입장이 되는 가장 흔한 일을 예로 들면, 친한 친구가 나에게 ‘너무 우울하고 불행해’라고 말하는 경우이다. 장담할 순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괜찮아?’라는 위로의 말을 건네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행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반응이 획일화 된 이유는 무엇일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성장과 발전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는 일을 매우 어색해하게 느껴 불행하다는 단어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다소 비슷한 것 같다. 스펙만을 요구하는 불필요한 억압 속에서 사는 젊은 세대에게 다른 사람의 감정에 반응할 여유가 없다는 말도 타당한 이유일 것 같다.

용기 내어 숨겨둔 마음을 꺼낸 이에게 어떠한 위로가 도움이 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하지만 이때 듣는 사람이 아주 가까운 주위사람(특히 부모님과 같이 큰 영향력을 주는 사람일 경우)이거나 말하는 사람이 아주 어린아이인 경우에 용기가 후회로 바뀌게 된다. 책의 한 이야기를 빌려오자면, 아이가 부모님에게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부모님이 ‘너만 그런 것이 아니다. 불평하지 마라’ 식의 답변을 한다면 그 아이는 다른 사람 앞에는 행복

한 듯 웃지만 사실은 혼자서 불행을 삼키는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 실제로도 그렇다. 책의 또 다른 이야기에서 한 청년이 교수님 방문을 두드릴 때 조심스러워 하는 모습을 가졌는데, 이는 어릴 때 아버지의 방문을 함부로 건드려 크게 꾸중을 들은 적이 있는 유년기를 보냈다고 한다.

결국 사람의 마음은 유년시절의 작은 모든 기억들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적절한 예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유년시절의 모든 기억들이 전이되어 지금의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년기의 기억을 건드리는 일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 그렇기에 관계 안에서 경험하는 상처와 그 상처에 대한 치유는 강력한 힘을 가진다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과거로 돌아가 나의 아픔을 직면했다면 지금의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과거의 나를 본다면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이 나에게 듣고 싶었던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 과거의 상처를 제일 잘 아는 건 자신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치료법 또한 스스로가 제일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안정감, 소속감은 나를 존재하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만 그것이 나의 존재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저 나와 그 외의 것이라는 마음을 갖고 나의 세계를 구축하는 것이 내 안에 살고 있는 웅크린 아이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다.

내가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심리학 관련 서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대학교에 진학하기 전 중학생쯤에 심리학이라는 분야가 흥미롭게 느껴졌고, 고등학교 때는 SNS에서 자신의 생각을 적은 짧은 글이나 고민 상담 콘텐츠를 보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듣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나에게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다양했고, 나는 그 많은 감정들을 헤아릴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없었다. 내가 겪지 않은 일에 공감하지 못했고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보면 허둥지둥 눈물을 닦아주기에만 급급했다. 지금도 비슷하다. 오히려 지금은 내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많다. 대학에 오고 다양한 인간관계가 형성되면서 그만큼 더 다양한 감정을 접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든 생각이 있다.

살면서 우리는 종종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을 느낄 때가 있는 것 같다. 결국은 감정도, 마음도 소화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내가 삼키지 못하는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긴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최근 인간관계에서 '감정의 쓰레기통'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다 담아내지 못해 흘러넘친 그 감정이 주위 사람에게 스며들어가는 것이다. 그 감정을 덜기 위해 인간관계에서 정답을 찾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정답이 없고, 좋은 예시라며 참고할 만한 것도 없다. 그저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존재하듯이 수많은 인간관계가 존재할 뿐이다. 여기에 덧붙일 말이 있을까 싶다.

책은 인생을 잔잔한 강물과 파도가 넘실거리는 바다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한다. 나 역시 동의한다. 항상 잔잔하다면 어떤 기쁨도 슬픔도 없는 무미한 인생이고, 항상 파도가 넘실거리면 모든 순간이 정점이기 때문에 최고의 행복도, 불행도 모르는 삶이지 않을까 싶다. 어떤 인생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잔잔한 강물과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 모두로 이루어졌을 때 최고의 기쁨과 슬픔을 느껴본, 그 기억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으므로 삶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것 같다.

최근 방송에서 생각보다 높은 자신의 스트레스 지수에 놀라는 한 연예인의 장면을 보았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도 잘 모른다. 그저 조용하고 잔잔한 강물 위를 표류하는 삶이라

고 믿고 싶은, 웅크린 아이의 마음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

모두 다른 정의

나는 인문학부학생은 아니지만 오래전부터 철학에도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다. 그래서 많은 철학에 관한 책을 읽어왔는데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니콜라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등을 읽고 국제 사회와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 혼자 생각해보는 것을 좋아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왔다. 그러다 보니 나에게는 책을 고르는 나만의 방법이 생겼는데 책의 저자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인 마이클 샌델은 미국 최고의 대학 중 하나인 하버드대학교에서 30년동안 정치철학에 대해서 강의를 해온 사람이다.

가천대학교 전자정보도서관 2층에는 대형 tv스크린이 여러 대 있다. 그곳에서 학생들이 설 때 영화나 비디오를 볼 수 있게 해준다. 나도 거기에서 공강시간에 자주 쉬었는데 그 시간에 전자정보도서관에서 틀어주는 ted를 보고는 했었다. Ted는 미국에서 주최되는 연례 국제 강연회이다. 여러 분야에 있는 영향력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이 원하는 주제로 대중들 앞에서 강연을 한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 소프트 설립자인 빌게이츠, 해리포터의 저자 jk 롤링, 프란치스코 교황등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강연을 했다. 이 책의 저자인 마이클 샌델도 ted에 나와서 민주주의에 대한 내용으로 강연을 했었다. 즉, 마이클 샌델은 철학분야에서 명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처음 봤을 때 정말 단순하고 복잡한 질문이라고 생각했다.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는 사람은 없지만 명확한 답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이다. 나는 20년간 정의란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 이 책을 읽게 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리주의를 따르고 있던 것이다. 하지만 공리주의만이 정의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 책안에는 정의를 서로 다르게 보는 여러가지 관점이 나오고 각각의 정의는 모두 설득력이 있다. 절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정의라고보는 공리주의, 서로의 상태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원칙이 정의롭다는 존 롤스의 평등주의, 자신이 자신을 소유하고 주권을 가져야한다는 자유지상주의, 이성과 선행의 의무감을 강조하는 칸트의 철학 등 이 있다.

나는 독후감을 통해서 오래되었지만 해결되지 않은 몇가지 재미있는 도덕적 딜레마와 해프닝을 위에서 소개한 여러가지 정의의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다.

철도위의 사람들

당신은 다리위에 서서 다가오는 기차를 바라보고 있다. 기차가 다가오는 반대편에는 철도를 고치는 인부 5명이 서있는데 그들은 귀가 먼 청각 장애인들이다. 따라서 기차가 오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 기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기차를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기관사는 인부 5명에게 철도에서 비키라고 큰소리로 소리치지만 당연히 인부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 그러나 당신 옆에 뚱뚱한 사람이 서있는데 그 사람은 엄청 뚱뚱해서 그 사람을 기차가 지나갈 때

다리 아래로 민다면 귀가 먹은 인부 5명은 살고 당신 옆에 있던 불쌍한 뚱뚱한 사람은 죽을 것이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먼저, 당신이 제러미 벤담 같은 공리주의자라면 단순히 절대다수의 최대행복이 정의라고 굳게 믿기 때문에 뚱뚱한 남자를 밀어서 인부 5명을 살리는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제러미 벤담 같은 공리주의자는 숫자는 도덕적으로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죄 없는 뚱뚱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인부들을 살린다는 선택은 의도적인 살인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도덕적 불편감을 불러일으킨다. 공리주의를 따르는 사람조차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을 주저한다.

나는 다른 관점의 공리주의자로서 뚱뚱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선택이 정당화 된다면, 우리는 뚱뚱한 남자와 인부 5명 모두 살리는 선택이 존재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행복이 최대가 되는 선택을 할 기회가 줄어든다고 주장한다. 의도적인 살인이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사회에 만연하게 되는 것 또한 행복을 증진한다고 할 수는 없다.

개인이 자신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유주의자들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면 뚱뚱한 사람을 미는 선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얼핏 보면 자신이 원하는 행동(뚱뚱한 사람을 미는 행동)을 했는데 왜 정당화될 수 없는지 궁금해 할 것이다. 자유지상주의는 자신이 원하는 행동은 스스로의 의지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다. 개인은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에서 자신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뚱뚱한 사람을 미는 선택이 자유주의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뚱뚱한 사람이 박애주의자여서 자신을 희생시켜도 좋다고 ‘합의’하였다면 선택은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자유주의는 주장한다.

합의된 식인

독일의 로텐부르크라는 마을에서 사람들의 자유지상주의적 사상을 흔드는 헤프닝이 일어났다. 로텐부르크에 사는 소프트웨어기술자 마이베스는 인터넷에 식인을 당하고 싶은 사람을 찾는 광고를 냈다. 베른트위르겐은 그 광고에 응했고 두사람은 마이베스의 집에서 만났다. 베른트위르겐 이외에도 후보자가 200명이나 있었으나, 그들은 마이베스가 금전적인 보상이 없고 식인이라는 체험만 제공한다는 말을 듣고 흥미를 잃고 떠났다. 그러나 베른트위르겐은 마이베스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듣고 제안에 동의했다. 경찰이 마이베스를 체포했을 때는 이미 베른트위르겐을 조각내서 보관한다음 20kg이나 먹어 치운 뒤였다. 독일은 식인죄에 관한 법률이 없다. 독일 법원은 마이베스에게 우발적 살인죄를 적용해서 8년형을 선고했지만 죄에 비해서 형이 너무 가볍다는 반발에 종신형을 최종 선고한다.

이 사건은 자유지상주의적 사상을 시험하는 사건이었다. 자유지상주의 사상에 따르면 베른트위르겐의 몸은 베른트위르겐의 소유이기 때문에 위에서 나온 “합의”된 식인은 정당화될 수 있다. 위에서 나온 식인은 안락사의 극단적인 형태라고 생각한다. 베른트위르겐은 자신이 원하여 죽음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보통 자유지상주의 사상자들은 자유주의의 논리로 안락사를 정당화한다. 따라서 합의된 식인의 행위도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국가가 처벌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된 식인은 일반인들의 도덕적인 반감을 불러 일으켰기 때문에 마이베스의 판결이 8년형에서 종신형으로 뒤집어진 것이다. 공리주의자들은 만약 마이베스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언젠까지 그러한 합의된 형태의 식인이 일어날 가능성을 남겨두게 되며 사람들의 불쾌감을 불러일으켜서 사회전체의 행복이 낮아진다고 주장한다.

삼성의 상속세

최근에 2020년을 뜨겁게 달군 사회이슈를 하나 꼽자면 삼성의 설립자 이건희 회장의 죽음이다. 이건희 회장이 죽으면서 유족들은 막대한 상속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되었다.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의 지분 가치는 18조원정도인데 이건희 회장의 자녀가 물려받는 과정에서 11조원의 상속세를 내야한다. 11조원의 상속세를 내면 삼성이라는 기업이 손해를 입는 것은 사실이다. 삼성이라는 기업은 한국의 경제상황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속세문제는 한국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삼성의 상속세를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오면서 이슈의 관심도는 커져만 갔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공리주의자들은 삼성이라는 기업이 한국 경제에 있어서 존재감이 크기 때문에 유족들이 상속세를 내지 말아야 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진다고 주장한다. 만약 11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상속세를 부담한다 했을 때, 그 부담으로 인하여 삼성이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게 된다면 일자리, 미래 기술에 대한 경쟁력등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을 잃게 될 것이며 이것은 미래 경제력에 타격이 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 주장을 반박하는 다른 공리주의자들은 상속세를 없애는 것은 재벌에게 불로소득을 제공하며 이 사실은 많은 노동자들의 사기와 노동 의지를 떨어뜨릴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속세를 유지하는 것이 사회전체의 행복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삼성 설립자 이건희 회장이 그동안 벌어들인 돈을 이건희 회장의 시간이라고 보고 국가가 상속세를 거두어들이는 것을 국가가 시간을 거두어들이는 것으로 본다. 다시말해서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국가가 이건희 회장의 소유권을 주장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자유지상주의의 근본 사상을 고려해봤을 때 상속세는 정당화될 수 없다.

이처럼 한가지 사건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그름은 사람들이 어떠한 정의의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우리는 한쪽이 옳고 한쪽이 틀리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어떠한 주장이건 상관없이 모두 똑같은 설득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 개인은 모두 자신만의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문제상황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자신의 도덕적 기준을 믿으면서 상황에 따라서 공리주의나 자유지상주의를 탄력적으로 수용해서 문제상황에 적용해 나가는 것이다.

사랑이 법이 된 세상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자기 자신이 율법이 된 시대에 살고 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가 되고, 내가 말하는 것이 법이 되는 세상. 남에게 피해를 주어도 내가 피해 받지 않으면 그럭저럭 넘어갈 수 있고, 내가 희생 되어야 한다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기와 독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선량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것의 사전적 정의는 행실이나 성질이 착하다(출처: 네이버 국어사전)는 것을 뜻한다. 책에서 표현하고 있는 선량한 차별주의자란 ‘선량하다’는 표현 그대로 행실이나 성질이 차별을 원하지 않지만 알게 모르게 차별을 행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어떠한 행동이 차별을 하고자 한 행동은 아니었으나, 개인이 한 행동 혹은 언어가 무의식적으로 차별이 되어버리는 역설에 대해 책은 이야기하고 있다.

저자는 이같은 선량한 차별주의자들이 생기는 것에 대한 원인으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언급한다. 능력주의라는 이미 자리 잡힌 질서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새장에 갇힌 새가 자신을 가두고 있는 새장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한다. 이에 저자는 능력주의로 발생하는 구조적인 한계들이 잘못된 고정관념을 반복적으로 만들고 악순환을 형성함으로써 선량하지만 누군가를 차별하는 역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같은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함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그 대안으로써 법과 제도 변화에 많은 강조점을 둔다. ‘차별금지법’과 같은 차별적인 시선을 완화시킬 수 있는 법의 통과와 기업 채용 기준 등의 제도적 변화를 통해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저자가 생각한 선량한 차별주의자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차별할 수 밖의 없는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당사자가 아니고서야 차별에 대한 이슈를 감각적으로 경험하기 쉽지 않고 이를 변화시키려면 차별의 피해자가 겪은 만큼의 강도 높은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저자의 주장에 대해 법과 제도가 갖고 있는 강제성이 과연 우리 사회가 떠안고 있는 차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었다. 차별을 없애기 위한 일차원적인 방안으로 법과 제도의 변화를 이야기하였지만, 현대 사회가 갖고 있는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제도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이 매우 커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법과 제도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서 사람들의 강력한 이성중심적인 사고로부터 비롯 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포스트모더니즘이라 불리는 강력한 개인주의와 탈이성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반 이성의 흐름 속에서 법과 제도의 급격한 변화를 통한 차별의 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취지는 좋으나 오히려 역차별의 문제를 더욱 부각시킬 수 있고 ‘이성적’이라는 것이 개인화되고 상대적인 논리로 적용되고 있는 시점에

서 방법적으로 그리 좋은 접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해 답하기 전에, 우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에 대해 먼저 생각해보아야 한다. 만일 누군가 내게 ‘사람들이 정말로 차별 없는 세상을 원할까?’ 라고 묻는다면 이에 대한 나의 대답은 ‘NO’이다. 모든 사람들이 차별을 원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만약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이 약자의 위치에 놓여있거나 차별하는 것이 잠재적으로 그것을 주장하는 개인의 이해와 직결되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의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차별을 원하지 않는(책에서 말한 능력주의의 기득권)이들의 상당한 반항에 부딪힐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바로 앞서 언급한 기득권들은 항상 존재해왔고 우리가 지금 약자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먼 미래에는 잠재적 기득권이 되어 또 다른 누군가를 차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질문을 바꾸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차별을 없앨 수가 있을까?’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은 어떠한 세상인가?’로. 우리의 질문을 이렇게 변화시킨다면 답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나온다.

독후감 맨 앞 부분에서 우리는 자기자신이 율법이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개인의 권리와 인격이 존중을 받는 시대, 나 자신을 사랑함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가 되어 버린 시대를 우린 살아가고 있다. 이런 흐름 가운데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어쩌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누군가는 이것이 다소 진부한,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 혹은 종교집단에서나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는 이기에 사로잡혀 우리 삶을 정말로 아름답게 해줄 본질적인 가치를 잃어버렸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에게 실망하여 왜곡된 시선으로 남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되려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슬픈 현실이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와 우리에게 더욱 깊은 상처가 되고 있을런지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가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드는 ‘차별을 없애기 위한 노력’보다 ‘서로 사랑하려는 다소 진부하지만 본질적인 가치’로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은 법과 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사랑의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우리 한 사람의 변화된 시선으로 가능할 수 있다고 믿으며 수많은 위인들이 이러한 가치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평등하게 만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의 초점을 변화시키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법과 제도는 마지막에 바뀐다. 우리 시대를 주름잡고 있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를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관점과 시각이 변화되면 법은 자연스럽게 변화될 것이다. 문제는 오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이,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과연 어떤냐는 것이다. 세상이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 수 있는 삶의 가치를 품어내고 있는지, 아니면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어서 나만을 위하는 생각과 사고를 하여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자신을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생각과 가치의 차이가 결국은 우리가 정말로 추구하는 아름다운 세상,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하지 않는 사랑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랑의 시대를 만들어가야만 한다.

‘정의’의 모든 것

정의의 사전적 의미로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를 뜻한다. 대부분의 도덕 교과서에서는 정의란 “사회적 대우나 보상 처벌 등에 있어서 ‘마땅하게 받아야 할 몫’을 공정하게 받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서술한다. 반대되는 뜻은 악이 아니라 불의다.

내가 생각하는 정의란 편향된 주관이나 윤리에서 벗어나 최대한 공정한 입장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정의와 관련된 개념으로는 공평, 정당성, 공정이 있는데 정의가 이를 모두 포함하는 큰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는 50년 전쯤까지도 흑인과 백인의 분리는 헌법적 정의라고 판결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 반대이다. 또한,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여성에게 참정권을 인정하는 것은 정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했다. 이처럼 정의에 대해 생각이 시대마다 사람마다 서로 다르기에 다툼은 그치지 않는다. 우리 사회도 계층, 이념, 지역, 성별에 따라 정의를 다르게 보기에 갈등이 만연한 상황이다. 이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통해 진정한 정의의 의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찾기 위해서 이 책을 읽게 되었다.

나는 정의와 부정, 평등과 불평등에 대해서 정말 수많은 의견과 정보가 있는데 이를 이성적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서 이 책을 바라보게 되었다. 또한, 책을 읽는 내내 내 직관과 신념은 믿을 만한가에 대해 끊임없이 물어보게 되었다. 나는 내 신념이 아직은 미성숙하지만, 꽤 도덕적이고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자는 불편한 상황을 제시하며 나의 직관적인 판단은 그리 도덕적인 판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하였다. 나는 사실 어떠한 책을 읽으면 그 책이 말하는 바가 오류가 없는지, 한계는 없는지에 대해서 파헤쳐보려고 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가 있다. 이는 책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비판적으로 수용하기 위함이다. 이 책에서도 이러한 나의 태도로 의문점들이 많이 들어서 비판적으로 읽는 과정을 통한 내 생각과 의견을 적어보았다.

트롤리 딜레마에 대한 내 생각: 트롤리 딜레마에서는 기관사의 입장과 선로 근처에 있는 사람의 입장, 두 가지의 입장이 존재한다. 기관사는 인부 1명을 죽일지 5명을 죽일지를 결정하는 것이고, 반대는 내 앞의 무거운 사람 한 명을 밀어 인부 5명을 살릴지의 문제이다. 공리주의자들은 5명을 살리는 쪽이 더 효율적으로 그들의 논리에 맞기에 5명을 살리는 길을 선택할 것이라 했다. 모두가 같은 생명의 무게를 가진다고 가정하고 봤을 때 확실히 5명을 살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누구나 말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 이야기가 애초에 사건의 발생 전제조건을 잘못 두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기관사는 선로 근처에서 그냥 보고 있었던 경우와 달리 자기가 맡은 일 즉, 기차를 잘 운행하고 탑승객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즉, 기차가 기관사로서 자신에게 있어서 먼저 처리해야 할 우선순위이다. 하지만 이와 달리 근처에서 그 현장을 구경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1명을 밀어 5명을 살리는 경우는 어떤 이유로도 회피할 수 없는 명백한 살인행위이다. 그 행위에 당위성도 없으며 또한, 어떠한

이유를 든다고 해도 행위의 당위성이 성립되지 않는다. 5명을 살리기 위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그러한 의무나 책임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외의 관점으로 봤을 때도 사람을 직접 밀어 죽이는 것과 기차라는 다른 매개물을 통해 사람을 죽이는 건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로, 한 명이 죽는다고 했을 때 이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감의 무게가 다르다. 선로에서 일하고 있던 인부는 일의 위험성 즉, 예를 들면 작업을 하다가 치여 죽을 수 있다면 이에 대해 위험이 인지된 상태에서 자신의 선택으로 선로에서 일하는 것을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위험성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이 죽으면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그 무게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나 선로 근처에 있었던 사람은 구경 중에 갑자기 누가 밀어 죽게 되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즉, 구경꾼은 자신의 선택이 없어서 죽음에 대한 일부라도 책임이 없는 것이다.

위의 두 가지 이유로 나는 이 트롤리 딜레마가 상황이 닦혔을 때 심리적 딜레마는 될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을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공리주의에 대한 내 생각: 샌델 교수는 공리주의가 개인, 소수집단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며 이를 비판하는 데 이에 나도 동의한다. 공리주의의 이론에서의 다수를 위함은 소수를 무시하는 전제가 깔렸다. 그렇기에 행복의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난다. 그렇다면 공동의 이익을 위한 소수의 희생이 정당화되는데 희생은 강요되거나 당연시된다면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공리주의는 가치 판단의 기준을 효용과 행복의 증진에 두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실현을 윤리적 행위의 목적을 주장한다. 이것이 가지는 단점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존재한다. 그러나 나는 공리주의가 단점만 가지고 있기에 사라져야 마땅할 이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낙태를 예를 들어보자면, 태아의 인권을 이유로 반대할 수도 있지만, 불가피한 상황에서 임신 여성의 인생을 이유로 찬성할 수도 있는 문제이다. 이처럼 공리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모호한 개념을 도덕적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을 때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틀을 마련해준다. 그 후 행복지수를 곱해 그 총량을 늘리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행복의 총량을 늘리려면 높은 등급의 사람들의 행복을 신경을 쓰기에 소수 역시 챙기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나는 좀 더 공리주의의 현실적인 대안적 제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다. 이는 사회의 사람들을 등급으로 나누어 사회의 혜택을 잘 받고 있을수록 낮은 등급을 주고 그 반대의 경우 높은 등급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공리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인 사회적 소수자의 의견이 무시되어 행복의 빈부격차가 발생하지 않는 대안이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을 같은 선상에 두지 않고 행복의 빈부격차를 고려하여 사회에서 적용할 때 조금 더 현대 사회에 적합한 최대다수, 최대행복을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샌델 교수의 주장에 대한 내 생각: 나는 샌델 교수가 주장한 시민적 공화주의가 민주주의 국가들의 불만을 없앨 수 있는지, 그 실용성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다.

샌델 교수가 시장을 비판하는 부분에서 그는 장기 매매, 대리모 출산 등 거래의 대상으로 제시한 것들이 시장 자체의 문제가 되는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는 현대 사회에서 모든 것을 상품화하면서 시장을 왜곡하고 시장의 정당성을 무너지게 하며 도덕적 규범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은 자율성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흔히 말하는 암거래로 부도덕하고 비정상적인 상품이다. 그러나 시장에서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대상도 분명히 존재한다.

예를 들면 인간의 노동력이나 화폐 같은 것들이 핵심적인 대상이다. 오늘날 시장에서 사람들이 고통받는 주된 이유가 장기 매매, 대리모 출산이 아님에도, 책에서는 이런 비도덕적인 것들에만 윤리적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그는 부정의를 생산하는 체제의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요즘 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진정으로 무엇인가? 투기 증대, 자산 소득 격차와 같은 문제점들이 시장에서 판을 치고 있지 않은가? 그는 이에 대해서 전혀 말하고 있지 않다. 그의 논리는 자본주의 체제의 결과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것이기에 이것은 문제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의 논리는 자본주의 체제의 결과에 분노를 일으킬 뿐이지 그 원인을 분석하거나 대안을 말해주지 않고 있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내가 이해한 샌델 교수의 공동체주의와 그에 대한 내 생각: 저자가 생각하기에 개인들은 사회를 자발적으로 구성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사회에 편입되는 존재이다.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누구인가는 나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가족, 시민사회, 국가, 민족의 역사적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내가 누리는 행복, 불행, 나의 삶의 경로는 공동체가 만들어져 온 역사의 일부이며, 그 역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그 공동체가 제공하는 혜택을 받고 공동체가 각 개인에게 부과하는 의무도 동시에 충실히 수행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또한, 덕성이 없는 자들은 시민적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먼저 교육된 자들에게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일반 사람들은 교화의 대상이며 주도적인 주체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 생각은 이와는 다르다. 각 개인이 능동적인 인식의 주체가 되는 것은 단지 교양 있는 사람으로부터 교육을 받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중들은 교육되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자신에 주어진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공유하면서 공동체의 주체이자 윤리적인 존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실 일반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경험과 인식을 집단으로 공유하고, 다양한 과정을 통해 서로의 정념을 수정하고 보완하며 세계에 대한 객관적 인식에 도달할 수 있다. 물론 지식인으로부터 지식을 얻으며 교육받을 수 있지만, 지식인 또한 대중의 경험, 실천으로부터 교육받는 경우도 존재한다. 게다가 사람들은 이 세계를 구성하는 능동적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세계를 둘러싼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집합적으로 공유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개혁할 수도 있다. 내가 주장하고 싶은 바는 일반 사람들도 공동체의 주체이자 윤리적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공동체주의자들의 관점에서 개인은 자신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도 공동체가 부과하는 의무에 관해 책임이 있다. 원하지 않더라도 조국을 위해 전쟁에 참전할 때가 있고, 자신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에 관한 윤리적 책임도 있는 것이다. 의무는 단지 내가 합의한 것만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요구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인들은 나치 행각에 대해 지속해서 사죄했다. 비록 자신들이 직접 행하지 않는 과거에 대해서도 그들이 사죄하는 것은 자신들의 조상이 한 잘못이나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이 한 잘못일지라도 그것은 자기 공동체가 저지른 것이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한국이 일본인들에 대해 일제강점기의 억압과 착취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현재의 그들과 과거의 일본인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나와 비록 직접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존재라 하더라도 내가 속한 사회의 일원이라면 나의 삶 일부이며, 그에 대한 나의 책임의식 역시 당연

히 전제되는 것이다. 이것이 샌델 교수가 주장하는 공동체주의의 핵심이다.

공동체의 선, 공동체주의에 대한 내 생각: 나는 마이클 샌델 교수가 주장하는 공동체의 선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하였는데, 공동체주의가 보편적인 인류의 정의를 말한다고 할 수 있는가에 의문이 들었고, 한국 사회에서의 유용성 여부가 궁금하여 이에 대해서 생각을 하여보았다. 이에 따른 내 생각은 한국 사회에서는 이것이 유용하지 않다는 것이다. 공리주의나 자유시장주의의 이론만 장단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샌델 교수가 주장하는 이론에도 단점과 폐해는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현재 자유주의가 제대로 된 기반을 이루지 못한 채 존재하고 있는 국가이다. 한국은 위기 속에서 뭉치는 그런 공동체적인 의식이 내재 되어있다. 이번 코로나 19사태에서도 공동체 의식을 보여준 사례로 전국 각지의 의료인들이 대구에 모여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실 이런 공동체 사회에서 학연, 혈연, 지연이 만연하기도 하다. 공동선의 정치를 행한다면, 빈부격차를 최대한 억제하여, 분배가 정의롭게 이루어지는 사회를 구축하면 된다는 논리인데 이는 사회에 만연한 부조리나 부당함은 배제한 정의가 아닐까? 그의 정의관은 우리의 갈등을 해결할 구체적 지침, 구체적 원칙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샌델 교수의 정의론을 가지고서는 한국에서 구체적인 현실에 대해 논의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진정한 정의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했던 나의 목표를 달성하였고, 더 나아가 '정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였다.

정의는 현실세계 속에서 완전히 구현되는가에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의와 현실 사이에는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사실 인간은 각자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정의를 주장한다. 내면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겉으로는 정의의 명분을 내세운다. 이는 위선이다. 그런데 이러한 위선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기 생각을 정의라고 여기거나 자신을 위한 이익추구를 정의의 추구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사회와 인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히틀러가 대표적 인물이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과연 자신만의 생각이나 이익에 편협되지 않으며 합리적이고 순수한 것인지 성찰하는 것이다.

삶은 옳고 그름, 정의와 부정에 관한 다른 의견으로 가득하다. 어떤 사람은 낙태 권리를 옹호하나, 다른 사람은 낙태를 살인으로 간주한다. 어떤 사람은 부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공정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은 부도 각자 노력인데 이를 세금으로 빼앗는 행위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사실 정의는 사람마다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가 있다. 또한, 시대마다 정의의 기준이 달라진다. 각자가 가진 정의에 관한 생각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며 어느 쪽이 무조건 맞다 보다는 상황과 입장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너와 나는 다르다는 생각은 인정 차원을 넘어선 것이고, 정의는 모두에게 같다는 전통적 관념을 깨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토론할 때 우리는 타협책을 찾을 수 있으며, 사회는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행복의 척도>를 읽고 나서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는 말이 있다. 요즘 날씨가 차츰 상쾌해지면서 조용히 앉아 생각에 잠길 때가 있다 보니 좋은 책을 한 권 꼼꼼히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수님을 통해 독후감대회 소식을 들었고 ‘행복의 척도’라는 책을 알게 됐다. 처음에는 제목이 궁금해서 관심이 생겼다. 읽기를 통해 내용을 알게 되면서 행복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

“행복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책에 이런 질문이 있다. 작가에게만 그런 의문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대다수는 똑같은 질문을 던질 것이다. 행복은 도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을 재어 볼 것인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다양한 욕구가 생긴다고 저자는 말한다. 일부분을 가졌을 때,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기의 행복이 무엇에서 비롯되는지를 잊어버리고, 비교하는 마음을 만족하기 위해서만 일을 한다. 우리가 그 순환에 빠져들어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위해 살면 자신이 정말 원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잊게 된다.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 어떤 물건을 얻기 위해, 더 높은 지위를 위해, 또 다른 것을 위해 살게 된다. 하지만 이런 것은 잘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행복이 아니다.

2020년에는 바이러스 때문에 매우 특별한 한해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많은 사람이 기회를 잃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돈과 명성은 행복과 진짜 관계가 별로 없다는 것을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때이다.

작가는 책에서 이렇게 쓴다: 코로나19사태 이전에 우리가 이것도 가져야지, 저것도 가져야지, 그러나 이번 사태로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된 사람들이 자기만의 라이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 그것을 행복의 척도로 삼아야 한다.

행복은 기준이 없고, 사람마다 행복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 하느님은 공평해서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준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평생 행복을 추구하지만 결국에는 행복을 찾지 못하기도 한다. 사실 우리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종종 행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몰라서 결과 자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는다.

행복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행복은 느낌이다. 사람들의 생활 상태에 달려 있지 않고,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다. 현재에 만족하는 사람이 항상 즐겁다. 사람은 이상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욕망과 소망은 다르다.

행복에 대한 기준은 없고, 행복에 대한 이해는 사람마다 다르다. 행복은 미련이 남게 하고, 행복을 거짓으로 하는 것은 안타깝고 고통스럽다. 이 세상에 있는 꽃도 물과 같이 작은 것도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다. 행복은 언제나 빈부의 위상에 관계없다. '사람의 행복은 마음의 행복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오늘날 행복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더 많다. 행복할 때 자신이 없으면 행복이 너무 일찍 자신을 떠나버리는 경향이 있다. 누군가는 자신의 행복을 타인의 고통 위에 구축하기도 한다.

행복은 단순하고 소박하고 소소할지 모르나, 그것은 실속 있고 손에 잡힐 듯이 구체적이다. 행복은 겨울에 천수만수 배꽃을 피운 서설 진주 안개처럼 사르르 젖은 만물 얼굴 시린 바람의 편안함 문득 뒤돌아보게 만드는 미소다. 오직 우리가 마음으로 체험하고, 마음으로 추구해야 행복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

사람의 인생은 단 사흘이다: 어제, 오늘, 내일!어제가 이미 지나갔지만,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우리는 어제를 모셔올 수도 없고, 내일을 미리 가질 수도 없다.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은 오늘뿐이다. 우리는 늘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오늘이 우리 삶의 전부인 것이다. 오늘을 잘못 파악하면 나쁜 어제가 된다. 오늘을 잡아야 하지만 어제도 내일도 포기해선 안 된다.

사실 나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행복의 척도가 무엇인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행복은 좋은 느낌이고, 그것은 인간의 욕망과 반비례한다는 것을 배웠다. 욕망이 적을수록 행복이 더 많아진다. 불교에는 견고지복(見苦知福)이라는 명언이 있다.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보면 자신이는 얼마나 행복한가 알 수 있다는 뜻이다. 나도 나중에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알아가면서 그에 대한 역량을 발전시켜가면서 행복하고 싶다. 또한 더 적은 걸 가지고 사회와 공존하면서도 다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적정한 것을 추구하자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 간 대면접촉을 기피하는 언택트 문화의 확산, 원격교육 및 재택근무 급증 등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이것은 모두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다. 모두들 바이러스를 무한에서 전해져 내려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전염병을 처음 시작했을 때 중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었고 지역마다 함락되면서 중국 국민 전체가 공황에 빠졌다. 당시 전 세계가 중국의 일이라고만 여겼을 수도 있었다. 각 국가는 중국인을 자기 나라에 가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데, 물론 그러한 상황에서 혐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전염병을 정말 중국에서만 일어난 건가? 나중에 뉴스에서도 중국에서 전파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나라에서 감염자가 나타났다.

바이러스를 어디서 왔는지 다시 연구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중요한 것은 바이러스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과 우리가 정말 생태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의 무한한 추구 욕망은 우리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그렇다면 중국은 이미 발등에 불이 떨어진 마당에 어떻게 폐렴을 물리치는 데 성공했을까?

김경일 교수님의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 라는 것처럼, 중국에선 인민이 불안해 하는 게 당연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언론은 매일 불확실성과 확실한 상황 등을 국민에게 알리고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했고, 사람들은 점점 공황에서 단합으로 나아가고 있다. 국민이 국가를 신뢰하고 정부를 신뢰하며 중국이 가장 어려울 때를 함께 보냈다.

사람들은 외출하지 않고, 그렇게 설을 가장 흥청망청하지 않은 설날을 보냈다. 하지만 그동안 확실히 내가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날이었다고 생각한다. 전문가도 아니어서 바이러스를 예상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라는 거창한 생각은 못 하지만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찼다. 김경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우리는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투쟁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번 코로나19 이후 타인이 아닌 나를 위한 삶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한다. 외출이 제한되고 타인과의 접촉이 제한되기 때문에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지고 가족 동반 시간이 많아진다. 그 시간을 나에게 온전히 투자하다 보니 내가 좋아하는 일도 하게 되고, 자기가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을 한다. 사회적으로 강요된 ‘원트’가 아닌 나만의 ‘라이크’이다.

우리는 지금 점차적으로 개성을 찾고, 개성을 추구하고 있다. 다른 사람을 모방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더 많은 수요는 없는데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자본주의는 이미 점차 와해되고 있다. 과잉 개발 금지도 불필요한 생산은 자제했다. 자본주의라는 무한한 욕망의 경제 체제는 정말 멈춰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 진짜 좋아하는 것들을 알아가면서 더 적은 것을 가지고 적정한 기술로 공존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이다.

코로나19때문에 우리 생활에 큰 변화가 생겼다. 우리는 바이러스를 방역하면서 변화하는 세계를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있다. 우리는 코로나19가 끝나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했던 것부터 지금까지 변화하는 세상이 점차 적용되고 있다. 바이러스는 계속 이어지지만 우린 결국 질 것이다. 그러나 치료제와 백신을 만드는 것은 위기를 넘기는 순간일 뿐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코로나19는 바로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이다. 우리가 무한한 욕망을 추구해 자연자원을 파괴하면 전염병이나 심지어 더 심각한 전염병이 계속 생겨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비교를 하지 않아야 하고 우리의 욕망을 유한하게 만든다. 그 한정된 생활환경에서 적절한 기술을 통해 적절한 행복과 삶을 추구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는 지혜로운 만족감을 추구하는 사회로 갈 것이다.

행복의 척도에 영향을 미치는 코로나19

흑사병이나 1918 년 유행성 독감과 같은 이전의 전염병은 이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친 뜻이 코로나19도 사회와 인류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수 밖에 없다.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아주대 교수는 중요한 시사점을 전한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는, 소위 ‘인정 투쟁’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었다는 것. 특히 사회적으로 강요된 원트에서 각자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라이프스타일, 다시 말해 진짜 만족감을 안겨주는 것들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소유와 욕망에 대한 재정의가 이루어지고, 앞으로는 ‘지혜로운 만족감을 추구하는 사회’로 나아가면서 더 적은 것을 가지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공존의 길을 찾아가자고 제안한다.

그 중 머리 속에 인상이 가장 남은 것은 3개가 있다.

첫째, “혐오는 인가의 즉각적 반응, 그래서 정부 대응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 한국에서 생활하는 유학생으로서 이런 사건을 겪고 느끼게 되었다. 자세히 말하자면 그때는 이제보다 더 심한 상태였고 두려웠다.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막는 의견, 부정적 시선으로 댓글을 달고 있었고 중국 식당에 가지말란 소리도 많이 들리곤 했다. “뭐라고 할 수 없죠. 본능보다도 더 앞서 있는 신체기관의 반응인 거니까요”라는 김경일 교수의 말씀 뜻이 이런 때는 정부의 대응이 더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둘째, “트럼프처럼 바보 같은 대통령은 계속 중국을 탓하고, 확진자가 백만 명이 넘었는데도 잘한다고 우기려고 하고요”라는 말이다. 개인적 생각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바보와 같지 않고 중국의 탓이 진실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에서 나타난 이유가 아니라 처음부터 성실하지 않고 진실을 고의적으로 숨긴 행위를 말한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탓이면 인정하는 게 마련이며 성심껏 고쳐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셋째, 무슨 일이라도 다 인간이 자연을 너무 파헤친 이유로 돌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연은 진화의 비싼 값이라고 부인할 수 없고 현재 전 세계에서는 환경, 자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부여해 와 있는 사실 상태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코로나19의 이유는 지금까지 정확하게 밝히지도 못했다.

제 생각으로 설명하자면 인간은 행복을 창조하고 누리하고자 하는 큰 소망을 가지는 존재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 열망은 여전히 불탄다. 코로나19가 여러 지역에서 유행하는 동안이라도 인간은 행복에 대한 자기의 열망을 표현하려고 한다. 이때 행복에 대한 개념과 느낌은 평범한 행복보다 더 깊고 넓으며 현실에 가깝게 이해된다. 즉 행복의 척도가 달라진다는 뜻이다. 지금의 행복은 형형색색의 꽃 옆에 있는 밝은 미소가 아니라 치열한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고요함과 각성이다.

행복은 엄청난 의미를 지닌 개념이다. 사람마다 다른 시점에 따라 행복에 대한 견해와 느낌이 다르다. 그래서 행복은 각 사람의 주위에 늘 존재하며 그 사람 안에 있다. 행복의 색과 크기는 다를 수 있고 행복은 세상의 평화와 같은 위대한 일든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굶주림에 대해 걱정이 없는 상황이든지 어떤 어머니가 아기를 위해 우유를 사기 위해 돈을 벌 때나 두 아이가 빗속에서 모자를 함께 가리는 모습과 같은 작고 단순한 일이든지 다 행복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므로 행복이란 무엇인지라는 질문에 여러 답이 있다. 사람마다 자기의 행복에 대한 다른 개념, 척도와 느낌이 있기 때문이다.

세상이 평화롭고 아름다울 때 어떤 어른 사람에게 행복은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고, 적성에 맞는 일을 하고 일할 만큼 상을 받는 것은 그거 바로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가장 단순한 행복이다. 다른 열망이 높은 사람에게 일을 잘 하기 위해, 사회를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인 행복의 수준이 더 높다. 이것은 과학, 예술, 생산 및 비즈니스 분야의 우수한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원동력이다. 이러한 동기는 그들을 창의적인 일꾼으로 바꾸고, 기술에서 획기적 제품을 만들어 그들을 부자로 만들고 바쁜 시간의 흐름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유행으로 각 나라의 사람과 경제에 대한 손실과 피해는 물론이고 반면에 낙관적인 시각으로 보면 예전의 생활 속에 어려운 일인 자기만의 라이프를 할 수 있으며 소중한 가족이랑 함께 지내고 쉬는 시간을 가져다주는 기회라고 볼 수 있다. 당연히 상황에 따라 행복의 척도도 변하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 있어도 적응하고 개인 방식, 개인 척도로 행복을 느끼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Want와 개인적 Like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듯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요즘은 코로나 이전으로 완벽하게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다. 직장이나 학교생활, 외식 문화 등 많은 것이 변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변화될 것 같다. 이 주제에 언급한 아주대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의 '행복의 척도' 글을 통해 내가 많은 인상 깊은 이야기들을 알게 되었다.

진화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할 때 경쟁력보다 공존력이 더 강력한 역량이다. 김경일 교수가 말했듯이 지난 인류 역사에서 경쟁에서 남과 싸워 이기려는 경쟁력을 가진 자보다 공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남을 잘 포용하며 그들과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오래 살아남았다.

나는 코로나가 그동안 개발하고 빼앗고 착취하며 장악하려고 하는 강자나 패권주의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공존하는 과정에서 인류가 가장 지혜로워지고 스마트해질 것임을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게다가 책을 읽어 보니 불안은 사실을 알려달라는 감정이고 분노는 진실은 말하는 감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분노하는 게 아니라 불안이고 코로나 19는 불안함이 주된 감정인데 불안함은 불확실 때문에 커지고 불확실함은 사실로 해소된다. 우리는 만족감이 지혜로워지는 사회로 갈 것이다.

김경일 교수의 책을 읽으면서 가장 와닿았던 부분은 바로 우리의 삶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원트(want)의 삶에서 라이크(like)의 삶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는 부분이다. 우리는 “원하다”에서 “좋아하다”라는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인정 투쟁하는 사회라는 요즘 현대 사회가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은 욕망, 더 큰 평수 아파트로 살기를 갈망하면서 남들에게 보여주고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의 심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 19로 사람들과의 거리 두기를 함으로써 남의 인정, 감탄의 기회가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 내 감정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내용이다.

진실과 사실, 인정 투쟁 및 남의 감탄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어 정말 좋았다. 그동안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마음이 힘들었던 부분도 인정 투쟁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고 이제 남의 감탄에 목말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감탄으로 바꿀 수 있는 활동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행복의 척도를 읽고

<행복의 척도> 내용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행복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사회를 언급하면서, 경쟁력보다 공존력이 더 강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공존하면서 포용하는 윈윈 역량을 가진 사람이나 문화가 더 오래 살아남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혐오는 인간의 즉각적으로 당연한 반응이기 때문에, 정부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을 한다.

따라서, 국민의 감정에 대한 국가시스템이나 정부의 대처를 잘 수행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사실과 진실의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진실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원인을 이야기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진실이 작용하는 것이며, 대중은 진실을 원한다고 이야기한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불안한 것이고 분노가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서 불확실함을 없애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인간에게 더 만족감이 중요해 졌다고 볼 수 있으며, 그를 위해서 사회적인 윈트가 아닌 자신의 라이크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행복의 척도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적정한 기술이 인류에게 가장 행복한 기술이라는 점을 말하며, 앞으로의 경쟁력이 적정한 행복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내부의 동력을 찾고 장점을 살려서 한국만의 독창성을 바탕으로,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한다.

<행복의 척도>에 대한 감상

-나의 실제 불행했던 경험

내가 이 글을 보고 느낀 점은 매우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다. 행복의 척도가 매우 중요해지는 세상이라고 생각한다. 남과의 비교는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는 것들이며, 비교는 불행의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한다. 우리는 이제 행복을 찾아서 무엇이 우리의 행복을 만드는 것인가 파악해야 한다는 점에 몹시 공감한다.

사실 나도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나는 한국에 와서, 나보다 한국어를 잘 하는 유학생 친구들과 나를 비교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은 나보다 한국에 오래 와 있던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다. 나는 그것을 고려하기 보다, 단순히 현재의 한국어 실력만을 비교하면서 나 스스로에게 스트레스를 주었다.

그런데 나는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집에 더 오래 있게 되면서 여러 가지 책을 읽었다. 그러면서 나의 스트레스의 원인을 반성하게 되었다. 나도 누군가가 봤을 때, 한국어를 나쁘지 않게 하는 유학생일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나보다 너무 오래 한국에 있던 사람들과의 비교는 옳지 못하다는 점을 느끼게 된 것이다.

물론 나와 비슷하게 한국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람마다 속도가 다르다는 책의 글을 읽고 깨닫게 된 점이다. 비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비교를 하면서 스스로에게 지나친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점을 느끼

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지나친 비교는 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깨닫게 된 점들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비대면과 언택트, 온택트 문화가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의 우울증도 증가한다는 기사를 보았던 것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경제의 심각성에도 주목해야 하겠지만, 사람들의 우울함에 대해서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면 경제를 할 의지도 생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결국은 돈이 행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건강하고자 하는 것도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의 목표는 행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행복의 척도나 행복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인드가 매우 현대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질이라고 생각을 한다. 현대인들은 너무 우울한 삶을 살려고 하고 있다. 그러한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고 느껴진다. 점점 높아지는 자살의 원인도 불행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환경을 벗어나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꿈꾸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은 그동안 우리가 너무 행복을 놓치고 살았다는 점에 대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현재 사회의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생겼다. 많은 논의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앞으로의 사회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두어야 할 가치는 바로 행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이크는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또 인상적이었던 점은 원트가 아닌 лай크를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다. 남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래야 한다고 느끼는 경향을 버려야 한다는 점인데, 행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나도 아직까지 원트와 лай크를 많이 구분할 수 없는 상태인 것 같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모두 원트와 лай크를 구분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모두가 학습된 것에 의해서 사회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사회가 추구하는 모습이 멋진 모습이라고 배워왔다.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몹시 힘들 수밖에 없다고 느끼고 있다. 우리는 한 번도 우리 스스로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라고 배운 적이 없다.

그렇게 우리는 사회가 원하는 부품처럼 살아가게 되고, 그것이 현대의 젊은 사람들에게서 점점 더 많은 우울증이 발견되는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의 진짜 마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할 때에 가장 행복할 수 있는지 파악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느끼게 되었다.

-행복의 척도가 세세해야 할 이유

행복의 척도가 7점으로 늘어나야 한다는 점에도 몹시 공감한다. 우리는 그동안 행복을 너무 단순하게 평가해 왔으며, 그것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정신적인 행복과 건강을 추구하기 위해서 척도를 7점으로 늘려 나가면서, 무엇이 과연 우리의 행복에 도움이 되고 또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지 자세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책에 전체적으로 매우 공감이 갔다.

따라서 세세한 행복의 척도는 우리에게 행복을 더 민감하게 느낄 수 있게 하여서, 우리의 기분과 라이프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필요한 변화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인 감상에 대한 정리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점은 대화의 형식으로 전달되고 있었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진단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을 통해 단순히 한국 사회의 변화에서 필요한 점 뿐만이 아니라 나 스스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중요성을 정리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한다. 행복의 척도라는 말답게 나는 나만의 행복의 척도를 개발하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이 책을 통해 내가 원하는 라이프는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 보는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남들과 지나친 비교를 하는 것이 나에게 매우 좋지 않은 일이라는 점을 느끼게 되었다.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사실이고 불확실함을 제거해 주는 것이라는 점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다. 다양한 깨달음을 짧은 글로 이루어진 책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고맙게 생각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느끼게 된 사회적인 바람이 생겼다. 그것은 바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사회의 변화의 방향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관련이 있다.

나는 앞으로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진짜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각자 추구하면서 더 개성적이고 독창적이며 행복으로 가득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변화하는 것을 기대하게 되었던 것 같다. 우리는 이제 원트를 강요하지 않고 개인의 라이프와 행복에 더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자들, 신중히 생각해서 웨딩드레스 입어보자

작가 정세랑의 단편 소설 「웨딩드레스 44」는 특정 드레스 한 벌을 할인해 주면서 결혼한 여성 44명의 이미 결혼한 여성이나 결혼을 준비하는 여성의 이야기를 다뤘다. 44개 여성의 이야기는 각자로 1인칭 시점으로 서술하고 언어를 생활화하고 있는 독자들이 쉽게 빠져든다. 동시에 사실적인 색채를 가지고, 결혼에 대한 현재 사회의 문제점과 폐단을 깊이 있게 비판하고 폭로하였다. 이 소설은 여성에게 웨딩드레스를 입는 것이 인생의 필수적인 선택인지를 생각하게 한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고 심지어 사랑하는 두 사람의 결합이라 해도 행복한 결혼이 될 수도 없고, 적어도 여자에게는 그렇다. 결혼은 적어도 두 가정의 결합이다. 한국 같은 전통 사회에서는 집안어른 전통 관념의 여러 측면이 여성에게 무수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인 편견과 생활 속의 스트레스와 고민은 여성들로 하여금 결혼에 대한 아름다운 환상을 깨뜨리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 결혼생활은 쉽게 말해 두 사람이 하루하루를 평범하게 산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이 자신의 반려자에 의해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 그렇지 못하고 여성이 그들을 보살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소한 행동과 언어로 자신의 아내를 해친다. 각 방면의 스트레스, 최후의 치명타야말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야말로 여성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하지만 소설도 결혼생활로 괴로워하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다. 결혼이 삶의 전부도 아니라 자신의 삶의 일부가 되도록 멋지게 사는 부분도 있다. 결혼이 여성의 삶을 즐겁게 해줄 수 없다면 존재할 필요가 전혀 없다. 여성도 인간이고, 자기에게 살 권리가 있다.

소설 속의 단순한 이야기이지만, 점(點)에서 면(面)까지, 이것은 단순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사회 전체의 풍조를 바꾸어야 하고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 그래서 이 훌륭한 단편 소설을 추천받으면 여자만 추천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 더 잘 읽고 이해해야 한다.